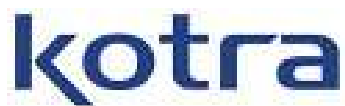


페루

정보수정일자: 2009. 12. 31

작성처: 리마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1
- 정치사회동향 /2
- 한국과의 주요이슈 /6

II. 경제

- 경제동향 및 전망 /6
- 주요 산업 동향 /16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2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32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34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37
 - 대한수입규제동향 /37
 - 관세제도 /38
 - 주요인증제도 /43
 - 지적재산권 /43
 - 통관운송 /45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7
- 외국기업 투자동향 /52
- 우리기업 투자동향 /60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5
- 진출형태별 절차 /72
- 투자입지여건 /80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80
- 조세제도 /83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88

V. Business 참고정보

- 시장특성 /90
- 물가정보 /92
- 바이어발굴 /93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94
-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96
- 진출 성공, 실패 사례 /97
- 이주정착 가이드 /98
- 출장가이드 /100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119
- 유관기관 웹사이트 /120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1.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페루(영문명: Republic of Peru, 현지어 국명: República del Perú)
위 치	북쪽은 에콰도르, 콜롬비아, 동쪽은 브라질, 남쪽은 칠레, 볼리비아 접경
면 적	1,285천km ² (산림지대 53.2%, 목초지 21.2%, 경작지 2.7%)
기 후	○ 리마를 포함한 해안 지대: 사막성 기후 ○ 안데스 산맥 이동의 산악 지대: 열대성 기후
수 도	리마(Lima, 해안과 접해 있는 저지대)
인 구	총 2,741 만 명(2007년), 리마 인구 약 850 만 명
주요도시	Lima(850 만명), Arequipa(100 만명), Chiclayo(73 만명), Trujillo(70 만명)
민족(인종)	인디오 50%, 메스티조 37%, 백인 12%, 일본 및 중국계 1%
언 어	스페인어
종 교	가톨릭교(90.5%), 기독교(6.5%), 기타(3.0%)
건국(독립일)	1821. 7.28(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보형태	대통령 중심제
국가원수	○ Alán García Pérez - 취임일: 2006. 7. 28 - 임기 5년(재임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

자료: 페루통계청 INEI

나. 경제지표 (2008년 기준)

실질경제성장률	9.8%
1인당 GDP	US\$2,915(2005), US\$3,386(2006), US\$3,918(2007) US\$ 4,415(2008)
실업률	8.1%
물가상승률	6.7%(2008년 末)
화폐단위	누에보솔(Nuevo Sol)
환 율	US\$ 1 = 3.15(2008년 말)
외 채	US\$ 355.91억 달러
외환보유	US\$ 313.03억 달러
주요업종별 성장률	농목축업 6.7%, 어업 6.2%, 광업 7.6%, 제조업 8.5%, 전기상수도 7.7%, 건설 16.5%, 상업 12.8%, 기타 서비스 9.5%
교역규모	○ 수출: US\$31,208백만 ○ 수입: US\$29,982백만
교역품	○ 주종 수출 품목: 광물, 수산물, 석유류, 농수산물 가공품 ○ 주종 수입 품목: 연료, 전력 관련 플랜트, 자동차, 곡물, 플라스틱

자료: EIU, 페루 중앙은행

다. 韓-페루 관계(2008년 기준)

체결 협정	통상협정('76), 사증면제협정 체결('82), 경제과학기술협력 협정('84), 문화협정('88), 투자 보장 협정('93), 남극 협력 협정('96), 어업 협정('96. 9월 가 서명), 항공 협정 ('02. 7월 가 서명), 범죄 인도 조약 서명('03. 12월), 관광 협정 서명 ('02. 12.10) 및 발효('03. 1. 29)
교역 규모	○ 2008년 : 1,624백만 달러 - 對페루 수출: 720백만 달러 - 對페루 수입: 904백만 달러 ○ 2009년 1월-8월 : 233백만 달러 - 對페루 수출: 284백만 달러(2008년 동기 대비 41% 감소) - 對페루 수입: 516백만 달러(2008년 동기 대비 21.8% 감소)
교역품	○ 對페루 주종 수출품목: 자동차, 합성수지, 화물자동차, 화학제품 등 ○ 對페루 주종 수입품목: 아연강, 금속광물, 나프타, 동강(銅鑛), 커피, 수산물 등
교 민	교민 수 약 800~900명(2009년 추정)

자료: 페루 국세청 및 통계청 INEI, KOTIS 등

2. 정치 사회 동향

가. 국가 조직

- 페루는 대통령 중심제 민주공화국이다. 대통령은 임기 5 년제이며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재임은 허용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제 1,2 부통령 등 2 명의 부통령을 두고 있으며, 총리도 별도로 두는 특이한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고 있다.
- 페루 행정부는 2008 년 5 월 환경부(Ministerio del Ambiente)를 개설하여 총 16 개의 부처를 두고 있다. 다음은 2009 년 9 월 25 일 기준 페루의 국무총리, 장관들이다.
 - 국무총리(Primer Ministro): Javier Velásquez Quesquén
 - 농업부(Ministerio de Agricultura): Dante Adolfo De Córdova Vélez
 - 무역관광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y Turismo): Martín Pérez
 - 국방부(Ministerio de Defensa): Rafael Rey
 - 교육부(Ministerio de Educación): José Antonio Chang Escobedo
 -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ía y Minas): Pedro Sánchez
 - 법무부(Ministerio de Justicia): Aurelio Pasto Valdivieso
 - 여성사회개발부(Ministerio de la Mujer y Desarrollo Social): Nidia Vílchez Yucra
 - 생산부(Ministerio de la Producción): Mercedes Aráoz
 -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José García Belaunde
 - 보건부(Ministerio de Salud): Óscar Ugarte
 - 교통통신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Enrique Cornejo
 - 건설부(Ministerio de Vivienda y Construcción): Francis Allison
 - 내무부(Ministerio del Interior): Octavio Salazar
 -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 y Promoción del Empleo): Manuela García Cochagne
 - 재정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Luis Carranza
 - 환경부(Ministerio del Ambiente): Antonio Brack Egg

- 입법부의 경우 페루는 단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석은 120 석이다. 현재 절대 다수당은 없었으며, 정치성향이 유사한 정당간의 정책공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파간의 이합집산이 심하다.
- 2006 년 4 월 총선에서 “민족주의당(Partido Nacionalista Peruano)”이 “국민단결당(Unión Por el Perú)”과 연합해 가장 큰 의석 수를 확보하였고, 2 위는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 당선자 정당인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당(APRA–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이 차지하였다.
- 2007 년 9 월 기준 정당별 의석 수는 아래와 같다.
 - Unión Por el Perú(Partido Nacionalista 23 + Unión por el Perú 19): 42 석
 - Partido Aprista Peruano: 36 석
 - Unidad Nacional: 15 석
 - Alianza por el Futuro(Fujimorista): 13 석
 - Alianza Parlamentaria(Perú Posible 2+Restauración Nacional 2+Frente de Centro 5): 9 석
 - Grupo Parlamentario Especial Demócrata: 5 석
- 지역별 의석 수는 아래와 같다. (알파벳순)
 - Amazonas: 2 석
 - Ancash: 5 석
 - Apurimac: 2 석
 - Arequipa: 5 석
 - Ayacucho: 3 석
 - Cajamarca: 5 석
 - Callao: 4 석
 - Cusco: 5 석
 - Huancavelica: 2 석
 - Huanuco: 3 석
 - Ica: 4 석
 - Junin: 5 석
 - La Libertad: 7 석
 - Lambayeque: 5 석
 - Lima: 35 석
 - Loreto: 3 석
 - Madre de Dios: 1 석
 - Moquegua: 2 석
 - Pasco: 2 석
 - Piura: 6 석
 - Puno: 5 석
 - San Martin: 3 석
 - Tacna: 2 석
 - Tumbes: 2 석
 - Ucayali: 2 석
- 페루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하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정치 제도

-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이다.
 -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은 페루 출생으로 35 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 선출은 국민 직접선거로 하되 1 차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는 1 차 선거 1, 2 위 후보가 2 차 경선 투표에 들어가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 대통령 외에 제 1, 2 부통령 제도를 두고 있다.
 - 부통령의 피선거권 자격과 임기는 대통령과 동일하다.
- 정부조직은 실무를 담당하는 16 명의 각료로 구성된 각료회의와 정부부처를 두고 있다.
- 국무총리는 각료 중 1 명이 겸임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 국회의원 의석 수는 120 석이며 임기는 5 년이다.
 - 선출방법은 지역구 방식이 아닌 전국구 형태인 정당/개인후보 지명 투표 방식
 - 각 정당후보 중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득표 순에 의거 120 명을 결정
- 국회의장단은 의장 외 3 명의 부의장을 두고 있으며 임기는 1 년이다.
 - 의장단은 대부분 전원 여당인 경우가 많다.
- 국회 회기는 1 기는 매년 7. 27~12.15 일간이며, 2 기는 3.1~6.15 일간이다.
 - 산회기는 각 상임위원회가 국회활동을 대행한다.
- 대법원,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하급법원)으로 구성된 3 심제이다.
 - 대법원장 임기는 통상 5 년이지만 대통령이 임의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 법관은 중앙 법관 추천회의에서 임명된다.
 -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행정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Defensor del Pueblo(국회에 의해 임명되는 호민관(護民官)으로 일종의 옴부즈만 제도) 제도가 있다.
 - 現 Defensor del Pueblo: Beatriz Merino

다. 정치사회 동향

- 현정부의 정책 추진력 결여 및 정치계 분열은 사회 불안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2011 년에 있을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008 년 인플레이션의 결과로 경제적 생활 수준은 다소 하락하였으나 2009 년에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연간 목표치 3% 이내에서 유지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수로 및 위생시설 개선, 도로 건설 등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으로써 여당 재집권을 위한 민심 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9 년 들어 경기가 침체된 상태이나 2008 년까지의 경제성장 성과로 정책 실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알란 정부의 부족한 정책 이행 능력이 끊임없이 문제시되고 있다.

- 1980~90 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테러단체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이 아마존 밀림 인민지역을 중심으로 公權力과 무력 충돌하는 등 활동을 소규모로 재개하고 있으나 이전처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끼치지는 않고 있다.

라. 국제관계

- 페루는 양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 및 중국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투자와 교역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유럽연합(EU)과의 FTA 체결도 2009 년 내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페루는 브라질과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는 등 브라질과의 통상 관계 증대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해양 국경선 획정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판결을 요청한 칠레와의 관계는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다.

마. 前 대통령에 25년 징역형 선고

- 후지모리 전직 대통령 징역형 선고는 페루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들고 있으며 자칫하면 국론을 크게 분열시킬 가능성마저 지니고 있다. 7 대 대통령이었던 알베르토 후지모리(1990~2000)는 인권침해 혐의로 남미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집권 시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하거나 기업가, 언론인을 납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판은 3 명의 판사 패널로서 집행하였으며, 그 결과 25 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 후지모리 전대통령의 판결에 대해서는 페루 내부 사회에서 각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Ipsos Apoyo 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7%만이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해 무죄라고 답하며 나머지 70% 가량은 유죄라고 답했으나 그 중 45%만 25 년의 형이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무죄라고 믿는 응답자 중 25%는 형이 과하다고 답하였다.
- 또한 여론조사는 후지모리 대통령 1990 년대 집권기 동안, “Sendero Luminoso(빛나는 길, 마오쩌둥 게릴라 그룹)” 무력 소탕이 누구의 업적인가에 관해 응답자의 1/3 이 후지모리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공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 사회적, 이데올로기 분열은 2011 년 대선 이전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후지모리 전(前) 대통령 딸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현(現)의원) 지지도는 후지모리 대통령의 유죄 판결 후에 25%로 급속도로 상승하기도 하였으나 2009 년 9 월 들어 리마시장인 Luis Castañea 의 지지율이 급등(急騰)하고 케이코 등의 지지율은 2 위 이하로 내려간 상태이다.
- 전체 의회의 10%를 차지하는 후지모리당은 APRA 당과 암묵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최근 몇 년간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구치소 환경 개선과 무죄 선언을 추진했다.
- 그러나 후지모리 전(前)대통령 유죄판결과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의회에서 후지모리당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바.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 테러행위 재개

- 1990 년대까지 페루를 피로 물들이던 테러단체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009 년 4 월 중순 경 아야쿠초 Ene-Apurimac 강에서 폭탄과

무기로 15 명의 군인을 사살하였으며 이러한 사살에 대해 정부는 전투 참가 연령을 21 세로 높이고 군비 지출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페루 경찰, 군은 게릴라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으나 테러행위를 근절하지는 못하는 상태이며 빈번히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 코카인 거래로 무장도 잘 하고 조직력도 뛰어난 테러집단 재결성은 아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규모 및 가용자원 면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2009 년 韓-페루 최대 이슈는 FTA 체결로 볼 수 있으며 2009 년 내로 협상을 종결짓고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종과세방지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주요 이슈 중의 하나이다.
- 한국수출입은행과 방꼬데크레디토(Banco de Credito)가 체결한 전대차관 개설 계약을 활용한 상호 교역 증진이 기대된다.
- 韓-페루 자원협력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 격년 개최하고 있다. (최근 개최는 2008 년).
- 페루 보건, 교육 분야 역량 구축 사업 확대, 페루 학생 및 전문가 대상 장학금 지원 및 방한 연수프로그램, 페루 공공기관 현대화 등 KOICA 를 통한 한국정부의 개발협력도 커지고 있다.
-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의 韓-페루 정부, 기업 간 협력 증진도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페루에서의 한국 드라마 방영이 양국 국민의 정서적 교감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페루는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관심 분야 협력과 조정을 계속한다는 자세로 한국과는 매우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기후변화, 국제금융위기 등 주요 이슈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개황

페루는 대외무역과 외국인투자 유치가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집권 시절 90년대 초부터 과감한 민영화를 실시한 바, 현재는 광산업, 통신업, 운송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이 투자 진출해 있다. 페루 경제는 외국인 투자기업 중심의 민간부문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lejandro Toledo 前 대통령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은 과거 후지모리 정부가 추진했던 것과 큰 차이점이 없었으며 기본 정책방향은 경제성장, 고용증대, 대외 경제협력, 물가안정, 빈곤 퇴치를 최대 현안으로 삼았었다. 그 뒤를 이어 2006년 7월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가 대통령으로 다시 집권한 후에도 前 정권 경제정책의 기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산업정책은 광업, 농수산업 및 건설업 부문에 역점을 두면서 경기 촉진 및 고용 창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재원조달을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와 외국인투자 및 주요 선진국 경제 원조 유치, 국제금융기구(IBRD, IDB, CAF 등)로부터 신규 외자조달 등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페루는 전면적인 대외개방 정책으로 대외무역 및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나 과도한 과세제도, 기업에 대한 간섭 및 사회적 책임 부과, 융통성이 떨어지는 관료주의 등이 페루의 痼疾이다.

2006년 7월 28일 정권을 잡은 Alan Garcia 대통령은 선거 당시 아래와 같은 선거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1) 보건·사회 분야

-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도입추진
- 상수도망 확충
- 사회소외계층에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유전자 약품의 저가 공급제도 등
- 新 정부 출범 후 6 개월 중 10 만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추진(농가에 대한 금융 대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
- 국가 사회분야 사업을 총괄할 기구 설립

2) 교육

- 지방정부에 교육분야 권한 이양 완결
- 지방 교육 특별우대
- 전일 교육 실시를 목표로 수업시간 점진적 확대
- 교육분야 예산을 GDP 6% 까지 증액(매년 0.25% 증대)
- 「외채-교육투자」 전환 프로그램 추진
- 교원 봉급인상 및 성과급 제도 도입

3) 무역·경쟁력

- 중소기업 관련 정부기구 개편
- 정부조달의 최소 30%를 중소기업에 배정
-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 강화
- 2008 년 APEC 의장국 수임

4) 인권·사법제도

- 사법적 보호에 대한 전국민의 접근보장 및 인권보호
- 충분한 예산 하에 사법기관의 독립적 운영시스템 추진
- 저소득층에 대한 법률 지원 제공
- 시민 판사제도 또는 사법부 운영에 시민 참여제도 제안

5) 빈곤 퇴치

- 빈곤퇴치 통합기금 설립
- 초등학교 급식 제도 도입
-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발전 기금 창설

6) 국정의 효율·투명성 증대

- 전자정부 구현
- 직업 공무원제도 개혁
-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근절
- 반 부패업무 관련 국가기관, 시민단체 강화
- 감사원장을 야당 측 추천인사 중 의회가 임명

7) 지방자치

- 각급 지방단체 권한을 법률로 규정, 업무·권한 중복 방지
- 광역 수도권 및 지방경제 중심지 구조하에 장기적인 지방 분권정치 추진
- 조세의 지방배분 기준 개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설립

8) 치안, 폭력 근절

- 국립경찰의 현대화와 경찰 처우 개선
- 대화와 합의를 통한 사회분쟁 해소 정책 시행
- 테러리스트 활동지역의 평정화 및 코카인 대체사업 강화
- 수형자 감형 혜택 축소 및 재범자에 대한 감형 금지

9) 마약문제

- 마약거래 및 소비문제를 국가정책 차원에서 취급
- 마약 및 마약제조 물질의 거래 관련 돈세탁 단속 강화
- 빈곤대처와 연계되도록 마약 대체개발 프로그램 개혁

10) 천연자원 및 사회 간접 자본

- 유류가격 인하(에탄올 혼합사용 및 천연가스 사용 확대를 통해 가격인하 추진: 약 25% 인하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기업과 기존 Camisea 가스전개발 계약 재교섭
- 수도권 및 내륙지방 저소득층에 대한 상수도 공급망 확대
- 28 개 내륙연결 도로 건설
- 서민층의 주택보유 확대 사업 시행

11) 경제, 고용 확대

- 연간 7% 성장 달성과 '견실한 고용'창출
- 1 일 8 시간 근무, 시간외수당 지불, 부당해고 방지제도 확립

- 산간벽지(Sierra)의 수출창출 사업시행(집권 5년간 일자리 30만 개 창출)
- 중소기업, 농업 및 공예산업에 대한 새로운 금융지원 계획 시행
- 미국과의 FTA 서명 지지

나. 경제정책 전망

1) 개요

- 넉넉한 재정과 충분한 외환보유액으로 페루는 세계 경제 위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 추진력 부진은 경기부양책 효과 여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 현 페루정부는 국내시장 안정을 위해 주로 단기적 경제 안정 정책을 수립하며 실제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위해 자금을 투입하였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유동 자금 투입을 위해 은행의 지불준비금을 축소하였다.
- 페루 중앙은행(BCRP)은 외환 보유액을 통해, 페루 정부는 재정안정기금을 통해 부족한 외환 용자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 그러나 일부에서는 현재 예상 인플레이션을 하락에서 나타나듯이 페루경제 축소를 우려하면서 현재의 통화완화 사이클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2) 재정정책

- 2009년 경기부양책으로 채택한 예산은 페루 총 GDP의 2.7%인 32억불이며 대선과 총선을 앞둔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입은 미진한 국내수요 증가와 교역액 감소로 2009년 크게 감소할 것이나 2010년에 들어 차츰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페루정부 재정안정기금인 FEF(Fondo de Estabilizacion Fiscal)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2009년 발생 적자의 일부를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재정책임 및 투명성 법안(LRTF; Ley de Responsabilidad y Transparencia Fiscal)에 따르면, 정부는 세입이 최근 3년 평균치 비교 0.3% 감소할 경우 FEF에 용자를 요청할 수 있다. 2006~08년 평균 세입은 GDP의 29.8%였으나 2009년 세입은 26.8%로 전망되어 용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통화정책

- 인플레이션을 하락과 경제성장을 하락으로 페루중앙은행(BCRP)은 통화 정책을 완화 하였으며 5%로 인하한 기준이자율을 2009년 말까지 3.5%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 한편 일부에서는 페루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극변하는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4) 경제성장

국제 경기 전망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전망)	2010(전망)
GDP 실질성장률				
세계	5.0	2.8	-1.4	2.7
미국	2.1	0.4	-2.4	1.8
EU 27개국	2.8	0.8	-4.3	-0.0
환율				
₩: US\$	117.8	103.4	96.1	94.8
US\$:€	1.37	1.47	1.36	1.39
SDR:US\$	0.65	0.63	0.65	0.65
재정지표				
3개월어음이자율(US\$)	5.06	2.18	0.26	0.28
3개월Libor금리(US\$)	5.30	2.91	0.99	1.01
상품가격				
금 (US\$/troy oz)	696.7	870.2	922.5	888.8
동 (US cents/lb)	322.3	316.2	199.0	223.8
기름(Brent:US\$/b)	72.7	97.7	62.0	74.0
식음료(US\$)	30.9	28.8	-20.3	3.7

자료: EIU Country Report (2009.9)

- 국제경제 지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당분간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상기 표는 제조업과 교역 부문에서 악재를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시켜 준다.
- EIU 전망에 따르면 2009년 구매력 평가기준 국내 총생산은 1.8% 줄어든 것이며 미국, 유럽 연합, 일본을 비롯해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보이고 2010년에는 1.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하락한 광물 가격으로 페루의 교역은 더욱 위축되고 많은 기업이 이를 이겨내기 위해 비싼 이자를 내고도 파이낸싱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페루는 원유 생산국임을 고려할 때 하락한 석유가격으로 인해 2008년보다 2009~10년 이후에야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 성장

- 페루는 주변국에 비해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2010년 까지 GDP 성장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2009년 6월, 7월에도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 2008년의 인플레이션, 실업은 국제경제 침체와 함께 2009년 수출 총액 감소, 가계 수입 및 소비 감소의 요인이 되었다.
- 국제금융 조건이 엄격해지고 수출이 감소하면서 2005년부터 페루 GDP 성장에 직접적인 요인이 된 투자 또한 줄어들었다.
- EIU는 페루의 GDP 성장률을 2009년 1.3%, 2010년 2.5%로 예상하고 있으며 리마 상의(商議) 등 민간업계, 2009년과 2010년 성장률은 2% 및 4% 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 총수요 감소, 수출 감소, 제조업 및 건설 등 주요 부문 경기하락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 공공 소비와 투자가 증가시켜 2011년 대선과 총선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2010년 미국과 세계 경제가 회복되어야 수출도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 한편 Garcia 대통령은 페루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음을 연일 강조하면서 다른 남미국가들에 비해 경제위기에 비교적 잘 대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5) 인플레이션

- 2008년 11월, 1년 누적치 기준 10년 만에 최고인 6.7%를 기록하였으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과 국내 수요 저하로 2009년 7월 기준 13개월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4.7%로 내려갔으며 2009년 계속 하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 인플레이션은 계속 진정되어 2009년 및 2010년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페루중앙은행 목표치인 3% 내에서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009년 연말 누적 인플레이션율은 1.4%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6) 환율

- 2009년 9월 말 기준 누에보솔의 환율은 1불당 2.8솔 대로 내려간 상태로서 2008년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이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국제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누에보솔은 강세를 보이다가 페루 중앙은행이 환율시장에 개입하면서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 2009년 말 누에보솔은 1불당 2.9솔, 2010년 3.16솔이 될 것이라고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 하락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의 추락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2009.9.23 1달러당 2.864누에보솔까지로 환율이 하락하자 중앙은행은 4개월 반 만에 시중 금융계에 유통되는 2억6천9백만달러를 매입하였다.
- 전세계 달러화 가치 하락과 AFP업계 달러화 매각으로 달러화 급증하였으며 단기성 자본이 많이 들어와 환율이 낮아졌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중앙은행은 오히려 단기자본 유입은 줄어들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7) 대외 부문

- 2009년 페루의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무역수지 적자는 2009년 GDP대비 1.7%에서 2010년 1.2%로 회복되겠으나 서비스 부문은 운임료 하락 및 관광산업 침체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 EIU 전망에 따르면 경상수지 적자는 GDP대비 2009년 5.5%에서 2010년 5%로 소폭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전망 요약

(단위: %, 단위가 다를 경우 괄호 안에 표기)

	2007a	2008b	2009b	2010b
GDP 실질성장률	8.9	9.8	1.0	3.0
산업생산성장률	10.8	9.9	-7.5	2.7
투자예산총액(평균)	26.1	25.9	-16.9	2.2
실업률(평균)	6.9	8.1	9.0	8.7
소비자물가지수(평균)	1.8	5.8	3.2	2.3
소비자물가지수(연말)	3.9	6.7	1.4	3.0
대출이자	22.9	23.7	20.0	21.5
NFPS Balance (GDP내%)	3.3	2.2	-3.4	-1.3
FOB 수출(십억불)	27.9	31.5	23.1	25.7
FOB 수입(십억불)	19.6	28.4	20.3	22.8
경상수지(십억불)	1.2	-4.2	-0.8	-2.3
경상수지(GDP내%)	1.1	-3.3	-0.6	-1.7
외채(연말;십억불)	33.1c	34.9	30.0	30.4
환율 누에보솔:달러(평균)	3.13	2.92	3.08	3.13
환율 누에보솔:달러(연말)	3.00	3.14	3.10	3.12
환율 누에보솔:100엔(평균)	2.66	2.83	3.20	3.30

주. a 현황 / b EIU 전망치

8) 중앙은행 이자율 인하

- 경제 침체로 4월 페루 중앙 은행(BCRP)은 계속 이자율을 인하하고 있으며 특히 2월, 3월에 걸친 25포인트 인하는 중앙은행 역사상 가장 큰 이자율 인하이다.
- BCRP는 물가 안정과 현 거시경제환경 대처 필요성을 이자율 인하의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자율 인하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세금 납부 감소

- 기업이윤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가 3월 직접세 징수액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세금 납부는 최근 수년간 급격히 증가(2007년과 2008년은 GDP의 15%를 상회함) 하였으나, 경제위기로 2008년 말 이후부터 감소하였다.
- 페루 국세청에 의하면 정부세와 소비세는 '09년 3월 14억불로 2008년 3월과 비교할 때 7% 감소하였다.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가 2008년 대비 각각 11.7%, 2.7% 감소하였다.
- 2008년 상반기의 세금 납부는 금속광물 가격이 기록적으로 인상되면서 세금 납부도 더불어 두 자리의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경제 침체와 광물가격 하락으로 2009년 세금 납부액은 감소할 것으로 추측된다.

10) 중국과 FTA 체결

- 2009년 4월 말 중국과 FTA를 체결한 바, 페루의 중국과의 FTA 체결은 중남미에서 칠레에 이어 두 번째이다.

- 중국 전자제품, 기계 제품과 페루 어류, 광물에 대한 90% 이상이 포함되었다.
- 페루 통상관광부는 중국 기업인들이 이미 페루의 통신과 항구 부문에 투자의사를 표했다고 밝히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페루의 2번째 규모의 교역 상대국이다.

11) 제조업 주춤

- Alan García 페루 대통령 등 고위 당국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페루경제는 철갑을 두른 경제”라는 등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이 페루에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2009년 들어 페루 경제는 크게 침체된 상태이다.
- 1/4분기 및 2/4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1.8%, -1.1%에 그쳤다.

부문별 국내 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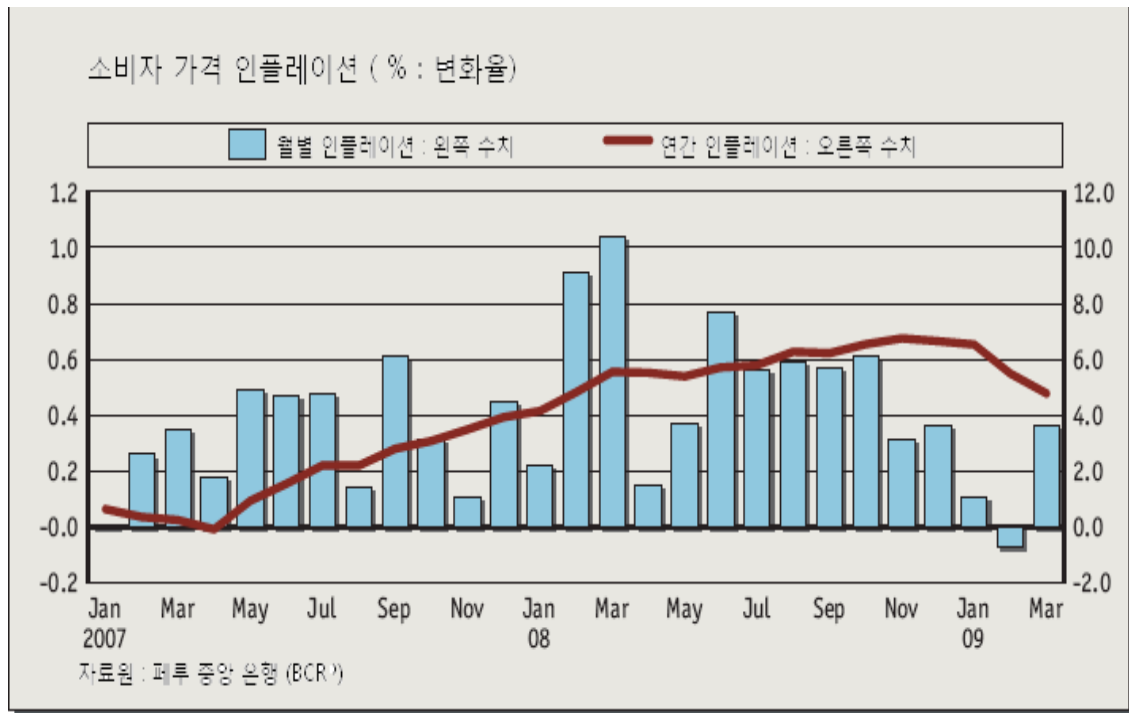
(전년 대비 증감률 %)

	2007	2008년	2009. 1/4분기	2009년 2/4분기
농목축업	3.3	7.2	4.2	1.3
농업	2.0	7.4	3.0	0.3
목축	5.4	7.0	5.8	3.6
어업	6.9	6.2	-19.8	-6.8
광업, 연료	2.7	7.6	3.7	0.6
금속	1.7	7.3	0.8	-1.1
연료	6.5	10.3	30.4	16.7
제조업	10.8	8.7	-5.3	-11.1
원자재 가공	0.7	7.6	1.2	1.6
비원자재 산업	13.0	8.9	-6.5	-13.7
전기	8.5	7.7	1.2	0.2
건설	16.6	16.5	5.1	-1.1
상업	9.7	13.0	0.4	-2.1
기타 서비스	8.9	9.3	3.9	1.9
GDP	8.9	9.8	1.8	-1.1
1차산업 분야	2.7	7.4	2.7	0.9
非1차산업	10.2	10.3	1.6	-1.5

자료: 페루 중앙은행

12) 인플레이션을 하락

-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은 보이면 12개월째 하락세를 유지하며 4.8%로 떨어진 바, 중앙은행의 목표인 2%를 넘어서는 수치이지만 앞으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매가격은 2009년 3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해 2008년 10월 최고인 11% 상승 후에 가장 낮은 수준인 2.7%에 머물렀다. 전월 대비 0.5% 하락하였다.
- 2009년 4/4분기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목표치 내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 4월 페루 통계청(INEI)은 2010년 1월부터 인플레이션 측정 제품을 재조정하겠다고 발표함. 현재 포함하는 제품 515개는 199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것임.



다. 페루의 경제 지표

무역수지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 1/4분기	2009.2/4분기
1. 수출	23,830	27,882	31,529	5,382	6,054
전통상품	18,461	21,464	23,796	3,916	4,636
수산물	1,335	1,460	1,791	410	477
농산물	574	460	685	61	89
광물	14,735	17,238	18,657	3,136	3,711
석유	1,818	2,306	2,663	309	359
직물	5,279	6,303	7,543	1,437	1,380
2. 수입	14,844	19,595	28,439	4,882	4,825
소비재	2,616	3,192	4,527	929	904
중간재	7,981	10,435	14,553	2,072	2,302
자본재	4,123	5,861	9,239	1,849	1,590
기타	123	107	120	32	29
무역 수지	8,986	8,287	3,090	499	1,229

자료: 페루 중앙은행

연간 경제전망(EIU제공)

	2005a	2006a	2007a	2008a	2009b	2010b
GDP						
GDP(십억불)	79.4	92.3	107.3	127.6	125.5	133.8
GDP(십억솔)	262	302	336	373	391	419
GDP성장률	6.8	7.7	8.9	9.8	1.3	2.5
지출(%GDP대비)						
민간소비	4.6	6.4	8.3	8.8	1.8	2.2
공공소비	9.1	7.6	4.5	3.9	9.4	7.2
투자예산총액	8.9	26.5	26.1	24.8	-4.1	1.2
수출	15.2	0.8	6.2	8.2	-6.9	1.3
수입	10.9	13.1	21.3	19.9	-7.7	1.2
부문별 GDP						
농업	4.8	7.4	3.1	6.7c	2.1	3.5
상업	7.6	7.2	9.8	8.0c	-2.5	3.2
서비스업	6.3	8.1	9.7	11.0c	2.8	2.1
인구 및 소득						
인구(백만명)	28.0	28.3	28.7	29.1	29.4	29.8
GNP(달러)	6,032	6,916	7,632	8,458	8,517	8,644
실업률(%)	7.6	7.5	6.9	8.1	9.0	8.7
재정지수						
공공재정수지	-0.3	2.1	3.3	2.3c	-1.6	-0.5
공공채무이자	1.9	1.9	1.8	1.8c	1.4	1.3
순공공채무	37.7	33.0	29.7	24.5c	25.0	23.9
재무지수						
환율 누에보솔:달러	3.43	3.20	3.00	3.14	3.12	3.16
환율 엔:누에보솔	34.38	37.25	37.29	28.92	30.73	29.77
소비자가가격(평균,%)	1.6	2.0	1.8	5.8	4.1	3.1
생산자가가격(평균,%)	2.3	3.2	2.5	8.9	1.0	2.5
통화량M1(%)	11.0	24.1	34.5	10.5	4.8	7.3
통화량M2(%)	16.8	11.8	23.0	23.2	9.9	5.9
대출이자율(평균,%)	25.5	23.9	22.9	23.7	20.0	21.5
수지(백만불)						
무역수지	5,260	8,986	8,287	3,090	-2,109	-1,612
상품 수출FOB	17,336	23,830	27,882	31,529	20,668	22,116
상품 수입FOB	-12,706	-14,844	-19,595	-28,439	-22,791	-23,728
서비스수지	-834	-737	-1,187	-1,929	-1,726	-1,831
소득수지	-5,076	-7,580	-8,374	-8,144	-6,158	-6,458
이전수지	1,772	2,185	2,494	2,803	3,042	3,245
경상이전수지	1,122	2,854	1,220	-4,180	-6,946	-6,657
외채(백만불)						
총채무액	28,660	28,174	33,084c	34,940c	33,675	34,242
채무상환액	5,539	3,745	7,338c	5,451c	5,215	4,415
원금상환액	3,846	2,065	6,028c	4,335c	4,351	3,528
외환보유액(백만불)						
총 외환보유액	14,175	17,439	27,784	31,254	27,848	26,532

주. a 현황 / b EIU 전망치 / c EIU 추정치

페루의 주요 국별 수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대상국	연도			점유율(%)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1	미국	5,467.58	5,250.07	5,756.03	23.33	19.03	18.45
2	중국	2,267.28	3,041.27	3,735.50	9.68	11.02	11.98
3	스위스	1,682.99	2,335.28	3,410.32	7.18	8.47	10.93
4	캐나다	1,592.35	1,784.70	1,949.43	6.8	6.47	6.25
5	일본	1,229.76	2,183.71	1,855.33	5.25	7.92	5.95
6	칠레	1,421.52	1,693.18	1,838.53	6.07	6.14	5.89
7	베네수엘라	411.57	759.64	1,076.67	1.76	2.75	3.45
8	독일	811.95	928.58	1,028.19	3.47	3.37	3.3
9	스페인	761.22	979.27	1,018.28	3.25	3.55	3.26
10	이탈리아	761.40	824.45	926.48	3.25	2.99	2.97
11	브라질	809.36	937.96	895.27	3.45	3.4	2.87
12	네덜란드	702.31	588.75	758.96	3	2.13	2.43
13	콜롬비아	503.81	615.23	707.22	2.15	2.23	2.27
14	대만	415.03	395.12	596.11	1.77	1.43	1.91
15	한국	545.28	882.66	551.68	2.33	3.2	1.77
	기타	4,048.03	4,388.40	5,089.71	17.26	15.9	16.32
	총계	23,431.43	27,588.27	31,193.73	100	100	100

자료: World Trade Atlas(2009.9.29 기준 자료)

페루의 주요 국별 수입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입대상국	수입액			점유율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1	미국	2,508.85	3,603.30	5,589.19	16.37	17.61	18.67
2	중국	1,585.68	2,474.23	4,058.02	10.35	12.09	13.55
3	브라질	1,606.38	1,884.24	2,415.14	10.48	9.21	8.07
4	에콰도르	1,092.47	1,510.68	1,773.36	7.13	7.38	5.92
5	아르헨티나	801.38	1,126.34	1,578.08	5.23	5.5	5.27
6	콜롬비아	948.84	988.75	1,280.24	6.19	4.83	4.28
7	일본	562.73	790.40	1,275.10	3.67	3.86	4.26
8	칠레	864.30	884.21	1,182.33	5.64	4.32	3.95
9	멕시코	520.36	757.58	1,160.33	3.4	3.7	3.88
10	독일	505.85	709.64	868.65	3.3	3.47	2.9
11	앙골라	58.48	515.09	819.50	0.38	2.52	2.74
12	한국	392.35	522.34	778.47	2.56	2.55	2.6
13	기타	3,879.47	4,697.43	7,163.47	25.3	22.96	23.91
	총계	15,327.14	20,464.22	29,941.88	100	100	100

자료: World Trade Atlas(2009.9.29 기준 자료)

2. 주요 산업 동향

가. 농업

페루의 지역별 기후가 다양하므로 농산물 또한 다양하다. 국토 중 130만 헥타르가 경작 가능하다. 안데스 산맥에서의 농업은 생존을 위한 농업이나 해안지방으로 가까이 오면서 수출 가능한 대량 재배 농업으로 변화한다. 최근까지 불리한 법규정 등으로 농업 분야에의 투자가 저해되었으나 페루 정부는 1990년대 후반에 이러한 법규정을 바꾸어 농업 분야에의 투자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농토 보유 상한선을 대폭 높였으며 농토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바꾸었다.

비 전통농업 및 가축 수출 수익이 2001년 이후 계속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수출 증대는 미국의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ATPDEA)의 도움이 크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가 2009.2.1을 기해 발효했으며 이는 앞으로 페루의 대미 수출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 내 안데스 산맥의 동쪽에 위치한 지역 및 고지대 밀림은 품질 좋은 차(茶) 및 커피의 주요 생산지다. 코코아도 생산하지만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말미암아 코카인 생산으로 돌아서는 농가도 제법 있다. 코카인 재배를 상업적으로 시작한 것은 1970년 대로 1980년대에는 미국에서의 코카인 수요가 급증하면서 코카인 생산도 늘어났다. 페루는 콜롬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카인 잎 및 코카인을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다. 페루 정부는 코카인 생산을 억제하고 가능하면 아스파라거스 및 수출용 커피 생산을 장려해 왔으며 이에 따라 코카인 생산은 급감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코카인 밀매업을 목적으로 한 VRAE 지역 게릴라의 준동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태평양 연안의 풍부한 어족 자원으로 페루의 어분(魚粉) 및 통조림 산업은 주요한 외화 획득 원이 되고 있다. 페루는 세계 최대의 어분 수출국으로 매년 1,000만 톤의 멸치(anchovy) 및 정어리(sardine)가 잡힌다.

나. 광업

페루는 세계 다섯 번째의 금(金) 및 동(銅) 생산국이고, 은(銀) 생산은 세계 1위이며, 아연, 납 생산도 월등하다. 광물은 가장 중요한 수출품이 되고 있으며 연간 총 수출액의 절반 이상은 광물이다.

신규 투자가 광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급속히 팽창(膨脹)하고 있다. 가장 생산 증대가 현저한 광물은 금이다. 미국 Newmont Mining사, 페루 Minas Buenaventura사, 캐나다 Barrick 등이 주요 생산업체이다. 특히 Barrick사가 개발한 Pierina 광산의 생산비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45달러/oz이다. 가장 큰 금광은 New mont사의 Yanacocha 광산으로 페루 전체 금 생산의 50%를 차지한다.

페루의 주요 광물 생산 순위

	Mundial / World	Latin America
Silver	1	1
Zinc	2	1
Tin	3	1
Bismuth	3	1
Tellurium	1	1
Lead	4	1
Gold	5	1
Indium	7	1
Copper	3	2
Molybdenum	4	2
Selenium	6	2
Arsenic	4	2
Cadmium	13	2
Iron	17	5

자료: US Geological Survey - USGS - The Silver Institute; Gold Fields Minerals Services - GFMS International, Copper Study Group - ICSG- International Lead and Zinc Study Group ILZSG- International, Tin Research Institute - ITRI - International Molybdenum Association - IMOA; Instituto Lationamericano del Hierro y el Acero -ILAFA

페루는 전 세계 동 부존량의 15%를 차지하며 1990년대 중반 이후 동(銅) 생산도 급격히 증가해 왔다. 대부분 동 생산은 외국인 투자업체가 한다. 2001년 7월 거대 동광(銅鑛)이자 아연광인 Antaminas가 생산을 개시하였다. 수도 리마에서 북쪽으로 380km 지점 안데스 산맥에 세계 최대 광맥 개발을 위한 23억 달러 프로젝트도 계획되고 있다. 캐나다 업체가 개발권을 1998년에 획득하였으며 앞으로 적어도 20년 동안 연간 아연 생산량 3억 6,000만 파운드, 동 생산량 6억 파운드 등이 예상된다.

다. 제조업

제조업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2004년 기준 15% 정도이며 어분생산, 광물 가공 등 1차 산품 가공업이 주를 이룬다. 음료수 생산, 식물 및 귀금속 가공업도 있다. 2004년 이후 제조업도 확대 국면을 맞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이후 매년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의류직물, 식음료 산업계는 수출 증가를 기대하였으나 세계 경제위기의 여파가 미치면서 2009년에는 매우 생산이 위축된 상태이다. 2009년 들어 제조업계는 생산 감소 계속으로 4/4분기 회복되어도 2009년 전체 성장세 만회는 불가능해 성장률은 -5% 내외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거기다가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거나 달러화 환율이 더 내려가면 제조업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2007년 이후의 제조업 생산을 나타낸 표이다.

구 분	2007		2008				2009	
제조업생산지수 (1994=100)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제조업생산지수 (연별 증감률 %)	9.3	10	10.4	11.3	7.3	3.3	-5.2	-11.2

자료: EIU(2009.9)

식품 제조업은 Alicorp사 및 Gloria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Alicorp사는 면(麵) 종류를 생산하며 Gloria는 낙농제품, 유제품을 생산한다. 음료수 부문의 선두업체는 Inca Kola사로서 1999년 이후 미국의 Coca Cola가 소유하고 있다.

페루의 식물제품은 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피마(Pima) 면으로 만든 제품은 국제 시장에서 고가(高價)에 판매되며 Tanguis도 스포츠웨어 제품으로 팔린다. 그 밖에 알파카 및 비쿠냐(vicuña) 털로 만든 제품도 매우 고가품으로 분류된다.

라. IT 산업

페루 정부는 IT산업 육성이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의 필수요건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민간 업계의 투자촉진 및 사용자 저변 확대 등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재정 상태가 빈약해 관 주도형의 기반조성은 어려운 바, 90년대 초부터 정보통신시장의 과감한 민영화에 착수하여 페루의 IT산업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민간부문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스페인계 통신업체인 Telefónica del Perú, 미국계 업체인 Nextel, 멕시코계 업체인 Claro 등이 주도하고 여타 군소 업체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페루 경제구조 및 규모가 낙후해 IT분야의 실수요자가 아직 제한적이고, 일반 국민은 소득수준이 낮아 관심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0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인터넷 사용 편의 제공을 위한 페루식 PC방인 Cabina Pública에서 서민들이 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데 최근 Cabina Pública의 폭발적인 증가로 가격 또한 대폭 저렴해졌다고 한다.

페루는 전 후지모리 대통령 정부시절인 1994년도에 처음으로 정부의 재원부족을 보완하면서 통신부문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국영통신공사 민영화를 단행하면서 스페인 통신공사 (Telefónica de España)가 영업권 국제입찰 형태로 페루 통신시장에 참여하게 된 이래 꾸준히 시장 개방정책을 펴오고 있다. 통신분야는 광업분야와 함께 외국인투자가 가장 활발한 산업 부문으로 통신시장 개방정책을 펴온 결과 민영화 추진 전체인 1993년과 비교할 때 괄목할만한 성장을 가져와 2005년에는 유선전화 가설 회선수가 265만 회선, 이동통신 이용회선이 558만 회선으로 증가한 바 있다. 다음은 전화회사별 가입자 현황이다.

회사명	회계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Telefónica del Perú S.A.A.	1,565,804	1,648,816	1,797,919	1,970,594	2,156,638	2,294,900	2,334,912	2,329,280
Telmex Perú S.A.	4,747	7,078	8,839	11,787	17,436	21,919	35,486	39,296
Telefónica Móviles 1	405	670	32,107	65,383	71,828	71,981	285,681	309,718
Americatel Perú S.A.	0	60	300	1,902	3,776	4,796	9,192	10,842
Impsat Perú S.A.	0	0	0	156	851	3,623	5,184	5,223
Gilat to Home Perú S.A.	0	0	0	0	393	646	828	801
Rural Telecom S.A.C	0	0	0	0	0	91	674	800
Nextel del Perú (AntesMillicom)	0	0	0	0	0	55	23	22
Infoductosy Telecomunic. Perú SA	0	0	0	0	0	2,593	1,372	1,334
Convergía Perú S.A.	0	0	0	0	0	0	0	54
총합	1,570,956	1,656,624	1,839,165	2,049,822	2,250,922	2,400,604	2,673,352	2,697,370

자료: Osiptel(통신 감독위원회)

□ 다음은 유선전화의 회사별 가입 회선 수를 나타낸다.

유선		무선	
가입자 회선 수	분포율	가입자 회선 수	분포율
664,989	2.9	36,000	0.2
759,191	3.2	52,000	0.2
1,088,176	4.5	75,397	0.3
1,332,356	5.5	201,895	0.8
1,537,341	6.2	435,706	1.8
1,553,874	6.1	736,294	2.9
1,609,884	6.3	1,045,710	4.1
1,617,582	6.2	1,339,667	5.1
1,570,956	5.9	1,793,284	6.8
1,656,624	6.1	2,306,943	8.6
1,839,165	6.7	2,930,343	10.7
2,049,822	7.4	4,092,558	14.8
2,250,922	8.3	5,583,356	20.5
2,400,604	8.7	8,772,154	31.7
2,673,352	9.6	15,417,247.0	55.6
2,697,370	9.7	16,897,451	60.8

주 1: 2008년 3월 누적

주 2: 분표율- 100명당 사용자 수(통계청 자료)

자료: 페루 교통통신부

아직도 유선통신망 부문에서는 지난 94년도에 실시된 페루 통신시장 개방 1단계 민영화 조치 당시 국제입찰에 참여해 유선통신시장을 장악했던 스페인 통신공사(Telefónica de España)의 현지 투자법인인 Telefónica del Perú가 거의 독점체제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2004년 3월에는 페루 제2의 유선통신사였던 Bellsouth를 Telefónica사가 Comunicaciones Moviles del Perú라는 이름으로 인수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60.6%로 넓힌 바 있으며 나머지는 미국의 Nextel사(4.5%)와 멕시코의 Telmex(Claro)사 (34.9%)가 양분하고 있다.

2005년에 이탈리아의 TIM사를 멕시코의 Telmex사가 인수해 Claro라는 상호로 현재 페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Telefónica의 독점시장인 페루에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페루의 이동통신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GSM, CDMA, IDEN 방식이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통신시장을 주도하는 Telefónica del Perú사가 CDMA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50% 이상을 CDMA 방식이 장악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Telefónica사가 GSM도 병행하여 CDMA 방식의 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페루 이동통신 업체별 채택기술

구 분	채택기술	주파수
Telefónica	CDMA, GSM	800MHz
Claro	GSM	1900MHz
NEXTEL	IDEN	800MHz

자료: OSIPTEL

현재 페루의 인터넷 사용자 중 36%가량이 컴퓨터를 가정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나머지는 회사, 학교, Cabina Pública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현재 페루에서 가장 선호되는 컴퓨터 브랜드로는 Dell, HP, Compaq, IBM 등을 꼽을 수 있다.

페루의 컴퓨터 수입현황

(단위: 백만달러)

순위	원산지	2006	2007	2008	점유율(%)			증감률(%) - 08/07 -
					2006	2007	2008	
	합계	279.09	279.92	380.88	100	100	100	36.1
1	중국	121.30	136.67	224.37	43.5	48.8	58.9	64.2
2	미국	34.89	44.11	57.48	12.5	15.8	15.1	30.3
3	멕시코	42.87	36.47	46.52	15.4	13.0	12.2	27.6
4	말레이시아	5.91	7.40	9.21	2.1	2.6	2.4	24.4
5	한국	12.90	13.40	7.75	4.6	4.8	2.0	-42.2
6	싱가포르	6.77	6.17	7.41	2.4	2.2	2.0	20.1
7	태국	3.82	4.40	4.78	1.4	1.6	1.3	8.7
8	일본	7.40	3.96	4.38	2.7	1.4	1.2	10.6
9	대만	5.53	3.27	2.66	2.0	1.2	0.7	-18.7
10	칠레	1.92	2.52	2.39	0.7	0.9	0.6	-5.0
11	필리핀	2.83	2.71	2.12	1.0	1.0	0.6	-21.9
12	아일랜드	1.35	1.84	1.76	0.5	0.7	0.5	-4.4
13	헝가리	0.92	1.88	1.51	0.3	0.7	0.4	-19.4

자료: 페루세관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중국, 미국, 멕시코,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페루의 소프트웨어류 및 솔루션과 SI등의 콘텐츠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성장세가 계속되면서 민간업체와 공공부문의 사무자동화 및 시설 현대화 작업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는 금융, 통신, 광업 등의 업계와 정부 부문으로 SI류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부문의 시장은 특히 해적물의 범람으로 각종 SW류의 정품이 시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현지 취급상은 SW 종류별로 각각 전체 수요의 최저 50%, 최고 90% 정도가 해적물로 충당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페루의 소프트웨어 수입현황

(단위 : 백만달러)

순위	원산지국	2007	2008	점유율(%)			증감률(%) - 08/07 -
				2006	2007	2008	
	합계	16.96	29.68	100	100	100	75.0
1	미국	5.37	9.56	0	31.7	32.2	78.1
2	Low Countries	0.04	3.85	0	0.2	13.0	9942.9
3	대만	1.42	2.53	0	8.4	8.5	77.9
4	핀란드	3.43	2.13	0	20.2	7.2	-37.8
5	콜롬비아	0.60	1.39	0	3.6	4.7	131.3
6	스페인	0.35	1.27	0	2.1	4.3	264.8
7	독일	0.91	1.02	0	5.4	3.4	12.3
8	중국	0.90	0.99	0	5.3	3.3	10.1
9	캐나다	0.43	0.95	0	2.5	3.2	123.0
10	인도	0.67	0.80	0	4.0	2.7	19.7
11	멕시코	0.30	0.63	0	1.8	2.1	106.9
12	아르헨티나	0.36	0.49	0	2.1	1.6	33.6
13	한국	0.01	0.42	0	0.1	1.4	3915.7
14	싱가포르	0.12	0.41	0	0.7	1.4	249.8

자료: 페루세관

페루는 1990년대 초반부터 IT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정책은 외국자본에 대한 완전 개방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IT 분야를 선진국 대기업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IT 분야 중 일부 분야만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균형된 장기발전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투자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페루 정부에서는 IT 분야의 성장이 국가발전을 의미하고 빈부격차 해소, 정부행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분권화 등을 가속화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Government의 중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추진이 더딘 상황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분야별 비중

구분	2006	2007	2008	2006	2007	2008
농목축	13,286	13,723	14,712	8.3%	7.9%	7.7%
- 농업	8,215	8,378	8,995	5.1%	4.8%	4.7%
- 목축	3,971	4,180	4,471	2.5%	2.4%	2.3%
수산업	823	879	933	0.5%	0.5%	0.5%
광업 및 석유개발	9,926	10,195	10,968	6.2%	5.8%	5.7%
- 광업	8,395	8,536	9,157	5.2%	4.9%	4.8%
- 석유	805	857	945	0.5%	0.5%	0.5%
제조업	24,607	27,265	29,625	15.4%	15.6%	15.5%
- 원자재 가공	5,161	5,195	5,591	3.2%	3.0%	2.9%
- 非제1차 산업	19,446	21,975	23,922	12.1%	12.6%	12.5%
전기 및 수도	3,307	3,588	3,865	2.1%	2.1%	2.0%
건설	8,350	9,737	11,340	5.2%	5.6%	5.9%
상업	23,248	25,495	28,808	14.5%	14.6%	15.0%
기타 서비스	61,001	66,851	72,794	38.1%	38.3%	38.0%
조세 및 관세	15,599	16,596	18,432	9.7%	9.5%	9.6%
국내총생산(GDP)	160,145	174,329	191,477	100.0%	100.0%	100.0%

자료: 페루중앙은행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美-페루 FTA 발효

- 2007년 12월 14일 美 부시 前 대통령이 美-페루 FTA에 공식 서명함으로써 3년에 걸친 미국과 페루 간 FTA 체결은 성공적으로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
 - 부시 대통령은 “FTA 체결협상을 진행하던 지난 3년 동안에도 양국 간 교역이 90억 달러에 이르러 협상 전과 비교해 두 배나 성장했다”고 말했으며 “FTA가 발효됨으로써 80% 이상의 미국제품이 무관세로 페루시장에 진출하게 됐으며, 페루 기업도 거대시장 미국으로 더 수월하게 수출할 것이다”고 예상했음.
 -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도 양국의 경제협력과 기술이전으로 빈곤퇴치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음.
- 양국 의회의 동의, 대통령 최종 비준을 거쳐 협정은 2009.2.1을 기해 發效하였다.

나. 中國-페루 FTA 체결

- 중국과 페루는 2008년 11월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FTA 협상을 마무리하였음을 선언하였으며 협정문 실무검토 작업을 시작하였음.
- 양국은 법률 검토작업을 마무리하고 2009.4.29 페루 부통령, 통상장관 등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한 가운데 협정을 체결하였음.

다. FTA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

- 페루도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수출증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 해서는 FTA를 확대하는 것이 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FTA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FTA 확대와 관련, 시장진출 우선순위에 따라 세계시장을 네 개의 시장으로 나누고 있는 바, 첫째는 선진국 전략시장이고, 둘째가 고성장(高成長) 개발도상국, 셋째가 광역 시장, 넷째가 기자재 공급 광역시장 등임.
- 페루가 현시점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첫째 시장으로 이에는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EU,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포함되어 있음.
- 2006년까지만 해도 페루는 칠레,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가까운 국가와의 지역 협정 성격의 FTA를 체결했었으나 이제는 미국을 비롯해 원거리(遠距離) 국가와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음.

라. 자유무역협정 다변화

1) 대상국 : 미국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개시 : 2004.5.18
- 타결 : 2005.12.7(총 13차 협상)
- 발효 : 2009.2.1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對美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 및 국민소득 증대
 - 미국 기업의 對페루 투자유치 확대
 - 국내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발전 및 고용증대
- 주요 쟁점사항
 - 미국-페루 경제관계의 핵심사항을 포함한 통합협정
 - 시장접근 관련 관세.비관세장벽, 긴급구제조치(세이프가드), 원산지기준, 기술장벽, 위생검역기준, 국내시장 보호 등이 중요한 쟁점사항으로 논의
 - 서비스분야(통신, 금융, 건축, 소프트웨어 등) 교역,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 상호투자 촉진 및 보호, 지적소유권 보호, 노동기준 충족, 환경기준 충족, 합리적인 분쟁해결절차 적용

○ 협정분야

- 상품교역
 - . 시장접근(관세인하일정, 관세 및 非관세 장벽)
 - . 세이프가드
 - . 원산지기준
 - . 기술장벽
 - . 위생검역
 - . 직물교역
- 서비스교역
 - . 통신, 금융, 전문인력, 건설, 소프트웨어
 - . 전자상거래, 정보조달
- 투자
 - . 투자촉진 및 보호
 - . 지적소유권 보호
 - . 국제 노동기준 및 환경기준 충족
 - . 분쟁해결절차

2) 대상국: 캐나다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협상일정

- 2007.7.16-7.20: 제1차협상
- 2007.9.4-9.7: 제2차협상
- 2007.9.30-10.6: 제3차협상
- 2007.11.19-12.1: 제4차협상

○ 타결: 2007.12.1(총 4회 협상)

○ 발효: 2008년 비준절차를 거쳐 2009년 발효 추진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캐나다시장 진출 확대
- 캐나다 기업의 對페루 투자유치 확대
- 국내기업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발전 및 고용증대
- 경쟁국 칠레 견제(칠레의 對캐나다 FTA 先 체결)

○ 주요 쟁점사항

- 적극적인 교역자유화로 대부분 페루 제품의 획기적인 캐나다시장 진출 확대
- 캐나다 상품의 페루시장 진출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관세, 非관세장벽 철폐
- 페루 관세환급제도 및 자유무역지역 유지

○ 협정분야

- 시장접근(페루의 對캐나다 無관세 수출)
- 투자, 서비스교역, 경쟁촉진, 비즈니스맨 자유이동
- 노동 및 환경기준 충족을 위한 협력
- 분쟁해결 절차
- "Canadian Whisky", "Canadian Rye Whisky" 및 "Pisco, Perú" 상호 인증

3) 대상국: 중국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협상일정

- 2006.11.18 : APEC정상회담에서 페루가 중국에 FTA 체결 제의
- 2007.2월 : FTA 관련 양국 타당성조사 실시 합의(주로 관세인하, 무관세化에 따른 충격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 제안 등)
- 2007.8월 : 타당성조사
- 2007.9.7 : 시드니 APEC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의 FTA 개시 공식 선언
- 2008.1.20-1.23(리마) : 제1차 협상
- 2008.3.3-3.7(베이징) : 제2차 협상

○ 체결 : 2009.4.29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對중국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교역시스템 마련
- 다른 경쟁국과의 對中 수출격차 제거
- 중국의 對페루 투자유치 증대
- 중국과 페루 경제 상호보완성 활용

○ 주요 쟁점사항 등

- 상품, 서비스 교역 및 투자자유화
- 위생검역기준, 통관절차
- 긴급구제제도를 통한 국내시장보호
- 무관세품목에서 제외될 민감품목 지정
- 중국에서의 특정 산업분야가 시장경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덤핑관세 적용 절차

○ 협정분야

- 상품교역 관련 위생검역
- 서비스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
- 세이프가드
- 일반품목 관세인하일정
- 민감품목(특히 직물, 의류, 농산품, 백색가전제품, 금속공업제품, 타이어 등) 지정
- 반덤핑관세
- 원산지기준

- 무역관련 기술장벽
- 분쟁해결절차
- 통관절차
- 기타 제도 관련 사항

4) 대상국 : 싱가포르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협상일정
 - 2004.11월 양국 정상 및 각료회의 개최 후 FTA체결 의향 선언
 - 2006.8.14(싱가폴) : 제1차 협상
 - 2006.6.12-6.16(리마) : 제2차 협상
 - 2006.9.25-9.28(싱가폴) : 제3차 협상
 - 2007.7.27-7.29(케언즈) : 제4차 협상
- 타결 : 2007.8.29
- 발효 : 2008년 발효 추진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아시아지역과의 교역 확대의 계기 마련
 - 싱가포르로부터의 기술이전, 투자유치, 인적자원 교환
 - 싱가포르의 자본재 수입 증대
 - 他 아시아국과의 FTA 확대를 위한 지렛대로 활용
- 주요 쟁점사항 등
 - 페루의 對싱가폴 수입품 중 87%에 즉시 무관세화
 - 기타 품목은 10년의 기간을 두고 관세 인하
 - 양국 세관당국 협력을 통한 세관범죄 단속
 - 기술인증, 위생검역, 경쟁정책, 통관절차 관련 투명성 제고
 - 민감품목 관세인하 예외규정 적용
 - 원산지기준, 세이프가드조치, 反덤핑관세
 - 상호 투자촉진
 - 시장접근
 - 국내외 업체 기회균등
- 협정분야
 - 시장접근
 - 원산지기준
 - 국내산업 보호
 - 통관절차
 - 위생검역기준
 - 무역장애폭 해결

- 투자
- 경쟁정책
- 서비스교역
- 분쟁해결절차
- 정부조달
- 전자상거래
- 기타 제도 관련 사항

5) 대상국: 태국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협상일정

- 2002.10월 양국정상 FTA 체결 원칙적 합의
- 2003.10.17 : 협상계획 완성
- 2004.1.29-1.30(방콕) : 제1차 협상
- 2004.6.10-6.11(리마) : 제2차 협상
- 2004.8.16-8.19(방콕) : 제3차 협상
- 2004.10.12-10.15(리마) : 제4차 협상
- 2004.11.8-11.11(방콕) : 제5차 협상
- 2005.8.16-8.18(리마) : 제6차 협상
- 2005.11.1-11.4(방콕) : 제7차 협상

○ 타결

- 제7차 협상으로 상품교역 자유화촉진협정(일명 : Early Harvest) 체결
- 아직 완전한 FTA는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7차 협상결과만 시행하는 조기 적용 협정을 체결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후 발효 추진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2015년까지 양국간 자유무역지대 설치를 통해 관광, 보건, 운송, 건설, 엔지니어링 등 서비스분야 교역 투명성 강화
- 상호 투자 촉진 및 관광, 운송 분야 협력
- 아시아국가들을 위한 페루의 중남미 허브(hub)화
- 안데스공동체 및 APEC 관계 긴밀화
- 아시아진출 통로로서의 태국 이점 활용
- 태국의 對페루 투자 유치 확대
- 역동적인 시장 태국 진출 확대
- 未개척시장(동남아) 수출확대

○ 주요 쟁점사항 등

- 상품교역자유화촉진협정(일명 : Early Harvest) 실시
 - . 발효시 전체 품목의 50%는 무관세 수출
 - . 24%는 단계적 관세인하 추진(5년 기한)
- 수산물, 과일, 어분, 아연 등 수출 확대
 - . 민감품목(사향) : 농산물최저가격, 농산물세이프가드, 쌀, 설탕, 닭고기 등

- 협정분야
 - 원산지기준
 - 위생검역기준
 - 기술장벽 해소
 - 통관절차 간소화
 - 세이프가드조치 적용기준
 - 분쟁해결절차

6) 대상국 : EU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협상일정
 - 2007.9.17-9.21(보고타) : 제1차 협상
 - 2007.12.10-12.14(브뤼셀) : 제2차 협상
 - 2008.4.21-4.25(키토) : 제3차 협상 예정

- 협상경과
 - 동 협상은 안데스공동체(CAN) 범주내에서 다른 회원국과 함께 단체로 진행하고 있으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과의 이해 관계 불일치로 페루단독 협상 추진 가능성 있음.
 - 3차 협상 결과에 따라 양측 FTA 체결 가능 여부 관련 윤곽이 드러날 전망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FTA체결을 통한 GSP 혜택 확대 및 수혜기간 연장
 - 3개의 축을 지닌 포괄적 연합체 구상
 - . 정치대화체
 - . 협력
 - . 교역
 - CAN과 EU, CAN 내의 경제발전 불균형성을 협상에 반영 및 고려(특히 볼리비아 및 에콰도르)
 - 멕시코 및 EU의 對EU 협정 既체결 사실을 고려하여 마찬가지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익 극대화
- 주요 쟁점사항 등
 - 제2차 협상까지 전체 품목 중 82.2%(EU 수입 품목의 79.8%)에 관세인하 일정을 주로 논의
 - 세관협력
- 협정분야
 - 농산물 및 非농산물 시장접근(관세 및 비관세장벽)
 - 경제 非대칭성 특별 고려
 - 원산지기준
 - 세관절차 간소화 및 무역 촉진
 - 무역장벽 해소
 - 위생검역 조치
 - 국내산업 보호

- 서비스, 자본 이동(투자)
- 정부조달
- 지적소유권
- 경쟁
- 분쟁의 해결
- 지속가능 교역 및 발전

7) 대상국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협상일정
 - 2007.6.4-6.8(보고타) : 제1차 협상
 - 2007.8.27-8.31(리마) : 제2차 협상
 - 2007.10.29-11.2(제네바) : 제3차 협상
 - 2008.3월-4월 : 제4차 협상 개최 추진
- 타결: 2008년 완료 추진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시장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 멕시코, 칠레 대비 경쟁력 확보
- 주요 쟁점사항 등
 - 시장접근(공산품 및 농산물)
 - 기술장벽
 - 위생검역 절차
 - 원산지기준
 - 통관절차 간소화
 - 지적소유권
 - 국내산업 보호
 - 경쟁정책
 - 투자
 - 서비스교역
 - 정부조달
 - 분쟁해결절차
 - 상호협력

8) 대상국 : 안데스공동체(Comunidad Andina)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1969년 5월 카르타헤나협정(설립조약) 체결
- 1992년 10월 12일 GATT 사무국 통보
- 1993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자유무역지대 창설(페루 가입은 1997년)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회원국 경제사회적 통합을 통한 균형된 발전 촉진
 - 회원국민 삶의 질 개선
 - 지역통합 등
- 주요 쟁점사항 등
 - 1993년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가 자유무역지대 창설(대외 관세는 그대로 유지)
 - 2005년부터 회원국 간 자유무역 실시
 - 대외 공동관세는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가입, 볼리비아에는 특별 고려, 페루는 미가입
- 협정분야
 - 재화 및 서비스 자유교역
 - 원산지기준
 -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 덤핑, 반덤핑
 - 대외공동관세
 - 지적소유권
 - 관세동맹

9) 대상국 : 칠레 경제보완협정(Acu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ACE #38)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1997년 이후 다수 협상을 거쳐 2007년 말에 경제보완 협정 확대 완성
- 1998년 7월 이후 페루-칠레 교역자유화 시작
- 양국간 2007년 이후 해양 국경선 확정 관련 분쟁으로 FTA 체결은 무기한 연기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1998년 7월 1일 이후 점진적, 상호적 관세인하를 통해 자유무역지대 설립 추구
 - 품목별 3, 5, 6, 8, 10, 15, 18년 무관세일정 적용을 통한 교역자유화
 - 2005년 1월 상호 투자, 통관절차 간소화, 경쟁 촉진 등으로까지 협정의 범위 확대하기로 합의
- 주요 쟁점사항 등
 - 무역자유화 및 투자촉진에 중점
- 협정분야
 - 서비스교역 자유
 - 투자촉진
 - 위생검역조치

- 무역장애물 극복
- 통관절차
- 세이프가드
- 분쟁의 해결

10) 대상국 : 對멕시코 경제보완협정(Ac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ACE #8)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1997년 경제보완협정 체결
- 경제보완협정 확대 및 FTA 체결을 위한 8회의 협상을 1997년까지 개최
- 제9차 협상을 2008년 개최 할 예정
- 208년 내 멕시코와의 FTA 체결 추진
- 1987년 교역자유화 개시
- 2000년 8월 교역자유화 범위 확대
- 2002년 교역자유화 대상 품목 확대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점진적, 상호적 관세인하로 자유무역지대 설립 추구
- 주요 쟁점사항 등
 - 무역자유화 및 투자촉진에 중점
- 협정분야
 - 서비스교역 자유
 - 투자촉진
 - 위생검역조치
 - 무역장애물 극복
 - 통관절차
 - 세이프가드
 - 분쟁의 해결
 - 금융서비스

11) 대상국: 對쿠바 제한적 경제보완협정(Acuerdo de Alcance Parcial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ACE #50)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1994년 제1차 제한적 경제 보완협정 체결(#30) 발효
- 2001년 제2차 제한적 경제 보완협정 체결(#50) 발효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관세, 비관세 특혜조치 부여를 통해 상호 교역 증대
- 협정분야: 관세, 비관세 특혜조치

12) 대상국: 대남미공동시장경제 협정(Acuuerdo de Complementacion Economica; ACE #58)

□ 협상 개시일자 및 타결일자

- 2003년 체결

□ 추진현황

- 협상개시(또는 체결) 목적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의 교역 증대
- 협정분야 : 관세, 非관세 특혜조치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2007년 페루의 대외교역규모는 2006년 대비 18.5% 증가해 475억 5,5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83억 5,6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였다. 2008년 교역동향은 아래의 표와 같다.

페루의 대외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FOB)	12,716	17,273	23,799	28,084	31,235
수입(CIF)	10,129	12,542	15,301	20,429	29,883
무역수지	2,586	4,730	8,498	7,654	1,352
교역규모	22,846	39,100	39,100	48,514	61,119

주: 2009.9.30 기준

자료: 페루관세청

페루의 수출대상국은 2008년까지 166개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시장은 미국, 중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이며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5억 5,100만 달러로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증가에 따라 수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8년 12월까지의 수입은 298억 8,000만 달러이다. 품목별 2008년 수입증가율을 보면 자본재가 59.2%, 원부자재 등 중간재가 39.9%, 소비재가 42.1% 등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산업용 자본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내 산업이 활기를 띠어 제조업용 기계류, 산업체용 통신제품, PC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요 수입대상국은 미국과 중국으로서 이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이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에 이르며 특히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6	2007	2008	2009	
				I	II
1. 전통상품	18 461	21 464	23 796	3 916	4 636
수산물	1 335	1 460	1 791	410	477
농산물	574	460	685	61	89
광물	14 735	17 238	18 657	3 136	3 711
석유	1 818	2 306	2 663	309	359
2. 非전통상품	5 279	6 303	7 543	1 437	1 380
농목축제품	1 220	1 507	1 912	412	379
수산물	433	499	622	142	131
직물	1 473	1 736	2 018	353	357
원목, 종이 및 부산물	333	362	425	74	73
화학제품	602	805	1 041	208	186
非금속광물	135	165	176	32	33
금속제품	829	906	908	103	123
금속가공제품	164	217	324	90	78
기타	89	107	118	23	20
3. 기타	91	114	190	28	38
4. 總수출액	23 830	27 882	31 529	5 382	6 054
점유율(%)					
수산물	5.6	5.2	5.7	7.6	7.9
농산물	2.4	1.7	2.2	1.1	1.5
광물	61.8	61.8	59.2	58.3	61.3
석유 및 그 부산물	7.6	8.3	8.4	5.7	5.9
전통제품	77.4	77.0	75.5	72.7	76.6
非전통제품	22.2	22.6	23.9	26.7	22.8
기타	0.4	0.4	0.6	0.6	0.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페루중앙은행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소비재	2,852.8	18.6	3,191	16	4,921.0	16.5
비내구 소비재	1,667.0	10.9	1,438	7	2,634.5	8.8
내구소비재	1,185.8	7.7	1,753	9	2,286.5	7.7
중간재	8,091.5	52.7	10,416	53	14,990.7	50.2
연료, 윤활유	2,945.7	19.2	3,623	18	5,438.5	18.2
농업용 원자재	495.2	3.2	589	3	1,006.2	3.4
산업용 원자재	4,650.6	30.3	6,205	32	8,545.9	28.6
자본재	4,409.3	28.7	5,885	30	9,940.7	33.3
건축자재	534.9	3.5	590	3	1,469.8	4.9
농업용 자본재	33.5	0.2	51	0	100.1	0.3
산업용 자본재	2,912.9	19.0	3,988	20	6,124.7	20.5
수송기계	928.0	6.0	1,257	6	2,246.1	7.5
기타	7.2	0.0	105	1	30.9	0.1
합계	15,360.8	100.0	19,599	100.0	29,883.3	100.0

자료: 페루관세청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개요

우리나라의 對 페루 수출입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8년에는 수출 7억2,000만 달러, 수입 9억4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것은 국내업체의 페루에 대한 관심도가 커졌다는 것을 말해줌과 동시에 그만큼 페루 국가경제가 좋아져 수출입 모두 여건이 좋아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페루로부터 아연, 동, 수산물 등을 수입하며 그대신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등 일반 제조업 상품을 수출한다. 국제 원자재시장의 가격추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페루로부터의 수입액이 많이 좌우된다. 특히 페루가 APEC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의 교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2009년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다.

나. 한국과의 연도별 무역통계

총괄표

(단위: 백만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80	7	174.2	54	29.5	-47	-
1981	16	129	72	33.8	-56	19.1
1982	13	-18.6	83	15.5	-70	25
1983	5	-63.8	53	-36.3	-48	-31.4
1984	5	17.1	63	19.9	-58	20.8
1985	7	24.9	108	71.2	-101	74.13
1986	16	130.1	112	3.5	-96	-5.0
1987	24	55.7	91	-18.8	-67	-30.2
1988	10	-56.8	90	-0.6	-80	19.40
1989	3	-70	97	7.3	-94	17.5
1990	10	221	94	-3.2	-84	-10.6
1991	25	145.2	136	45.3	-112	33.3
1992	78	216.7	115	-15.8	-37	-67.0
1993	58	-26.2	86	-25.5	-28	-24.3
1994	132	128.5	89	3.5	43	-253.6
1995	194	47.6	130	47.4	64	48.8
1996	204	5.3	181	38.5	24	-62.5
1997	236	15.5	104	-42.4	132	450
1998	260	10.2	62	-40.5	198	50
1999	190	-27.1	78	26	112	-43.4
2000	213	12.5	143	83.1	70	-37.5
2001	188	-12	116	-18.6	71	1.43
2002	196	4.3	205	75.8	-9	-112.7
2003	204	4.4	194	-5	10	-211.1
2004	245	19.9	283	45.6	-38	-480
2005	282	15.2	249	-11.9	33	-186.8
2006	359	27.1	676	170.9	-317	-1060.6
2007	466	29.9	1,040	53.9	-574	81.1
2008	720	54.5	904	-13.1	-184	-67.9
2009(1-8)	284	-41.1	516	-21.8	-232	-

자료: 한국무역협회

다. 對 페루 품목별 수출입 동향(HSK 4단위)

1) 수출

(단위: US\$ 백만)

품목명	2008		2009(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720	54.5	284	-41
수송기계	241	85	105	-38
철강제품	82	85.9	30	-44.9
석유화학제품	112	48.3	27	-62.4
정밀화학제품	52	73.9	24	-46.6
산업용전자제품	42	-34.2	19	-42
가정용전자제품	17	-18.2	17	37
산업기계	41	56.6	16	-47.3
고무제품	20	35	10	-24.1
직물	21	14.5	8	-38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9	5.5	5	-16.4
기초산업기계	6	146.2	4	6.2
플라스틱제품	9	4.7	4	-31
섬유사	8	16	2	-66.9
섬유원료	3	-19.6	2	-9.6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3	12.2	2	-37
중전(heavy electric)	1	92.4	1	55.8
c) 기기				
전자부품	2	0.5	1	17.9
섬유제품	3	23.7	1	-45.7
정밀기계	1	-13	1	-24.5
식탁용구	1	111.4	1	-32.6
가구	1	41.8	0	-42.2
안경 및 콘택트렌즈	0	28.9	0	522.3
기타기계류	2	193.2	0	-72.6
인쇄물	0	-4.3	0	105.6
전선	0	739.4	0	80.7
비철금속제품	0	80.9	0	26.5
농산물	0	-10.2	0	319.5
신변잡화	0	-48.8	0	249.1
기타철강금속제품	0	52.6	0	-28
의료위생용품	0	17.5	0	-3.2
공예품	0	-22.1	0	-60.4
운동 및 취미오락기구	0	5.5	0	-55.7
수산물	0	389.5	0	590.9
기타잡제품	0	-4.6	0	36.1
문구	0	41.4	0	-51.6
임산물	0	-	0	-30.3
기타생활용품	0	119.9	0	-61.6
마찰 및 연마제품	0	-82.1	0	5,799.70
기타화학공업제품	0	77	0	-82.6
광물성연료	38	207,348.40	0	-79.5
악기	0	-33.5	0	93.4
요업제품	0	158.1	0	-87.4
비금속광물	0	16.9	0	-68
완구	0	-11.4	0	13.9
가발 및 가늌썸	0	-20	0	-25

자료: 한국무역협회

2) 수입

(단위: US\$ 백만)

구 분 품목명	2008		2009(1월~08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04	-13.1	516	-21.8
금속광물	790	-16.4	390	-33.1
광물성연료	25	51	54	117.7
수산물	46	23.8	30	-6
비철금속제품	3	-56.5	23	3,438.40
농산물	25	42.1	9	3.1
섬유제품	7	76.8	6	26.7
섬유사	2	-69.1	1	-44.6
정밀화학제품	1	8.4	1	40.4
직물	1	-44.4	1	870.7
임산물	0	260.1	0	-6.5
축산물	1	30.6	0	-53.1
산업기계	0	986.8	0	-
가죽 및 모피제품	0	-	0	-20.5
비료	0	28.4	0	72
완구	0	-59.8	0	-43.5
철강제품	2	206.1	0	-98.9
신변잡화	0	-38.9	0	107
산업용전자제품	0	202.3	0	-31.7
수송기계	0	785.4	0	-97
문구	0	-	0	-67.5
악기	0	-59.7	0	20.9
중전(heavy electric)	0	-	0	262.3
c) 기기				
기초산업기계	0	-34.5	0	12,418.20
기타잡제품	0	-	0	-
인쇄물	0	-6.3	0	187.1
기타화학공업제품	0	-	0	-
기타기계류	0	47.3	0	-
전자부품	0	-99.1	0	-69.8
가정용전자제품	0	2,123.80	0	282.9
석유화학제품	0	-	0	-
운동 및 취미오락기구	0	-	0	-
보석 및 귀금속제품	0	1.4	0	-98.2
요업제품	0	-62	0	-89
기계요소공구 및 금형	0	-	0	-
플라스틱제품	0	-85.4	0	-85.1
기타철강금속제품	0	-	0	-
고무제품	0	-	0	-

자료: 한국무역협회

3. 수입규제제도

페루는 후지모리 정부가 집권한 1990년 7월 이후 수입 금지 및 규제조치 전면 해제, 일부 품목을 제외한 수입허가서 발급절차 폐지 등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정책을 계속 펴오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06년 알란 가르시아 신 정부가 들어서도 유지하고 있다. 알란 가르시아 정부는 1980년대 후반 많은 수입 규제를 실시한 바 있으나 2006년 재집권한 후 그 좌파 성향에도 불구하고 개방 및 수입자유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입관세율을 3가지로 단순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여 2007년 10월 15일 9, 17, 20%로 대규모 개편하였다.

안데안 회원국 생산 제품 수입에 한해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도 수입규제 차원이 아닌 역내 생산품 수입에 대하여 특혜관세(무관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페루 상법상 규정된 형태의 회사는 별도의 무역업 허가 및 등록 없이 모든 전통산품 및 비전통산품 수출입을 행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도 제한이 없다. 단지,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있는데 이에 해당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 코카인 추출 및 제조에 직,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제품 및 화학 원료
- 중고 자동차 부품 및 부속품(안전유리 포함)
- 중고 의류, 중고 신발류, 중고 신변 세화
-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 식음료 제품(화장품 포함): 수입 시 위생청 사전 허가 필요
- 무선통신 장비: 수입 시 교통 통신부 사전 허가 필요
- 지도 및 관련 자료: 수입 시 외무부의 허가 필요
- 전쟁 물자가 아닌 민수용의 무기 및 탄약, 폭발물: 수입 시 내무부 허가 필요
- 해산물 및 어패류: 수입 시 수산물 검사소(CERPER)의 위생 적합 증명서 필요
- 식물, 동물을 원료로 한 완제품, 반제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 농약 및 유사 제품: 수입 시 신고 필요
- 수의학과 관련된 의약품: 수입 시 환경청에 신고 필요
- 종자, 동식물, 축산물: 수입 시 수출국 발행 검역 증명서 필요
- 희귀 야생 동식물 및 이를 이용한 제품: 수입 시 농업부 발행 허가서 필요
- 일반 의약품 및 특정 상표 의약품: 수입 시 보건부 등록 번호 및 신청 일자, 수입 물품 포장별 내용물 및 유효 기간, 수입업체 회사명 및 납세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세계 보건 기구 품질 보증 협정에 가입한 수출국 관련 기관의 의약품 증명서와 동 물품이 자유로운 상거래 대상 품목이라는 수출국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필요함.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으며 한국 제품에 대하여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지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다. 특히 LCD TV,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과 보안장비 등은 한국산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5. 관세제도

가. 개방정책 기초 유지

페루에는 1997년 4월 14일부터 종전의 15%, 20% 2단계 관세율 체제를 12%와 20% 관세율 체제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2001년도 들어 공업용 원·부자재류 1,936개 품목(HS 6-8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4%로 관세를 인하하였고, 2002년도 들어서는 일부 산업용 기계류 및 공업용 원자재 일부의 관세를 12%에서 7%로 인하 적용해 왔다.

이러한 관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다 2005년 10월 14일부터 일부 소비재, 중간재, 기계류를 포함한 총 458개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인하하였고 특별소비세(Sobretasa)도 폐지하였다. 특별소비세는 일부 품목에 대해 2002년부터 2005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던 것으로 WTO 협정 등의 준수를 위해 이번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면서 이 세금도 폐지하게 됐다.

2006년 중순 기준 품목 수(6998)를 기준으로 약 43% 정도가 12%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고, 40% 정도가 4% 관세를, 15%가 2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트랙터를 비롯한 각종 기계류, 이발기 등 112개 품목은 면제 대상이다.

동 조치에 포함된 458개 품목 중 196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를 일률적으로 4%로, 227개 품목에 대해서는 12%로 인하했으며, 이들 중 관세 외 특별 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특별소비세(5%)를 폐지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25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458개 품목을 종류별로 구분해 보면 소비재가 34개 품목, 원자재 및 중간재가 77개 품목, 자본재(기계, 수송장비 등) 및 건축자재가 347개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국내 생산 활동 장려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통한 공산품 가격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재 중에는 맥주, 포도주, 위스키 등 22개 품목이, 농업원자재 중에는 설탕과 맥아(맥주 양조용), 포도즙 등이 5%의 특별소비세가 폐지됐으며, 종이와 상자류(2겹)의 경우는 수입 관세가 12%에서 4%로 8%나 인하됐다.

농업분야에서는 천연칼슘 인산염과 관개용 밸브 등에 대한 수입관세가 4%로 인하되었으며 가축과 산업용 밸브, 브레이크 등 기계 부품, 섬유산업용 원자재인 폴리에스터 화이버, 나일론 인조사와 같은 품목의 수입관세 또한 4%로 조정됐다.

화강암과 같은 111개의 건축용 자재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됐으며 영구 불변하는 석고와 같은 제품을 제외한 대리석, 판석, 플라스틱 튜브 및 기타 건축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다. 또한 컴퓨터부품과 컴퓨터의 경우 수입관세가 7%에서 4%로 인하됐으며 원심 펌프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됐다. 특히 수송용 장비 부품 및 액세서리도 타이어를 포함해 27개 품목이나 관세 인하 또는 특별소비세가 폐지됐는데, 이번 조치로 이들 제품의 평균 관세율이 12%로 조정됐다.

나. 관세율 인하 지속

이후 페루 정부는 2007년 10월 15일 법령 158-2007-EF를 통해 1052개 품목(식품, 자본재, 육류, 유제품, 가전제품 등) 수입관세 인하조치를 발표하고 바로 시행하고 있는데 관세 인하 조치 주요 내용과 인하 후 페루 수입관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다.

관세인하조치 주요 내용

기존 관세율	변경 후 관세율	대상품목 수	주요 품목
20%	17%	1,052	육류 및 그 가공제품, 유제품, 채소류, 과일류, 커피, 직물, 의류, 신발, 냉장고, 냉동고, 재봉기
20%	0%	40	밀, 쌀, 유제품 중 일부, 설탕
20%	0%	1	가구 중 일부
12%	9%	2,678	살아 있는 동물, 화훼류, 노랑색 옥수수, 식용유, 생선통조림, 설탕, 카카오, 술, 담배, 광물, 화학제품, 튜브, 혁제품, 목재, 종이, 실, 금속 시트, 귀금속, 가정용 기구, 차량, 장난감
12%	0%	364	건축자재, 자본재, 운송기기, 산업용 원부자재, 연료, 의류산업 원부자재, 책
17%	5%	27	기타
25%	5%	62	

주: 상기표는 “2007년 10월 15일 법령 관세인하 조치”의 주요 내용임.

자료: 페루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관세인하 후의 페루 수입관세율 구조

관세율 (종가세+추가관세)	품목 수		2006년 수입액 (CIF US\$백만)	
	품목 수	비중(%)	금액	비중(%)
0	3,568	48.5	10,691	69.8
9	2,718	37.0	4,027	26.3
17	1,052	14.3	599	3.9
20	13	0.2	11	0.1
계	7,351	100.0	15,328	100.0
명목 평균관세율(%)				5.8
관세율 평균편차(%)				6.2
실행 평균관세율(%)				3

자료: 페루경제부,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이번 관세인하 조치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나오고 있는 바,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띠는 산업계·생산업체는 앞으로 페루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 제조업이 더욱 약해질 것이며 고용 촉진도 둔화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입 업계·상업계 및 페루 경제부는 소비자 효용이 증대되고 무엇보다도 산업 기반이 되는 기계 플랜트 및 원 부자재 수입이 더욱 촉진되고 그 비용도 줄어들어 오히려 페루의 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은 장기적으로 강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페루 정부는 2006년 말 대폭적인 관세 인하를 단행 후 이번의 추가 관세 인하 조치로 페루의 평균 관세율이 8%에서 5.8%로 내려감으로써 산업 생산성 호전, 국민 복지 향상, 산업 설비 투자 확대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수출 증가세 둔화에 대한 좋은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페루 정부의 예상대로 관세 인하가 그렇게 좋은 결과만을 가져올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주종품목인 가전제품, 기계류, 운송기기류 등 對 페루 수출에는 앞으로 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데안 회원국 간 무관세교역 및 5, 10, 15, 20% 4단계 대외 공동관세를 시행 중에 있으나 페루는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적용하되 역외국에 대해서는 안데안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 페루는 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과 양자 간 무역 협상을 통해 별도의 특별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페루는 양측 상품의 태평양 및 대서양 경제권 진출 교두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남미공동시장(MERCOSUR)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칠레 등의 국가들과도 양자 간 자유무역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상은 2007년 12월 14일 미 상원을 통과하여 2009년 중 발효 예정이다.

페루의 관세평가는 기본적으로 수출국에서 행해진 선적 전 검사서에 나타난 가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5,000달러 미만의 수입의 경우, 선적 전 검사가 면제되며 이 경우 상업 송장 등 수입서류와 관세청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관세평가제도를 토대로 적정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자동차 등 일부 고가제품 및 가격 파악이 용이한 제품의 경우, 각 모델별 관세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와 자체 보유 과세기준을 병행,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관세부과 기준가는 CIF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는 선임, 보험료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의 제비용 즉, 커미션, 수수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의 통관 시 전 품목에 대하여 19%의 부가 가치세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부과 기준액은 CIF 수입가격에 관세를 지불한 금액이 된다. 편의상 부가가치세 19%로 표현하고 있으나 엄밀하게 구분하면 부가가치세는 17%이며, 나머지 2%는 지방 정부 재정 목적의 지방세이다.

페루의 가공수출산업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원자재 수입 시 관세를 지불하고 완제품 수출 시 이를 환급 받는 관세환급절차가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2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데 우선 재수출을 전제로 1년 한도 내(동일 기간 1회 연장 가능) 일시 반입한 경우, 관세부과가 잠정 연기되며, 재수출 시 관세 납부의무가 말소된다. 동 제도는 보세가공을 위한 생산장비, 원료 등의 수입 시 적용되고 있다.

동 법령이 부여하는 기한 내 보세반입물품이 재수출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물품을 몰수하며 또한 보세물품의 사전신고 없이 제3자에 양도하였을 경우 관세의 3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한편, 수출을 전제로 수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세가 부과된 수입물품 구매자가 이를 이용, 물품을 생산 수출하였을 경우 관세환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현금이 아닌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환불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업자는 여타 물품의 수입 시 관세를 동 유가증권으로 지불할 수 있다.

- 관세 환급 제출서류
 - 관세환급요청서, 관세환급대상 원자재 수입신고서 사본, 수출신고서 사본
 - 기 수입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수출업체의 인보이스 사본
 - 관세 환급을 수출 다음날 지급받기를 원할 경우 보증서 첨부 등

안데안 회원국인 페루는 1992년 동 기구의 일시 탈퇴를 선언한 이후 1997년 4월 11일부로 전격 탈퇴를 선언하였으나 공식적이 탈퇴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페루 정부의 안데안 그룹 탈퇴선언 이전까지 이루어진 페루의 회원국 복귀 노력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차적인 복귀노력으로서 페루는 개별회원국과 부분적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동 협정 내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을 시행하고 있다.

- 볼리비아: 전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에콰도르: 약 5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교역
- 베네수엘라 및 콜롬비아: 약 800개 품목에 대해 무관세 교역

2차적으로 페루는 여타 회원국 간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안데안 자유무역지대 편입을 위해 1994년 안데안 대외공동관세 5% 품목군에 대해 회원국상품에 시장을 개방한 바 있으며, 1995년 들어 10% 품목군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지대에 편입하였다.

한편, 중남미 11개국이 참가한 중남미 통합 연합(LAIA) 회원국에 대해 개별 회원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존 관세율에서 20~100%포인트 인하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 수입물품의 수량, 품질, 형태 및 용도 등에 대해 허위신고 시: 0.1UIT
- 통관자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모든 정보를 신고치 않았거나, FOB가격을 부정확하게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가액간 관세차액의 5배
-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신고액과 실제가액간 관세차액의 2배

페루 정부의 자동차류 수입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 배경은 다음과 같다. 1996년, 1998년 2차에 걸쳐 세수 증대를 위해 수입 자동차류에 대한 특소세를 큰 폭으로 인상해 왔으나 세수 증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치고, 1998년도 이후 지속되어 온 경기침체와 맞물려 오히려 자동차 수입이 래퍼곡선(Laffer Curve)을 그리며 계속 감소세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당초 인상목적과는 달리 세수 감소현상이 심화되고, 중고차 수입의 급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상을 가중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의 실업자만 증가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자 그 동안 묵살해온 자동차 수입업체들의 건의를 수용하여 정책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페루는 CIF 가격에 관세를 부과한 가격을 기준으로 특별 소비세를 매겨왔는데 이번 조치로 자동차 수입가격은 약 15.38% 정도의 인하효과가 기대되며, 일반소비자가격도 최소 6~8% 정도의 인하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수입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2000년 9월부터 중고자동차의 경우는 생산된 지 5년 이하의 차량에 한하여 제한 조치를 취하였다. 예컨대 2009년도의 경우 2004년도 연식부터 페루에 반입이 가능하다.

페루 정부는 국내 경기진작 및 중소기업의 운영자금 부담완화 지원 차원에서 2008년 들어 2차에 걸쳐 HS 6단위 기준 1,390개 품목의 공업용 원자재류에 대하여 종전의 12% 관세율을 4%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로 인해 해당 업계는 연간 약 4,000만 달러 상당의 간접 자금지원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페루는 2004년 초부터 안데안 공동관세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으며, 2006년에는 베네수엘라가 탈퇴하는 등 안데안 공동체 자체가 점차 세력을 잃어가고 있다.

□ 세관의 보충적 제도

- 임시 반입 제도(DS No. 129-2004-EF 세관법 70-75항): “능동적 완성(perfeccionamiento to activo)”의 경우 수입 상품 관세 부과를 보류하는 제도
 - “능동적 완성”의 종류
 - 원자재, 재료, 비완성품의 물리적, 화학적 변형
 - 생산, 변형되는 모든 물건
 - 둘 이상의 물건의 조립
 - 수출품의 포장, 포장 재료
 - 능동적 완성의 성립요건
 - 상기 종류의 활동을 위해 수입하는 물건
 - 신청하는 회사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기한은 24개월이며 보류되는 세금에 대한 보증 필요
- 관세환급(Decreto Supremo 104-95-EF): 수출업자는 수출품 생산을 위해 소비했거나 수출품에 포함된 물건 수입을 위해 납부한 관세 환급 수혜 가능
 - FOB 수출액의 5%부터 품목의 1년 동안의 업체별 수출액 미화 2,000만 달러까지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급액은 경제부 평가에 의해 조정
 - 수출품 생산을 위해 소비되거나, 수출품에 추가된 물건을 제3자를 통해 수입하거나 수입된 물건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수출업자는 수혜 가능
 - 경제부는 매년 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수출품의 리스트를 발표(HS Code로 표시)
- 수입품 면제제도(DS No. 12-2004-EF 78-80항): 수입 후 변형을 거쳐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수입 시 부과한 세금 면제(혜택을 받는 기한은 수입으로부터 1년)
 - www.aduanet.gob.pe/aduanas/informag/leygen.htm: (세관법 Decreto Legislativo No. 809)
 - www.audanet.gob.pe/aduanas/informag/regley.htm: (세관법 Decreto Supremo No. 121-96-EF)

CIF가격을 A, 관세율 9%인 제품을 가정 시

관세(B)	9%	$B = A \times 9\%$
부가가치세(C)(IGV)	19%	$C = (A+B) \times 19\%$
세관서비스료(D)	US\$22	$D = \text{US\$22정액임}$
세관수수료(E)	3.5%	$E = (A+B+C+D) \times 3.5\%$ (품목에 따라 다소 차이 있음)
총 세금		$B+C+D+E$

*** (예) CIF가격이 US\$1,000이고 관세가 9%일 경우

- CIF가격 = A
- 관세(B): $US\$1,000 \times 0.09 = US\$ 90$
- 부가가치세(C) (IGV, 19%) = $(1,000+90) \times 0.19 = US\$ 207.1$
- 세관서비스료(D) = US\$22 (건별 정액제임)
- 세관수수료(E) = $(1,000+90+207.1+22) \times 0.035 = US\$ 46.2$

=====

= 세금 총액(A+B+C+D+E) = US\$ 365.3

6. 주요인증제도

2004년 2월,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관인 INDECOPI에 속한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은 ISO 9001 인증서 2000년 버전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까야오(Callao)항과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 공항 또한 동 인증서에서 준하는 수출입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가 품질 기준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내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수입품 품질의 고저를 결정한다.

7. 지적재산권

페루는 그 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할만한 여력이나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지적재산권 보호를 등한시해 왔으나, 지적재산권 협약에 가입하면서 해적물 및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추세이다.

1)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 담당기관

□ 부서별 업무

페루 지적재산권 보호 업무 담당 기관은 “지적재산권 및 경쟁력, 소비자 보호청((INDECO-PI)”이며 3개의 부서가 아래와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 Office of Distinctive Symbols: 상표, 상호, 의장권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e of Inventions and New Technologies: 발명품, 신기술의 등록 및 보호업무 수행
- Office of Copyright: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수행

상기 부서 중 지적재산권 보호는 Office of Copyright가 수행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INDECOPI 내의 Court for the Protection of Free Competi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에서 우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지방법원의 최종 판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 INDECOPI 연락처

- 주소: Calle de la Prosa 138, San Borja, Lima, Peru
- 전화: (51-1) 224-7800 / 팩스: (51-1) 224-0348

- e-메일: fزابالا@indecopi.gob.pe
- Home Page: www.indecopi.gob.pe
- 근무시간: 월~금, 09:00~13:00 / 토, 15:00~17:00

한편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생산된 후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페루로 수입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되며 특히 직물의 경우 그러한 사례가 많다. 주로 칠레의 Iquique 자유무역지역을 통하거나 페루 내의 Tacna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수입하는 상품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2) 불법 복제 문제 심각한 수준

현재 페루에 수입되는 공 CD는 연간 3000만개 수준으로, 페루 인구가 3000만 명에도 못 미친다는 점과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 그 수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편이다. 주로 대만(68%), 한국(23%), 중국(7.9%) 등에서 수입되는 이런 공CD들은 바로 불법복제와 직결되고 있다.

원판과 불법복제판 가격비교

	원 판	불법복제판
Compact Disc	\$20.00	\$1.00
DVD	\$25.00	\$1.00

페루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복제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페루로 수입되는 모든 공 CD에 대한 부가세 선급제를 시행시키기 시작했다. 즉, 관세청에서는 페루로 수입되는 모든 공CD에 대해서 부가세 10센트를 선급으로 징수하고 DVD에 대해서는 20센트를 선급받는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외에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민간기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 밀수근절위원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Raul Saldias씨는 이미 80% 이상의 점포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법으로 금지한다고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하며 정부에서 물리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페루의 불법복제 시장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만약 정부에서 불법복제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페루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계층의 문화를 죽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월 300달러 전후를 받는 서민들의 경우 CD 원판을 구매할 능력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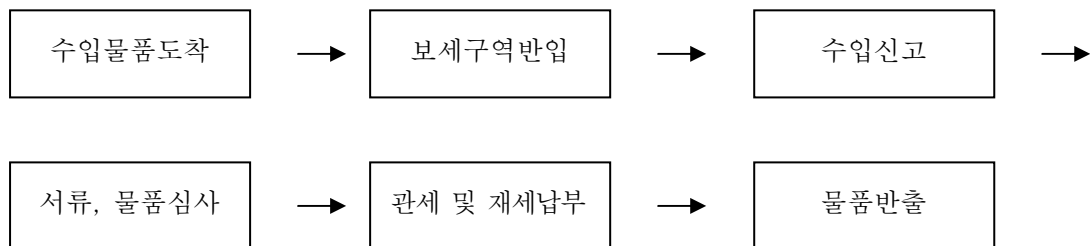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인내에도 한계가 오고 있는 것 같다. 불법 CD뿐만 아니라 가짜 의류, 장난감에서부터 심지어는 사람들이 직접 섭취하는 담배, 음료수와 생수도 가짜 제품이 판을 치기 때문이다. 페루 경제가 이와 같이 불법복제, 밀수 등으로 신음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언제쯤 강력히 제재를 하고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 통관/운송

가. 통관

수입 신고서, 상업송장, 선적증명서, 선적 전 검사증명서, 보험증권, 원산지 증명서(안데안 회원국 및 LAIA 회원국으로부터 특혜관세 수입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제서류 기재 사항에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류), 세금납부 영수증, 품질증명서(의약품 등의 경우), 검역증명서(동식물의 경우) 등이 통관 시 필요한 서류이다.

위와 같은 구비서류와 함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세관창구에서 수입신고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한 후, 접수서류가 GED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류접수증명(BED: Boleta de Entrega de Documentos)에 접수인을 날인하여 신청자에 교부한다. 세관에서는 접수서류를 신청인별로 구분하여 신청인이 전문 통관사가 아닌 경우 1차 서류 검사반의 점검을 통해 전산 처리반에 전달한다. 전산 처리반에서는 동 자료를 전산입력, 우선 서류내용의 하자 여부를 점검하며 하자 발견 시 신청인에 반송되어 익일 재접수시키도록 조치한다. 적격 서류만을 대상으로 처리순서인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동시에 부과대상 관세산정,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표본 추출한 후, 각 서류를 중앙은행, 관세 수납처 등 관련기관에 이송한다. 수입신고서의 전산처리 이후, 서류접수 24시간 이내에 세금고지서를 발행하며, 검사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동 사실을 세금고지서에 표기하여 통보한다.



○ 참고 1: 수입 검사 제외 물품

- 기부 및 원호물품, 외교관의 최초 이사 물품, 관세 구역에 일시 예치 품목, 재수출을 위한 일시 반입 원자재

○ 참고 2: 수입검사 표본추출 대상

- CALLAO 세관: 1일 접수된 선적 전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5%, 검사 증명서 미 첨부 신고서 및 통관사를 통하지 않은 신고서의 30%

○ 지방 세관

- 1일 접수건이 5건 이상일 경우 접수건의 50%(최소 5건), 접수 건수가 5건 미만일 경우 100%

○ TACNA 세관

- 검사증명서 첨부 수입신고서의 30%, 미 첨부 신고서의 100% 납세고지서를 전산 출력하고 이에 검사 대상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인에 발송, 신청인은 3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세관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수입 검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청인은 검사관과 함께 세관 물품 창고에서 실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관은 우선 서류의 하자 여부 및 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선적 전 검사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동 검사 확인서와 실제 물품을 비교하여 관세 산정 적합 여부를 검사하며, 검사 확인서가 없는 경우 세관별 세관 자체 보유 관세 평가 가격과 물품을 비교 검사한다.

수입검사가 종료되면 검사관은 모든 수입서류에 검사확인 날인을 하여 수입물품 출고처로 이송하며, 수입검사 제외물품은 동 과정을 생략하고 출고처로 이송한다. 이후 통관신청자는 관세납부 필증을 지참, 출고처에서 물품을 인수할 수 있다.

물품도착 통지를 받고, 수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세금고지서를 수행하는 데 24시간이 소요되고, 관련 관세는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입검사 대상품목은 1~2일 간의 검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며, 수속 완료 후 물품 반출에 1~2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결국 세관통관에 총 1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다. 세관 업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12:30, 14:00~16:00 이다. 수입통관 시 통관사 및 하주, 수취인 등이 통관권자가 될 수 있다.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서 제출시 수입 물품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기재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서와 기타 서류 혹은 신고서와 실제품에 차이가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벌금 부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수량 및 품질, 상품종류에 차이가 있을 경우
 - 0.1 UIT(Unidad Impositiva Tributaria): 관세부과 단위로서 '97년 기준 1UIT=S/3,000 (US\$ 862 상당)로 책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 전체 물량 및 가격에 대한 불성실 신고로 수입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 탈세 기도 금액의 5배 벌금이 부과된다.
- 원산지를 안데안 국가 등 관세면제 지역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관세 포탈(逋脫)을 기도한 경우
 - 정상 관세액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2004년 8월 1일부터 선적 전 수출 검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페루 세관의 검사가 강화되어 통관이 지연되며 통관을 위해서는 간혹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 컨테이너 비용
 - http://www.enapu.com.pe/spn/tarifario_DESCARGA.asp(항만청제공, 스페인어)
- 운송소요기간
 - 한국에서 페루까지 약 25~30일 소요

나. 운송

페루의 국제공항으로서는 리마 소재의 Jorge Chavez 공항과, 칠레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하고있는 Tacna 공항, 그리고 관광지이면서 볼리비아 방향 항공편의 국제공항으로 사용되는 Cusco 공항이 있다. 이 중 Tacna 공항은 인근국의 항공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최근 Jorge Chavez 국제공항 확장을 위해 국제 컨소시엄과의 양허 협상에서 2001년도부터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과 활주로를 2개선으로 확장하는 것을 골자로 30년간의 양허(Concession) 협정을 체결하고 내부 보수공사 등을 완성하여 남미의 주요 공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페루의 국제항구로는 리마 시와 광역시 형태를 형성하고 있고 리마 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Callao 항구가 가장 큰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구이다. Callao항은 전통적으로 태평양 연안의 남미 항구인 칠레의 Valparaiso항과 항상 물동량 면에서 경쟁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심지어 양 항구의 물동량 유치 경쟁 격화로 19세기 칠레-페루 태평양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 남쪽으로는 자유무역지대와 연계한 Matarani, Ilo, Tacna 항과 북쪽으로는 Paita, Chimbote 항을 국제항구로 손꼽을 수 있다.

(참고: 페루 항만청 사이트 <http://www.enapu.com.pe>)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 환경

1)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환경

- 1990년 후지모리 대통령 집권 이후 줄곧 경제자유화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대외 시장개방, 국영기업 민영화 등
- 중남미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투자환경 국가 중의 하나로 변모했다.
 - 법적, 제도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문호개방

2) 외국인 투자가 국가경제의 중요한 축

- 2008년 전체 GDP 중 외국인투자 비중이 20%에 달한다.
- 건설, 제조업, 서비스산업 분야 소비 및 수입이 진작되고, 고용이 증대되었다.
 - 외국인투자 증대는 곧 자본재 수입 증가와 직결

3) 인프라분야 투자매력도 상승

- 중남미에서 네 번째로 인프라 개발분야 투자환경이 좋은 국가로 부상하였다.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페루는 경제안정세 지속, 국가정보화 계속, 금융시장 확대의 결과로 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매력도가 올라간 것으로 분석했다.
- 세계경제포럼 중남미 민간인프라 투자지표에서 페루보다 앞선 국가는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3개국으로 이들의 점수가 5.4, 4.4, 4.3 이고 4위인 페루의 점수는 4.2 이다. 정부의 투자유치 적극성만 볼 때에 페루는 중남미에서 단연 1위를 기록했다.

- 민간분야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져 투자환경이 개선되었으며 민간투자가 활발해진 데에는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 토지 구매 규제 완화, 경제정책 일관성이 큰 힘을 발휘했다.

4)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으로 프로젝트 일관성 유지

- 민간기업의 인프라분야 투자 안정성을 볼 때에도 중남미에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일단 시작한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해준 요인이 되었다.
- 공공부채 및 재정적자가 총 GDP 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1.7% 및 0.3%에 머무는 등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도 인프라분야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주는 밑거름이 되었다.
- 인플레이션 극복, 환율 안정, 건전한 은행시스템 육성도 페루 거시경제의 호전을 뒷받침했다.
- 증권 및 채권 시장 내용 다양화로 투자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5) 인프라 분야 투자 잠재성 막대

- 페루는 아직 중남미에서 볼리비아 다음으로 인프라 개발 격차가 큰 국가이긴 하나 이러한 격차가 현존한다는 것은 개발 여지가 크고 그만큼 투자 잠재성이 막대함을 의미한다.
- 도로, 항만, 공항, 에너지 분야에 많은 민간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6)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외국인 투자 환영

- 유엔 중남미 경제 위원회(Cepal)에 의하면 페루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외국인 투자가 2008년 2/4분기까지 4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외국인투자 활성화에는 국민경제 건전 운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세 및 수출 확대가 밑거름이 되었으며 단순 자원개발에서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의 투자를 적극 환영한다.
- 2004 년 천연가스 본격 생산으로 주종 에너지를 석유에서 가스로 변경해 가고 있는 바, 각종 산업시설 및 발전소 주원료로 가스 사용을 장려하며 택시, 시내버스를 포함한 교통 수단 천연가스 차량 사용, 도시 가정용 천연가스 공급, LNG 플랜트 건설, 석유(가스)화학산업 육성 추진 중에 있다.
- “고부가가치 산업분야 직접투자는 언제든지 환영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에너지광업부장관 설명에서도 나타나듯이 對 페루 프로젝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06 년 출범한 Alan Garcia 정부는 고용창출과 지방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공단 조성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7) 외환보유고 및 공공재정 호전

- 2008 년 외환보유고가 313.03 억 달러 에 달해 대외신용도가 상승했다.

- 성공적인 거시경제 운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고 정부재정 적자폭도 축소되어 정부재정 균형 달성하였다.
- 인플레이션을 2008년 말 기준 6.7%를 기록하였으며 2009년에는 목표치인 3% 내에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페루의 경제안정은 국제시장 분석가들과 자본시장에서도 인정하였다.
- 페루 외채 적용 할인을 및 이자율이 미국 국채 대비 1.2% 수준
- 국가위험도 하락(연평균 5%, 500 점 이상)으로 프로젝트용 차관조달 비용도 감소했다.
- Standard & Poor's 가 페루 장기외화채권신용등급을 'BB+'에서 'BBB-'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2008 년 4 월 Fitch Ratings 社의 투자등급 부여 이래 또 한 차례 페루 경제 대외신인도 상승
- 또한 장기외화채권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상향 조정. S&P 의 페루에 대한 대외 신용도평가는 페루 경제의 안정적인 상황을 전망함.
- 단기외화채권신용등급 'B' ->'A-3', 단기외화채권신용등급 'A-3' ->'A-2'로 상향조정 됨. 페루는 브라질, 칠레, 멕시코와 함께 중남미에서 4 번째로 S&P 社의 투자등급 획득.

평가사별 장기채권 등급변경

		Moody's	S&P, Fitch
투자등급	부채위험	Aaa	AAA
		Aa1:Aa2:Aa3	AA+:AA:AA-
		A1:A2:A3	A+:A:A-
		Baa1:Baa2:Baa3	BBB+:BBB:BBB-
회수등급		Ba1:Ba2:Ba3	BB+:BB:BB-

자료: Moody's, S&P, Fitch

8) 외국인 투자 증가

- 외국인 투자 금액 페루, 2008년 2/4분기까지 43억 5,000만 달러에 도달했다.
- 페루에 투자하는 선진국기업 다수는 모국 본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현지 법인 또는 지사를 통해 페루로 투자한 것이다.
- 투자업체의 본사 국적별로 볼 때 스페인, 영국, 멕시코, 칠레, 스위스가 對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71.15%를 차지했으며 미국 및 스페인이 전체 對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50.47%를 차지했다.
- 이동 통신 산업 분야에 가장 활발한 투자(전체의 31.2%)가 있었다.
- 외국인 직접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이동 통신, 광업, 제조업, 금융업 인 것으로 나타났다.
- 1990년대 전화통신 분야가 외국인투자를 주도했던 것으로부터 크게 변화했다.
- 2008년 對페루 투자 외국업체로 America Movil(멕시코), Racetrack Peru(미국), Phelps Dodge(미국), Votorantim Metais(브라질), Sumitomo Metal Mining(일본), Bank of Nova Scotia(캐나다), CFG Peru Investments(싱가포르), Vale(브라질), Gerdau(브라질), Pluspetrol Resources (영국)가 가장 주요한 업체이다.
- 2009년에도 외국인투자가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활발한 對 페루 외국인투자 추세는 2009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유 및 천연가스 개발, 전기에너지, 상수도도 외국인투자 신 유망 분야이다.

나. 외국인 투자 유치법 골격

페루의 투자관련 법적 기본 골격은 크게 내국인을 위한 민간기업 투자진흥법(Law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Investment)과 외국기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진흥법(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으로 되어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Ley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 외국인 투자진흥법은 경제 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인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의 동등대우, 외국인 재산권 보호, 투자이윤 및 원금의 자유로운 송금 등을 보장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2) 민간투자진흥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on Privada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 민간기업 투자진흥법은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참여 및 규제 최소화,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세제와 간소화된 행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다. 개방적인 투자환경

- 페루 투자환경의 장점으로는 개방적인 법적, 제도적 환경을 들 수 있으며 통신, 전력, 도로, 광업, 석유 등 국가 기간산업을 포함한 전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 투자이윤 및 자본금 등의 송금에 있어서 정부규제가 없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구리, 철, 아연, 금, 은, 원연, 어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투자진출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
- 또한 생산제품의 수출에 있어서 안데안 회원국에 대해서는 대부분 품목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고, 페루-美 FTA 로 관세상 특혜를 받을 수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이 유망하다는 점도 투자의 장점으로 손꼽을 수 있다.
- 페루 투자법규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이 기본이며, 투자업종도 언론분야 외에는 제한이 없는 완전 개방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그러나 외국기업의 페루 내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나 페루는 내외국인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 하에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직도 관료주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시간적, 금전적 소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 일부 소수 분야만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외국인투자에 개방

- 페루는 인구 2,800 만 명 정도로 비교적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부분 상권이 수도인 리마(인구: 약 850 만 추정)에 집중되어 있고, 극심한 빈부격차로 다수 국민이 빈곤층으로 분류되어 高價商品 수요는 그다지 크지 않다.

- 외국인 투자 유치는 후지모리 前 대통령 정부 1 기인 1992 년부터 본격 추진해 왔다.
- 시대별 對 페루 외국인투자 집중 부문은 다음과 같다.
 - 1987~1992: 광업
 - 1993~2005: 통신, 제조업, 금융업, 광업, 에너지, 무역업
- 2008 년까지의 투자 유치액을 살펴 보면 가장 많은 분야가 통신분야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제조산업, 금융업 또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 중 2001 년 이후 급격히 투자 증가 현상을 보이는 분야는 금융업, 광업과 운송업 분야인데 특히 운송업의 경우 Protransporte 프로젝트를 통하여 리마 시내 도로망 정비와 천연가스 버스 수입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 투자도 급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외 농산물 가공, 관광, 농업(원면, 커피 및 카카오 생산) 등의 분야에도 투자 유치가 유망하다. 그러나 페루는 노동여건이 열악하고, 정부관료의 비능률성과 부패가 하위직으로 갈수록 심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 페루는 일부 산업부문을 예외로 원칙적으로 외국인 투자는 개방되어 있다. 그 예로 '91. 11.13 일부 공포된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기본법" 이라고도 불리는 법률 D.L.757 호를 들 수 있는데 내외국을 불문하고 자연인 및 법인의 투자를 보장하고 있다. (동법 제 1 조)
- 그러나 투자분야에 따라서 일부 제한하거나 금지하기도 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방사성 물질, 마약류, 인체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 국민보건위생에 이해를 야기 하는 산업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정하는 법에 의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용역 및 경비 회사 설립 시 내무부 관련 법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관광 숙박업, 유흥업소, 도박 관련 회사설립 시 관광자원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 운송업 관련 회사설립 시 교통통신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금지 시키는 경우는 국경 50km 이내의 광산, 토지, 삼림 및 물, 석유, 에너지원 취득이 금지되어 있다.

다. 투자허가

1) 외국인 투자유치 기본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Ley de Promoción de la Inversión Extranjera: Decreto Legislativo 662, 1991. 8. 29)

□ 민간투자진흥법

(Ley Marco para el Crecimiento de la Inversión Privada: Decreto Legislativo 757, 1991. 11. 8)

□ 민간투자보장제도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los Regimenes de Garantia a la Inversión Privada: Decreto Supremo No 162-92-EF, 1992. 10. 9)

- 상법법령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内外國人 투자 동등 대우
 - 외국인 재산권 보장
 - 투자 자본 원리금의 자유로운 반출입 보장
 - 이외 제 3 국 수출기업 유치를 위해 제정된 산업 및 관광자유지역, 상업화 특구, 지역 개발특구 설치법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 투자할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15 년간 페루의 각종 세금 면제 혜택 부여 제도가 있으며 근거법은 Decreto Legislativo No. 842('96.8.30) / 865('96.10.27)에 해당한다.
- 외국인 투자업체가 페루외국인투자위원회(CONITE)와 협정을 체결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10 년간 조세안정화법에 의거, 소득세율이 인상되더라도 협정체결 시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율적용 혜택을 받게 된다.
 - 투자자본이 200 만 달러 이상일 경우
 - 투자자본이 5 만 달러 이상으로 20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가져오거나, 협정체결 후 2 년 동안 최소한 200 만 달러 이상 수출을 할 경우
 - 페루는 현재 세계은행의 多者間 투자보장기구인 MIGA 에 가입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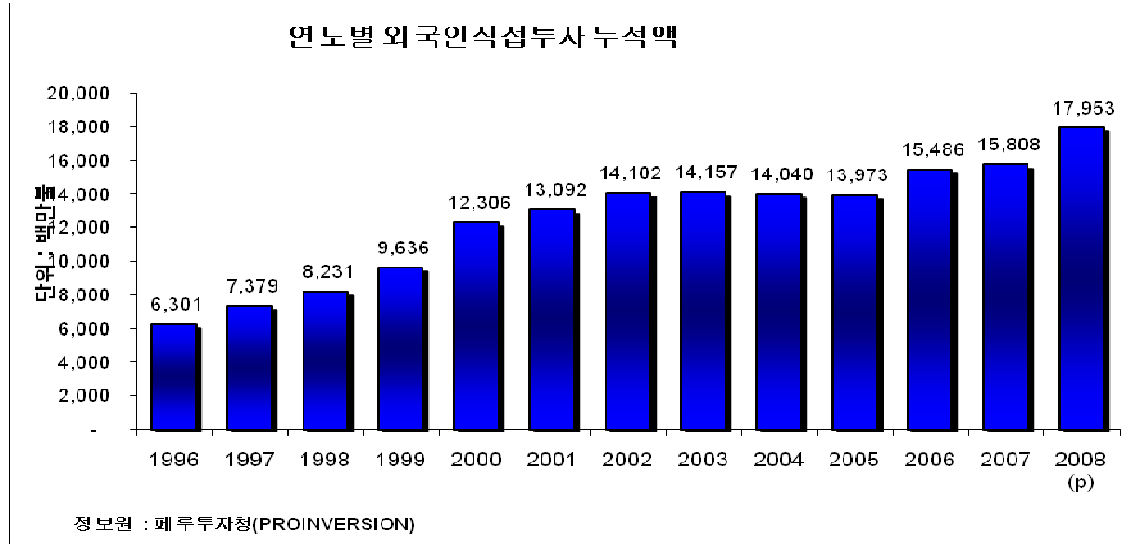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국가경제 호황 기초가 그대로 외국인 투자에 반영
 - 페루경제 호황 기초가 외국인 투자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 2008년 대(對) 페루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203억 500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 선진국이 투자 주도
 - 투자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과 미국이 2007년 말까지 페루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로서 전체 투자 누적액의 45.27%를 차지하였고, 이 두 나라를 포함한 10개 나라가 전체 대(對) 페루 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이르렀다.
 - 특기할 만한 사실은 페루에 투자하는 선진국 기업 중 많은 기업은 모국 본사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현지법인 또는 지사를 통해 페루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투자업체 본사 국적별로 투자국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스페인, 미국, 남아공, 칠레, 스위스 등이 전체 대(對) 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66.03%를 차지하였으며 이 가운데 스페인 및 미국이 전체 대(對) 페루 외국인 투자액의 45.27%를 차지하였다.
- 통신 분야 투자가 가장 활발
 - 가장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이동통신, 광업, 제조업, 금융업, 전기 에너지 등으로 1990년대 일반 전화 분야가 외국인 투자를 주도했던 것으로부터 크게 변화 하였다.
 - 2007년 주요 투자 업체로는 America Movil(멕시코), Racetrack Peru(미국), Phelps Dodge (미국), Votorantim Metais(브라질), Sumitomo Metal Mining(일본), Bank of Nova Scotia(캐나다), CFG Peru Investments(싱가포르), Gerdau(브라질), Pluspetrol Resources(영국) 등이 있다.
- 2008 년에도 외국인 투자 활발
 - 활발한 對 페루 외국인투자 추세는 '08년에도 경제성장세 지속과 함께 계속 되었다.
 - 특히 원유개발, 가스개발, 전기에너지, 상수도 등 분야도 새로운 외국인 투자 유망

분야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많은 선진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페루의 연도별 외국인투자 누적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산업분야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백만달러, %)

분야	2008년 투자액	점유율
농업	44.4	0.25%
상업	720.4	4.01%
통신	3,756.4	20.92%
건설	161.4	0.90%
에너지	2,363.9	13.17%
금융	2,721.3	15.16%
산업	2,828.2	15.75%
광업	3,520.5	19.61%
수산업	163.0	0.91%
석유개발	355.9	1.98%
서비스	442.0	2.46%
임업	1.2	0.01%
운송	285.5	1.59%
관광업	63.5	0.35%
주택건설	525.8	2.93%
합계	17,953.4	100%

주: 2009.9.30 기준 페루투자청 업데이팅 자료

자료: ProInversion

국가별 대(對) 페루 외국인직접투자액 추이

(단위: 백만달러)

국가	2004	2005	2006	2007	2008	Total
스페인	-400.35	-314.15	-8.62	51.72	415.39	4,144.58
영국	-322.90	1.22	563.11	139.87	519.34	3,477.54
미국	165.03	262.42	364.96	5.21	0.79	2,762.70
네덜란드	309.72	-109.49	34.32	-0.69	-2.01	1,402.37
칠레	-140.19	-84.01	72.06	6.83	616.31	1,096.68
파나마	1.13	-259.00	28.58	47.84	34.75	903.22
콜롬비아	0.05	4.63	42.43	64.59	0.05	731.02
멕시코	-	415.37	2.00	8.50	0.72	448.39
싱가포르	20.00	-	103.50	-	275.93	399.43
브라질	210.80	1.21	74.30	4.50	4.75	342.17
캐나다	-17.96	0.39	112.27	-	48.68	323.27
스위스	4.70	7.58	0.42	3.27	0.79	275.01
프랑스	0.00	0.02	-	-	148.00	200.99
이탈리아	102.49	-118.10	64.71	-20.82	-	195.39
우루과이	15.23	0.82	4.68	7.01	2.51	180.27
일본	-	0.84	10.23	-	51.60	168.39
독일	1.23	0.67	1.64	1.49	54.87	162.03
바하마	-	118.10	43.00	0.65	-43.00	144.64
중국	-	-	-	-	-	122.16
벨기에	0.17	-	-	-30.00	-	79.28
에콰도르	8.77	4.25	-	2.81	11.54	67.82
스웨덴	0.01	-1.47	-	-	10.20	64.18
룩셈부르크	-13.71	-0.69	-1.51	28.48	-1.39	49.13
한국	5.54	-	-	-	-4.14	40.68
포르투갈	-	-	-	-	-	37.29
아르헨티나	-	-	1.22	-	-	29.77
리히텐슈타인	-	-	-1.23	0.18	-	19.33
베네수엘라	-	-	-	-	-	7.96
오스트레일리아	0.00	-	-	-	-	6.92
뉴질랜드	-	-	-	-	-	6.85
오스트리아	-	-	0.95	-	-	5.90
볼리비아	-	-	-	-	-	4.68
러시아	0.56	1.44	-	-	0.12	2.63
핀란드	-	1.20	-	-	-	1.34
기타	-67.99	-	0.01	0.05	-	49.38
합계	-117.67	-66.75	1,513.03	321.48	2,145.81	17,953.38

주: 2009.9.30 기준 페루투자청 업데이트 자료

對 페루 투자 외국인기업(2008)

투자업체명	국가	현지업체명	분야
TELEFONICA S.A.	스페인	TELEFONICA DATA PERU S.A.C.	건설
		TELEFONICA DEL PERU S.A.A.	통신
		TELEFONICA GESTION DE SERVICIOS COMPARTIDOS S.A.C.	서비스
		TELEFONICA MOVILES PERU HOLDING S.A.A.	금융
		TELEFONICA PUBLICIDAD E INFORMACION PERU S.A.C.	서비스
RACETRACK PERU LLC	미국	UNION DE CERVECERIAS PERUANAS BACKUS Y JOHNSTON S.A.A.	제조업
XSTRATA SOUTH AMERICA LIMITED	영국	XSTRATA PERU S.A.	광업
CENCOSUD INTERNACIONAL LIMITADA	칠레	CENCOSUD PERU S.A.	주택건설
GOLD FIELDS CORONA BVI LIMITED	영국	GOLD FIELDS LA CIMA S.A.	광업
ENDESA LATINOAMERICA S.A. (ANTES END INT SA)	스페인	ELECTRICA CABO BLANCO S.A.	에너지개발
		GENERALIMA S.A.	에너지개발
BAVARIA S.A.	콜롬비아	UNION DE CERVECERIAS PERUANAS BACKUS Y JOHNSTON S.A.A.	제조업
AMERICA MOVIL, S.A. DE C.V.	멕시코	AMERICA MOVIL PERU S.A.C. (ANTES TIM PERU)	통신
LATIN AMERICA CELLULAR HOLDINGS B.V.	네덜란드	TELEFONICA MOVILES PERU HOLDING S.A.A.	금융
SN POWER HOLDING PERU PTE LTD	싱가포르	SN POWER PERU HOLDING S.R.L.	에너지개발
SMM CERRO VERDE NETHERLANDS B.V.	네덜란드	SOCIEDAD MINERA CERRO VERDE S.A.	광업
VOTORANTIM METAIS LTDA.	브라질	VOTORANTIM METAIS - CAJAMARQUILLA S.A.	광업
NEXTEL INTERNATIONAL (PERU) LLC.	영국	NEXTEL DEL PERU S.A.	통신
DUKE ENERGY INTERNATIONAL PERU INVESTMENTS Nº 1, LTD.	영국	DUKE ENERGY INTERNATIONAL PERU HOLDINGS S.R.L.	금융
RIVERVALE INC.	파나마	UNION DE CERVECERIAS PERUANAS BACKUS Y JOHNSTON S.A.A.	제조업
PERENCO LTD.	프랑스	PERENCO PERU LIMITED SUCURSAL DEL PERU	석유개발
THE BANK OF NOVA SCOTIA	캐나다	SCOTIABANK PERU S.A.A.	금융
THE COCA COLA EXPORT CORPORATION	미국	PERU BEVERAGE LIMITADA S.R.L.	금융
PLUSPETROL RESOURCES CORPORATION	영국	PLUSPETROL CAMISEA S.A.	석유개발
		PLUSPETROL LOTE 56 S.A.	석유개발
		PLUSPETROL NORTE S.A.	석유개발
		PLUSPETROL PERU CORPORATION S.A.	석유개발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 S.A.	운송
SEMPRA-ENERGY INTERNATIONAL-HOLDINGS B.V.	네덜란드	PERUVIAN OPPORTUNITY COMPANY S.A.C.	금융
NW HOLDINGS LTD.	바하마諸島	SCOTIABANK PERU S.A.A.	금융
TRANSAMERICA ENERGY COMPANY	영국	ELECTROANDES S.A.(ANTES I NVERSIONES ELEGIA S.R.L.)	에너지개발

CFG PERU INVESTMENTS PTE. LTD.	싱가포르	CFG INVESTMENT S.A.C.	수산업
INVERCABLE S.A.	칠레	INDECO S.A.	제조업
INTESA SANPAOLO S.P.A	이탈리아	SCOTIABANK PERU S.A.A.	금융
INTERGROUP FINANCIAL SERVICES CORP.	파나마	BANCO INTERNACIONAL DEL PERU-INTERBANK	금융
INTERCONEXION ELECTRICA S.A.E.S.P.	콜롬비아	CONSORCIO TRANSMANTARO S.A.	에너지개발
		INTERCONEXION ELECTRICA ISA PERU S.A.	에너지개발
		RED DE ENERGIA DEL PERU SA	에너지개발
TECGAS CAMISEA S.A.	파나마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 S.A.	운송
EMPRESA DE ENERGIA DE BOGOTA S.A.E.S.P.	콜롬비아	CONSORCIO TRANSMANTARO S.A.	에너지개발
		RED DE ENERGIA DEL PERU SA	에너지개발
GERDAU S.A.	브라질	EMPRESA SIDERURGICA DEL PERU S.A.A. - SIDERPERU	광업
HSBC LATIN AMERICA HOLDINGS (UK) LIMITED	영국	HSBC BANK PERU S.A.	금융
PAN PACIFIC COPPER CORP., LTD.	일본	COMPAÑIA MINERA QUECHUA S.A.	광업
ANGLO QUELLAVECO LIMITED	영국	MINERA QUELLAVECO S.A.	광업
GLOBAL CROSSING INTER NATIONAL NETWORKS LTD.	영국	SAC PERU S.R.L.	통신
		TELECOM INFRASTRUCTURE HARDWARE S.R.L.	통신
IBERIAN MINERALS CORP.	캐나다	COMPAÑIA MINERA CONDESTABLE S.A.	광업
SIPCO PERU PIPELINES CORPORATION	영국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 S.A.	운송
SOCIEDAD DE INVERSIONES INTERNACIONALES PARQUE ARAUCO S.A.	칠레	INMUEBLES COMERCIALES DEL PERU S.A.C.	건설
		INMUEBLES PANAMERICANA S.A.	건설
TRANSELCA S.A. E.S.P.	콜롬비아	INTERCONEXION ELECTRICA ISA PERU S.A.	에너지개발
		RED DE ENERGIA DEL PERU SA	에너지개발
HUNT PIPELINE COMPANY OF PERU L.L.C.	미국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 S.A.	운송
DEUTSCHE BANK AG	독일	DEUTSCHE BANK (PERU) S.A.	금융
ENAP REFINERIAS S.A.	칠레	MANU PERU HOLDING S.A.	상업
PAN AMERICAN SILVER CORP.	캐나다	COMPAÑIA MINERA ARGENTUM S.A.	광업
		EMPRESA MINERA NATIVIDAD S.A.	광업
PHELPS DODGE CORPORATION	미국	MINERA PHELPS DODGE DEL PERU S.A.	광업
ALTERRA LIMA HOLDINGS, LTD. (ANTES BECHTEL ENTERPRISES LIMA)	영국	LIMA AIRPORT PARTNERS S.R.L.	운송
P&O DOVER (HOLDINGS) LIMITED	영국	DP WORLD CALLAO S.A.	서비스
TRAFIGURA BEHEER B.V.	네덜란드	COMPAÑIA MINERA CONDESTABLE S.A.	광업
		VOLCAN COMPANIA MINERA S.A.A.	광업
BANCO SANTANDER CENTRAL HISPANO S.A.	스페인	BANCO SANTANDER PERU S.A.	금융
		RED ELECTRICA DEL SUR S.A.	에너지개발
PROCTER & GAMBLE INTERNA - TIONAL OPERATIONS S.A.	스위스	P & G INDUSTRIAL PERU S.R.L.	제조업
		PROCTER & GAMBLE PERU S.R.L.	상업

CHARIOT OPERATING LIMITED	영국	MARCOBRE S.A.C.	광업
TELEFONICA PUBLICIDAD E INFORMACION S.A.	스페인	TELEFONICA PUBLICIDAD E INFORMACION PERU S.A.C.	서비스
RIO BLANCO COPPER LIMITED	영국	MINERA MAJAZ S.A.	광업
AEI PERU HOLDINGS LTD.	영국	GAS NATURAL DE LIMA Y CALLAO S.A.	에너지개발
LATIN AMERICA HOLDING I, LTD	영국	SOUTHERN CONE POWER PERU S.A. (ANTES ENTERGY POWER PERU S.A)	에너지개발
PETROBRAS ENERGIA S.A.	브라질	PETROBRAS ENERGIA PERU S.A. (ANTES PEREZ COMPANC)	석유개발
CARMELA S.A.R.L.	룩셈부르크	PESQUERA EXALMAR S.A.	수산업
FRAPORT AG FRANKFURT AIRPORT SERVICES WORLDWIDE (ANTES FLUGH)	독일	LIMA AIRPORT PARTNERS S.R.L.	운송
IFH RETAIL CORP	파나마	SUPERMERCADOS PERUANOS S.A. (ANTES SANTA ISABEL)	상업
MAPFRE AMERICA S.A.	스페인	LATINA SEGUROS Y REASEGUROS S.A. (ANTES GENERALI)	금융
		MAPFRE PERU COMPAÑIA DE SEGUROS Y REASEGUROS	금융
MITSUBISHI CORPORATION	일본	COMPAÑIA MINERA ANTAMINA S.A.	광업
GFP DUNAS PARTNERS HOLDING, INC. (CAYMAN)	영국	DUNAS ENERGIA S.R.L.	금융
DIVEO PERU, INC.	미국	AMERICATEL PERU S.A. (ANTES DIVEO TELEC. DEL PERU S.R.L.)	통신
COMPAÑIA NACIONAL DE CHOCOLATES S.A.	콜롬비아	COMPAÑIA NACIONAL DE CHOCOLATES DE PERU S.A.	제조업
HSBC INVERSIONES S.A.	칠레	HSBC BANK PERU S.A.	금융
DOROGNE HOLDINGS INC.	파나마	PESQUERA AUSTRAL S.C.R.LTDA	수산업
BIMBO INTERNATIONAL, B.V. (ANTES LAMBLION INVESTMENTS B.V.)	네덜란드	PANIFICADORA BIMBO DEL PERU S.A(ANTES BIMABEL DEL PERU S.A.)	제조업
EMERGIA S.A. ANTES TELEFONICA SAM S.A.	우루과이	EMERGIA PERU S.A.C. ANTES TELEFONICA SAM DEL PERU S.A.C.	통신
WHITE MARTINS & WHITE MARTINS - COMÉRCIO E SERVICOS	포르투갈	PRAXAIR PERU S.A. (ANTES LIQUID CARBONIC DEL PERU S.A.)	제조업
SERCOTEL S.A. DE C.V.	멕시코	AMOV PERU S.A.	통신
INKIA HOLDINGS (KALLPA) LIMITED	버뮤다	KALLPA GENERACION S.A.	에너지개발
INVERSORA FALKEN S.A.	우루과이	HIPERMERCADOS TOTTUS S.A.	상업
		INVERSIONESY SERVICIOS FALABELLA PERU S.A.	금융
		SAGA FALABELLA S.A.	상업
		SODIMAC PERU S.A.	상업
PROMIGAS S.A. E.S.P.	이탈리아	GAS NATURAL DE LIMA Y CALLAO S.A.	에너지개발
SK CORPORATION	한국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 S.A.	운송
MCDONALD'S RESTAURANT OPERATIONS INC.	미국	OPERACIONES ARCOS DORADOS DE PERU S.A.	서비스
KLS LIMITED	영국	MARCOBRE S.A.C.	광업
BANMEDICA S.A.	칠레	EMPREMEDICA S.A.	서비스
BANCO BILBAO VIZCAYA ARGENTARIA S.A.	스페인	HOLDING CONTINENTAL S.A.	금융

COMPAÑIA MINERA LATINO - AMERICANA LTDA. (CMLA)	칠레	COMPAÑIA MINERA MISKI MAYO S.A.C.	광업
MANUELITA INTERNACIONAL S.A.	콜롬비아	EMPRESA AGROINDUSTRIAL LAREDO S.A.	농업
SUEZ - TRACTEBEL S.A.	벨기에	TRANSPORTADORA DE GAS DEL PERU S.A.	운송
THE GOODYEAR TIRE & RUBBER COMPANY	미국	CIA. GOODYEAR DEL PERU S.A.	제조업
MINAS PEÑOLES S.A DE C.V.	멕시코	MINERA PEÑOLES DE PERU S.A.	광업
PROGRESA HOLDING A.G.	스위스	GRUPO FARMAKONSUMA S.A.	제조업
SETFIRST LIMITED	영국	GLAXOSMITHKLINE PERU S.A.	상업
BANCO DE PICHINCHA C.A.	에콰도르	BANCO FINANCIERO	금융
INDURA INVERSIONES LIMITADA	칠레	INDURA S.A.	상업
CHARIOT PARTNERS LIMITED	영국	MARCOBRE S.A.C.	광업
CMTC NOMINEE N.V.	네덜란드	EMPRESA AGRICOLA CHICAMA LTDA. S.A.	금융
ALUSA S.A.	칠레	PERUPLAST S.A.	제조업
		TECH PAK S.A	제조업
AUTOMOTORES GILDEMEISTER S.A.	칠레	AUTOMOTORES GILDEMEISTER - PERU S.A.	상업
		BIENES UBICADOS EN EL PAIS - INMUEBLE - CAMACHO	주택건설
		MAQUINARIA NACIONAL S.A. - PERU	상업
REPSOL YPF PERU B.V.	네덜란드	REFINADORES DEL PERU S.A.	제조업
MILLICOM HOLDING PERU NV	네덜란드	MILLICOM PERU S.A.	통신
INVERSIONES SAN LORENZO S.A.	칠레	CERAMICA SAN LORENZO S.A.C.	상업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S.A.	브라질	CONCESIONARIA INTEROCEANICA SUR - TRAMO 2 S.A.	건설
		CONCESIONARIA INTEROCEANICA SUR - TRAMO 3 S.A.	건설
		CONCESIONARIA TRASVASE OLMOS S.A.	건설
OILTANKING GMBH	독일	OILTANKING PERU S.A.C.	건설
ODEBRECHT INVESTIMENTOS EM INFRA-ESTRUTURA LTDA.	브라질	CONCESIONARIA TRASVASE OLMOS S.A.	건설
BELLSOUTH ADVERTISING & PUBLISHING B.V.I. LIMITED	영국	BELLSOUTH ADVERTISING & PUBLI - SHING PERU S.R.L.	서비스
SYLVAN I B.V.	네덜란드	LAUREATE EDUCATION PERU S.R.L.	서비스
COCA-COLA (JAPAN) COMPANY, LIMITED	일본	BEVERAGE BRANDS S.R.L.	금융
LANDY S.A.	우루과이	BANCO INTERAMERICANO DE FINANZAS	금융
BRITTON S.A.	우루과이	BANCO INTERAMERICANO DE FINANZAS	금융
SCANIA SALES AND SERVICES AB	스웨덴	SCANIA DEL PERU S.A.	상업
SILVER STANDARD RESOURCES INC.	캐나다	SOCIEDAD MINERA BERENGUELA S.A.	광업
TECHINT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RP. (TENCO)	바하마 제도	TECHINT S.A.C.	건설

주: 2009.9.30 기준 페루투자청 업데이팅 자료

자료: ProInversion

□ 국가별 분야별 대 페루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유럽의 對페루 외국인 직접 투자 누적액

(단위: 백만달러)

국가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
농업	0.00			6.0		0.11			1.29		12.33		
상업	31.88	5.72	0.01	4.91	1.31	5.35	0.01	5.46	5.35	19.49	128.85	35.99	45.13
통신				2980.51		0.06	0.07		11.19		300.53		
건설	10.50			13.61		0.61			3.0	15.23	1.13		3.53
에너지	17.06		57.0	590.54		9.0	0.56		266.60		207.48	8396	
금융	39.72	0.17	0.02	369.38		29.81	163.55	0.13	0.24	480.22	569.85	0.11	7.28
산업	31.57		5.14	19.32		3.57	5.31	5.67	7.04	276.92	22.04	163.90	18.86
광업	2.49			0.43	0.01	12.90	11.71		300.98		1798.41		12.18
어업								30.0			1.0		
석유개발						148.0			0.18		110.86		0.01
서비스	0.05			159.87	0.01	0.68	4.69		6.49	37.70	0.02	53.66	0.27
운송	28.76		16.80						1.69		97.30		1.05
관광			0.31			0.01	0.18		1.98		31.35		0.05
주택건설						0.76	7.51		1.12		0.89		1.99
합계	162.03		79.28	4144.58	1.34	200.99	195.39	19.33	49.13	1402.37	37.29	3477.54	64.18

주: 2009.9.30 기준 페루투자청 업데이트 자료

자료: ProInversion

아시아 국가의 대 페루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국가	호주	중국	한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기타
농업							0.73
상업		0.02	5.75	17.07			0.25
통신							
건설				0.02	6.85		0.20
에너지						295.93	
금융			9.00	10.23			30.28
산업	2.24		5.88	31.91			0.71
광업	4.67	122.13		111.26			15.75
어업				0.71		103.50	0.80
석유개발			0.10				
서비스	0.01	0.01					0.66
운송			19.95	1.20			
관광							
주택건설							
합계	6.92	122.16	40.69	168.39	6.85	399.43	49.38

주: 2009.9.30 기준 페루투자청 업데이트 자료

자료: ProInversion

중남미, 미국의 對 페루 외국인 직접투자 누적액

	아르헨티나	바하마 제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미국	캐나다
농업					0.70	20.45			0.69		1.27	0.93	
상업	15.24	8.32	0.28	8.7	134.16	3.98	2.56	2.14	75.29	19.61	0.10	140.96	0.39
통신					0.01	0.01		407.15		22.77		34.12	
건설		10.0		26.7	44.10		8.28	4.68	12.04			0.45	0.39
에너지					97.24	191.13			239.70	2.42		380.29	
금융		118.10	0.39	2.85	102.27	0.35	43.79	9.22	94.05	75.50	4.19	402.66	157.92
산업	6.49	8.19	4.0	1.11	150.36	509.17	13.09	2.12	315.99	56.14	2.35	933.09	29.85
광업				272.75	20.06			22.74	38.65	0.33		637.79	132.82
어업									24.12			2.87	
석유개발	0.02			30.00				0.01	2.34	0.50		63.88	0.03
서비스	1.28	0.01		0.05	44.42	5.94	0.03		14.99	2.93	0.05	98.68	1.62
임업												1.24	
운송	6.59	0.02			0.12				71.61			40.35	
관광	0.03				0.04		0.08		4.43			25.09	
주택건설	0.11				503.20			0.33	9.30	0.06		0.31	0.25
합계	29.77	144.64	4.68	342.17	1096.68	731.02	67.82	448.39	903.22	180.27	7.96	2762.70	323.27

주: 2009.9.30 기준 페루투자청 업데이팅 자료

자료: ProInversion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최근 몇 년간 투자액 지속적으로 증가

페루경제부 투자진흥청(Proinversion)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페루 투자진출은 1995년 이후부터 투자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對 페루 투자는 2009년 6월 말까지 7억 800만 달러를 넘는 누적액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對 페루 투자 누적액

(단위: 천 달러)

분야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계	76	1,294,711	345	708,159
농림어업	2	2,670	4	236
광업	43	1,249,346	289	669,322
제조업	13	11,223	32	8,690
건설업	1	235	1	235
도소매업	13	30,659	13	29,099
운수창고업	2	566	5	566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기업의 對 페루 투자 동향

분 야	투자회사명	프로젝트명	투자액(US\$ 백만) -예정액 포함	지 분
자 원	광업진흥공사	Marcona(동광)	4.8	15%
	LS-NIKKO	"	4.8	15%
	S K	Camisea(가스)	283	17.6%
		LNG	900(예정)	30%
		Block56(석유)	22	17.6%
	석유공사 대우인터내셔널 SK	Block8(석유)	727	- 석유공: 20% - 대우: 11.7% - SK: 8.3%
제조업			5.8	2건
도소매업			17	6건
기 타			0.7	운수, 창고업 등
총 계			1,965.1	

주: 2009.9.30 기준

자료: 현지 진출업체 문의

주요 투자기업으로는 SK, 대우, LG등 대기업과 석유공사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는 수산업 및 수산물 가공 등에 종사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트레이딩에 종사하는 소규모 자영업 등이다.

페루 유전개발에 SK, 대우, 석유공사가 아마존 지역 8광구에 투자하였고 SK는 Camisea 가스전에, 그리고 광업진흥공사와 LS-Nikko가 각각 Marcona 동광에 지분을 15%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페루는 해안선이 길고 수산자원이 풍부하여 다양한 수산물이 생산되는데, 우리나라 기업 몇몇이 페루 북부의 Tumbes 지역 등에 투자하여 활동 중이다.

페루에서는 택시의 절반 가까이가 대우의 티코일 정도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좋으며, 페루에는 자동차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교민이 많다. 이외에도 섬유, 전자제품, 보안장비, 중장비, 무역, 의료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우리 나라가 투자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 비즈니스의 성격이 강한 자영업으로, 참된 의미에서의 직접외국인투자(FDI)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남미 국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페루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계의 좀 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나. 투자 성공 사례

SK는 아르헨티나 플루스페트를 등 5개 외국 기업과 함께 2000년 카미세아 88광구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상업 생산은 2004년 시작했다.

석유와 가스를 함께 생산하는 카미세아 88광구는 남미 최대의 가스전이다. 확인된 매장량이 원유 6억 배럴, 천연가스 8조 7,000억 세제곱피트에 이른다. 가스를 원유로 환산하면 약 14억 5,000만 배럴로, 합치면 20억 5,000만 배럴에 이른다. 이는 한국이 2년 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적지 않은 양이다.

88광구 공동 사업자인 SK㈜의 지분은 17.6%, 100달러의 기름과 가스를 파면 17달러가 SK㈜몫이라는 애기다. 페루 카미시아 사업으로 SK㈜가 2007년 거둔 실적은 매출액 1억

4,000만 달러, 순이익은 5,000만 달러에 이른다. SK그룹 해외석유 개발사업 매출의 절반이 이 광구에서 나올 만큼 중요한 전략지역이다.

SK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 페루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다. 88광구와 인근 56광구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정제해 수출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헌트오일, 스페인의 렘술-YPF와 손잡고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페루 리마의 남부해안에 있는 팜파멜초리타 지역에 대규모 LNG 공장을 건설한다. 공장이 완공돼 LNG 생산이 가능한 2009년 하반기부터 연간 420만 톤의 LNG를 미국 서부지역과 멕시코에 공급하는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 SK(주)의 지분은 30%이다.

세계적으로 가스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SK(주) LNG프로젝트는 새로운 수익 사업으로서 그 전망이 밝다.

(자료: 동아일보 2006.3.31)

다. SK에너지 ‘페루 석유 탐사권’ 또 따내

SK에너지가 페루 해상에 있는 석유 광구에 대한 탐사권을 또다시 따냈다.

SK에너지는 “페루 국영석유기업인 페루페트로(Perupetro) 주관으로 이달 초 실시된 페루 내 19개 광구에 대한 국제 입찰에서 Z-46 해상 광구에 대한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100% 지분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에너지의 해외 자원 개발 지역은 전 세계 14개국 26개 광구로 확대됐다. SK에너지 관계자는 “Z-46 광구는 페루의 대규모 원유 생산 지역에 인접해 있고, 최근 원유가 다량 매장된 사실이 밝혀진 지역이어서 유전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SK에너지는 2007년 페루 내에 3개의 광구를 확보하고 있다. 카미시아 광구와 블록 8 광구에서 일일 총 8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블록 56 광구에서는 오는 2008년 생산을 목표로 개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낙찰로 SK에너지의 페루 내 광구는 4개로 늘어나게 됐다.

SK에너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25%의 지분을 확보한 베트남 15-1/05 광구에 대한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투자 허가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허가 취득으로 SK에너지가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과 체결한 투자 계약이 유효하게 됐다.

(자료: 조선일보 2007.7.22)

라. 페루 석유화학 분야 투자 이루어질까?

페루 정부의 석유화학산업 진흥책에 따라 많은 외국 기업체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의 SK도 역시 강력한 투자 후보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즉 카미세아 가스전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를 가공해 폴리에틸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투자 예상액은 약 20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SK의 페루 투자와 관련, 최태원 회장이 현지를 방문해 알란

가르시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지기도 하였다. 2007년 4월에는 페루국립공대(UNI)가 주최한 석유화학포럼이 열려 한국에서 2명의 연사가 참가한 바 있다.

(자료: 2007.10.9 페루 일간지Gestion)

마. 한국 Kedcom社, 페루 오일광구 입찰 수주 쾌거

1) 가장 인기 있는 광구 개발권 획득

페루석유공사(Perúpetro)가 실시한 17개 석유광구 입찰에서 한국의 Kedcom社가 가장 개발이 유력한 광구의 개발권을 획득하였다.

Kotra 리마 KBC(관장: 박동근)에 따르면 Kedcom은 Consultora de Petroleos社 (페루)와 컨소시움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한 바, 참가업체의 관심도가 가장 높고 경쟁도 치열했던 제160번 광구에서 이 같은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

Kedcom이 참가한 160번 광구의 공식 로열티 지불 요구 규모는 5%이었으며 17개 광구 전체의 평균 최종 로열티 제시금액 32%를 약간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한국업체가 페루 석유 사업권을 따낸 것은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 다른 남 미 자원 개발사업 진출 및 한국 인력, 플랜트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마 KBC는 2008년 수회에 걸쳐 이번 입찰 정보를 글로벌원도를 통해 국내 업계에 전파하는 등 한국 기업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2) 페루의 중점 사업으로 17개 광구 개발 입찰 실시

페루석유공사(Perúpetro)는 이번 17개 석유광구 입찰을 2008.9.10(수)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입찰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회사는 페루정유공사(Petro-Perú)로 전체 17개 중 6개 개발권을 받았다.

페트로페루는 Discover Petroleum(노르웨이), Pluspetrol(아르헨티나), Reliance(인도), CNPC(중국) 등 다른 유명 기업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참가하여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바, Pluspetro, Reliance, CNPC와의 컨소시움에서는 15%, Discover Petroleum과의 컨소시움에서는 2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노르웨이 Discover Petroleum사는 처음으로 페트로페루와의 컨소시움을 구성해 페루에서의 사업에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을 실시한 페루석유공사에 따르면 2008년 들어 석유개발권을 부여한 것은 이번 입찰을 포함해 모두 24건이며 모두 104건을 허가하였다.

입찰 대상이 된 17개 광구의 총 투자 예상금액은 8억 5,000만 달러로서 1개 광구당 평균 5,000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페루석유공사는 2006년부터 동 입찰을 전세계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 다른 석유사업 입찰에도 더욱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 광구별 낙찰업체 현황

광구번호	낙찰업체
147	Jindal Steel & Power Limited / Enigma Oil & Gas
149	Global Steel Holding / Petrolera Monterrico
152	Global Steel Holdings / Petrolera Monterrico
153	Jindal Steel & Power Limited / Enigma Oil & Gas
155	Pluspetrol / Petroperú / Reliance / CNPC
157	Petroperú / Discover Petroleum
159	Jindal Steel & Power Limited / Enigma Oil & Gas
160	Kedcom Co. / Cia Consultora de Petróleos
161	Pan Andean Resources
162	Petrovietnam Exploration Production Corporation
163	Emerald Energy Plc
Z-50	Petroperú / Discover Petroleum
Z-51	Petro-Tech Peruana S.A.
Z-52	Petro-Tech Peruana S.A.
Z-53	Petroperú / Discover Petroleum
Z-54	Petroperú / Discover Petroleum
Z-55	Petroperú / Discover Petroleum

자료: 페루석유공사(Perúpetro)

바. 석유공사, 페루 최대 유전개발사 인수

석유공사가 최초로 해외 석유회사의 인수·합병(M&A)에 성공했다. 이는 페루에 생산광구, 탐사광구를 11개 갖고 있는 미국계 석유회사인 페트로텍사로 인수 금액은 9억달러다. 석유공사는 콜롬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에코페트롤과 50대50 지분으로 페트로텍을 공동 인수했다.

페트로텍은 페루 해상광구의 약 75%(면적 기준)를 소유한 민간 석유회사다. 생산광구 1개(하루 생산량 1만2500배럴), 탐사광구 10개(기대 매장량 6억8900만배럴)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석유공사는 하루 원유 생산량을 5만배럴에서 6만2500배럴로 25% 높이게 됐다. 생산광구의 생산량은 석유공사가 보유한 광구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 광구는 2015년까지 하루 생산량이 '09년보다 3.6배인 4만5000배럴로 늘어날 전망이다.

11개 광구의 매장량은 8억4180만배럴로 우리나라의 연간 총 원유 소비량 (7억6100만 배럴)을 상회한다.

석유공사가 부담할 4억5000만달러는 국내 외환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했다. 석유공사는 인수 대금 납부도 마쳤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코페트롤 컨소시엄은 당초 지난해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18억달러에

가계약했다. 그러나 실사 과정에서 가격 협상 요인이 발생했고,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인수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게 됐다. 특히 이번 딜은 중국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 시노펙(SINOPEC) 등을 제치고 성공한 계약이어서 더욱 값진 성과로 평가 받고 있다.

(자료: 2009.02.07 매일경제)

사. 포스코건설, 페루 복합발전소 수주

포스코건설이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페루 시장에 진출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3억5000만달러 규모 복합화력발전소 공사에 대한 EPC(설계·조달·시공을 포함한 일괄 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스라엘 인키아에너지사의 페루 현지법인인 칼파제너레이션 S.A사가 발주한 이 프로젝트는 페루 리마에서 약 62km 떨어진 칠카의 기존 발전시설을 복합발전시설로 개조하는 것이다.

국내 건설사가 페루에서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건설이 중남미 시장에서 스페인 아벤고아사, 독일 지멘스사 등을 제치고 공사를 따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이 발전소의 주 원료는 LNG(액화천연가스)로 공해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이다. 포스코건설은 연내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12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6년 12월 칠레 벤타나스 석탄화력발전소, 2007년 칠레 캄피체와 앙가모스에서 각각 석탄화력발전소 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엘살바도르에서도 발전소 공사를 수주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중남미 에너지플랜트 건설시장에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며 "중남미 국가들의 SOC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달 페루에 지사를 설립해 각종 공사 입찰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2009/09/16 머니투데이 투자뉴스)

4. 주요 투자법 내용

페루 투자법규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내투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한다는 내외국인 동등 대우 원칙이 기본이며, 투자업종도 언론분야 외에는 제한이 없는 완전 개방에 가까운 외국인 투자 유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페루 내 투자유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나 페루의 경우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 하에 이러한 조치가 전혀 없다.

오히려 2006년 7월 알란 가르시아 신 정부가 들어서자 광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점을 감안해 외국인투자 광산업체에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기 위해 협상에 나올 것을 요구해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 외국인투자 유치 담당기관: Proinversion(투자진흥청-2007년 11월 KOTRA와 업무 협조 약정 체결)

- 투자유치전략 수립, 잠재 투자가 교섭, 프로젝트 및 공공분야 외국인 기업체 투자 유치
- 국가경제 계획 및 정책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업체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행
- 외국인투자액 집계, 외국인투자업체 등록, 투자승인 및 법적 안정성 보장
- 투자 관련 국제협정 체결을 위한 조정 및 교섭
- 홈페이지: www.proinversion.gob.pe
- 주소: Av. Paseo de la Republica 3361, San Isidro, Lima - Peru
- 연락처: (51-1) 612-1200

2)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규범

□ 헌법

- 1993년 페루헌법은 민간투자, 특히 외국인투자와 관련 다음 사항 보장
 - 시장경제와 경제적 다원주의 내에서의 자유로운 민간 주도권 보장
 - 노동, 기업활동, 상업, 산업활동의 자유
 - 경제 활동에서 보조자로서의 정부역할 정의
 - 자유경쟁 보장 및 시장독점 방지
 - 계약 체결의 자유
 - 계약과 법률을 통한 정부의 법적 안정성 보장
 -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자의 대등한 대우
 - 국가가 관련된 분쟁사항을 국내 또는 국제재판소에 상정할 가능성
 - 외국 화폐의 자유로운 소유 및 처분 보장
 - 소유권의 불가침성
 - 개인 소유권 몰수의 경우 미리 적정한 보상 지불
 - 조세의 평등성
 - 몰수 성격의 세금 조 용납

□ 법규

- 외국인 투자와 관련, 명확한 규범 및 안정성을 제공하는 기본법은 1991년에 승인한 법령 제662호(Decreto Legislativo No.662)이다.
- 법령 제757호(Decreto Legislativo No.757; 민간 투자 증대), 최고법령 제162-92-EF (Decreto Supremo No.162-92-EF; 민간투자 보증제도) 등도 관련법이다.

3)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원칙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기본 원칙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이 있다.
- 외국인은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 WTO 규정에 의해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선별한다거나 생산성 요건 충족 요구를 할 수 없다.

4)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 투자 가능 분야는 공공 질서 유지, 국가안전에 관련된 극소수 분야만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 내국인 소유 주식을 주식시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매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외국인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내국인과 똑같이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경으로부터 50km 내의 지역에서는 광산, 땅, 숲, 물, 연료, 에너지원 등을 소유하지 못한다. 단, 공공의 필요로 예외를 둘 경우 국무회의 승인 법령으로 예외 인정한다.
- 정부 간 협정 수혜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대등한 요구 조건 적용한다.
- 기업은 스스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활동을 계획 실행할 권리 보유한다.
- 위생, 공업 안전, 환경 보호, 보건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하고 그 외에 생산 방법, 생산 지수 등을 규정하거나 특정한 원자재나 생산 기술 과정을 금지 또는 강요하는 것, 회사 활동에 간섭하는 법 모두 폐지한다.
- 외국 투자자는 법이 허용하는 어떤 형태의 회사이든 자유롭게 다음에 열거하는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음.
 - 자본금 투자(직접 투자)
 - 합작투자(Joint-venture)
 - 페루 영토 내의 소유물, 동산
 - 유가증권의 투자
 - 무형의 기술 제공
 - 페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투자

5)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본권

- 내국인에 비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상업과 산업, 수출과 수입의 자유
-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국내에서 창출한 이익, 또는 배당금을 자유로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자유
- 외환시장에서 가장 유리한 환율로 환전을 할 수 있는 권리
- 이미 투입한 자본을 본국으로 반환할 수 있는 권리(주식 양도, 자본 감축, 자본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 때)
- 내국인투자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무 제한 없이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
- 기술 계약과 로열티 송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권리
- 내국인 투자자의 소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자유
- 투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보험계약을 외국에서 체결할 수 있는 권리
- 자신의 투자를 위해 국가와 법적안정성 보장 협정을 체결할 권리

6) 법적안정성(judicial stability) 보장 협정

- 정부는 내외국인 투자자 또는 그들이 투자한 회사와 법 계약 성질을 띤 협정을 체결하며 이 계약에 대해서는 민법의 계약 부분을 적용한다.

-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국내법을 내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외국 투자자의 자유로운 외환 소지, 이윤, 이익배당금, 로열티를 해외 송금
-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수용하는 회사에게 인정하는 보장사항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노동법 안정성
 - 협약을 맺을 당시 유효한 수출 장려 제도 안정성
 - 협정을 맺을 당시 유효한 소득세법 안정성
-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자격
 -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국내기업 모두 협정 체결 가능
 - 새로운 회사 설립 또는 기존 회사 증자 형태나 관계 없음.
 - 민영화나 정부양도 개발권 참여회사 또는 이 과정과 관계 있는 회사
 - 위의 조건에 해당되면서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회사만 법적 안정성 협정 체결 가능

7) 투자 외국인 기업의 준수사항(4개)

- 광업과 석유산업 제외분야 투자기업으로 2년 안에 최소 US\$500만을 투자하는 경우
- 광업과 석유 산업 투자업체로서 2년 안에 US\$1,000만 투자하는 경우
- 민영화 참가사로서 전체 자본금의 50% 이상 주식 매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 페루정부가 체결하는 권리양허계약 수혜기업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8) 외국인 투자 수용기업 충족 조건

- 회사 주주 중 한 사람이 해당 안정성 보장 협정을 맺어야 한다.
- 조세 납부 안정성 신청의 경우 새로운 투자 금액이 기존 자본금 또는 자본 준비금의 50% 이상 되어야 하며 투자금은 회사의 생산 능력을 확장하거나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 민영화의 경우 회사 주식 50% 이상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 페루 정부가 체결하는 권리 양허 계약의 수혜자여야 한다.
- 법적안정성 보장협정의 유효기간
 - 일반적으로 10년
 - 권리 양허의 경우 유효 기간은 권리 양허 유효기간까지 지속
- 분쟁 해결: 법적안정성 보장협정과 관련된 문제는 중재재판소에서 해결한다.

9) 투자 관련 국제협정

- 외국인투자 유치, 보호, 법적안정성 보장 목적으로 다양한 협정 체결 또는 가입되었다.
 - 태평양연안국, 유럽, 중남미제국과 30개의 조약 체결
 - 미국해외민간투자공사(OPIC)과 협정 체결
 - 다자간투자보장기구(MIGA) 회원
 - 국제투자분쟁해결협약(ICSID)과 뉴욕협정(New York Convention) 가입
 - 페루와 미국간 통상증진협정 체결(2006년)
 - 칠레와 경제보완협정 체결
 - 캐나다와 외국인투자 보호협정 체결

- 싱가포르와 FTA 체결 추진
- 멕시코와 경제보완협정 확대 추진
- 중국과 FTA 체결 추진
- 한국과 FTA 협상 계획

○ 다수국과 양자 간 투자보장 협정 체결(30개국 이상)

10) 근로 규정

- 근로계약의 종류
 - 노동계약
 - 서비스 계약
 - 공사 계약
 - 임시 계약 등
- 국내회사의 외국인고용자 수는 전체 직원의 20%를 넘지 못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전체 급여 지출의 30%를 넘지 못한다.
- 서면으로 최고 3년의 기간을 한정하는 계약을 맺되 같은 기간 연장 가능하다.
- 외국인 고용자가 특별한 기술자, 전문가이거나 이사, 매니저 급일 경우 고용주가 위에 언급된 제한 규정의 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 회사는 인력회사를 통해 근로자 고용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고용자와 고용주 간의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 이러한 방법으로 고용된 고용인 수는 회사 직접 고용인 전체의 20%를 넘을 수 없다.
-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주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초과하는 경우 첫 2시간은 정상 급여 25%, 2시간을 넘는 경우 35% 이상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
 - 피고용자는 법적 공휴일과 1주일에 24시간을 쉴 권리가 있다.
- 영구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의 권리
 - 의료보험(Essalud): 고용주가 급여의 9%를 부담한다.
 - 연금 가입: 국립연금일 경우 SNP(Sistema Nacional de Pensiones), 민간 연금일 경우 SPP(Sistema Privado de Pensiones)
 - SNP: 근로자가 급여의 13%를 국가에 납부한다.
 - SPP: 근로자가 급여의 10%를 사설 연금관리기관(AFP: Administradora Privada de Fondos de Pensiones)에 납부한다.
 - 같은 회사에서 4년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주가 생명보험을 들어줘야 한다.
 -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각 1년마다 1개월 치 급여의 150%, 최대한 12개월 치의 급여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 근무기간보상금(CTS, Compensación por tiempo de servicios): 매년 5월, 11월에 적립된다.
 - 1년을 일한 후 1년마다 30일의 휴가를 줘야 한다.
 - 매년 7월과 12월에 각각 한 달 급여를 상여금으로 지불한다.
 - 회사 영업 이익의 5-10%를 배당금으로 받으나 고용인이 20명 미만 회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법정 최저급여(Remuneración mínima vital)는 S/.550(약 185 달러)이며 근로자의 급여는 법정 최저급여 이상이어야 된다.

11)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 사전환급제도(Decreto Legislativo No.818과 수정법령)
 - 생산이나 수출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납부한 일반 판매세(IGV,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이다.
 - 자원 개발 계약을 정부와 체결할 경우 또는 사회간접자본 개발, 공공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권리양허계약을 국가와 체결하는 기업체는 해당 프로젝트 실시예 필요한 재화, 서비스 수입 및 구입, 건축계약 등에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최고 법령을 통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한다.
- 농업 분야의 인센티브 대상
 - 재배와 사육에 종사하는 자연인, 법인. 임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 국내에서 재배, 사육된 농산물을 이용하는 자연인, 법인 사업자
 - 리마, 까야오(Callao) 행정 구역 내에서 활동이 이루어지면 제외된다.
 - 밀, 담배, 기름을 짜는 씨, 식용유, 맥주 제외한다.
- 농업분야 조세인센티브
 - 이윤세율은 순 이윤의 15% 적용한다.
 - 법인은 수자원 또는 관개시설 관련 투자액의 20%를 매년 감가상각 가능하다.
 - 생산활동 개시 전 최대한 5년 동안 발생한 자본재, 기자재, 서비스의 구입, 건축 계약 등의 I.G.V. 미리 환급 가능하다.
 - 인센티브 부여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 양식업 세제 특혜
 - 이윤세율은 순 이윤의 15% 적용한다.
 - 세제혜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 고용주는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 가능하다.
 - 임시 계약의 경우 일의 특성상 계약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의 평균이 법에서 제한하는 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누적제로 계산할 수 있고 법이 규정하는 노동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한다.
 - 고용주는 근로자 임금의 4%를 보험료로 부담한다.

■ 아마존 지역 투자

- 아마존 지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특별 이윤세 적용한다.
- 지역에 따라 3종 이윤세 5% 내지 10% 적용한다.
- 농수산업, 양식업, 관광업, 지역 내 생산 농수산물 가공업, 임산 추출업 등이 있다.
- 아마존 지역 토산품이나 코카 대체품목 재배 또는 가공업 이윤세 면제한다.
- 기름 추출용 야자, 커피, 코코아 등에 대해서는 앞에 언급된 세제 혜택은 재배업에만 적용되며 가공업에는 지역에 따라 5~10%의 소득세 적용한다.
- 아마존 영업회사 중 소득의 30% 이상을 프로젝트에 재투자하는 회사에는 지역에 따라 3종 이윤세 5~10% 적용한다.
- Loreto, Ucayali, Madre de Dios 지역 영업회사의 지역 내 매출(지역 내에서 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면제한다.

□ Special Zones 투자

- CETICOS
 - Paita, Ilo, Matarani 등에 소재하였다.
 - 농산물 가공업: 국내 생산 농산물을 CETICOS에서 가공한다.
- 세제 혜택
 - 201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 소비세 등 모든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단 의료보험료는 예외)한다.
 - Tacna의 CETICOS에서 중고 자동차의 수리, 분해 수리 종사 업체에는 2008년 12월 18일까지 적용한다.
 - Paita, Ilo, Matarani 항을 통해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수입 관련 조세와 지방세를 면제한다.
 - CETICOS 지역 외의 국내 모든 지역에서 유입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수출로 간주, 수출에 관련되는 법규, 세제를 적용한다.
 - 페루 영토 내의 세관을 통해 CETICOS로의 물품 유입 가능하다.
 - 통관, 외국으로의 재선적, 외국 물건을 CETICOS로 들여와 가공해서 수출 가능하다.
 - CETICOS에서 생산되어 국내 다른 지역으로 물건은 임시 수용, 임시 수입, 면세품의 복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외국으로 물건을 재선적하여 창출되는 이윤에 대해서는 이윤세를 면제한다.
 - CETICOS에서 국내 반입물건에 대해서는 정상수입에 적용되는 모든 세금을 적용한다.

□ Tacna Free Zone(Zofratacna) 투자

- 기업 운영 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면제(의료보험료는 제외)한다.
- 지역 내 납세자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외부에서 Ilo, Matarani항, Tacna 공항, Arica(칠레) 부두로 유입되어 Zofratacna 면세 창고를 거쳐 Tacna로 오는 물건에는 특별세율을 적용한다.
- 국내 타지역에서 Zofratacna로 유입되는 자산, 서비스는 수출로 간주되어 수출에 적용되는 일반 세금, 법률을 적용한다.
- 완성을 위해 잠깐 수출되었던 상품에서 파생되는 상업적 가치가 있는 쓰레기나 잔여물의 수입에는 세금을 비적용한다.
- 지역 내 납세자는 기계, 설비, 장비, 부품을 수입할 때 세금 보류 수혜가 있다.

12) 자유 경쟁과 지적 재산의 보호

- 정부는 자유경쟁을 촉진하고 방해요인을 제거한다.
 - 독점 방지
 - 지적재산권 보호
- INDECOPI(국립 지적 재산 보호청)
 - 자유 경쟁법의 실천 감시
 - 불공정경쟁, 독점으로부터 시장 보호
 - 덤핑, 보조금 적용 처벌
 - 소비자 보호
 - 상도덕 위반행위 처벌

- 자유무역 관련법 촉진
- 정부 행정부처나 지방정부 기관의 불법, 불합리한 납세자 통제 방지
- 지적재산권 보호

13) 사회 간접 자본과 공공 사업 분야에의 민간 투자 장려

- 민간기업에 대한 사업참여 및 운영권 양허계약(concession) 형태로 실행한다.
 - 투자 프로젝트 담당 중앙 정부기관은 Proinversion이다.
 - 지방 정부기관은 도청, 구청이다.
 - 국내, 국제 경쟁입찰로 이루어지며 계약 체결로 구체화한다.
 - 낙찰자에게 프로젝트 실행 및 사업 운영권을 양도한다.
- 양허 계약의 유효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하며 계약서를 서명하는 날짜부터 유효하되 어떤 경우에도 60년을 넘기지 못한다.
- 정부는 양허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계약이 없을 경우라도 페루 헌법이 명시하는 중재기관(국내, 국제)에 회부 가능하다.
- 사업참가업체는 투자위험 부담 보험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계약 가능하다.
- 사업 참가업체는 계약서에 다음의 특혜 조치 가능하다.
 - 부가가치세 우선 환급
 - 계약대상 자산 감가상각 실시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투자 진출 형태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 진출은 현지법인, 지사 및 지점 등으로 구분된다. 주식회사 설립 시 필요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실제 현지 파트너와 수속을 밟아 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1) 법인명

현지법인 설립 시 어떤 이름이든 사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란 뜻의 Sociedad Anónima(약칭 S.A.)를 포함해야 한다.

2) 자본금

자본금은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주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등록된 STOCK을 의미하며, 최소 자본금은 강제되지 않는다.

3) 주주

주주는 최소한 3명 이상의 개인이나 또는 법인,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4) 법인

DIRECT CREATION과 PUBLIC SUBSCRIPTION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증을 필요로 한다. 또한 두 가지 형태 모두 법인 설립의 발기인인 주주들이 공증인에게 회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서류(주주 전원의 신분증 및 페루 은행에 자본금 예치 증명서 등등)를 제공해야 한다.

DIRECT CREATION에 의한 법인 설립을 예로 들면, 투자 자본액을 페루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일단 자본금이 예치되고 나면 주주들은 법인 설립서를 작성하고 동 법인 설립서에 변호사의 법률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인 설립서를 공증인에게 제출하면 공증인은 회사가 설립되는 지역의 상업 등기소에 법인 설립의 등록을 위한 공증서를 발급한다.

5) 설립 비용

법인 설립과 관련된 지출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총 투자 자본액 및 공증 서류의 복잡성, 길이 등에 따라 산출되는 공증 비용
- 자본금의 3/1000에 해당하는 법인 등록 비용
- 대표이사 등록비와 변호사 비용 등등을 포함한 기타 경비

6) 법인 유효기간

법인 설립 시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법인 유효기간은 무한하다.

7) 회계상 필요조건

법인은 영업 행위의 수입 지출과 관련된 주 장부인 회계장부를 스페인어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특별히 외화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지화 기준으로 기장, 정리해야 한다.

과세 부과 기준은 외화로 정해질 수도 있지만 해당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당시 환율로 환산하여 현지화로 납부해야 한다.

주요 회계장부로는 STOCK BOOK, TRIAL-BALANCE BOOK, DAY-BOOK, LEDGER, WAGES & SALARIES PAYROLL BOOK, MINUTE BOOK 등이고 이상의 회계장부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증 확인이 요구되고, 특히 종업원 급여에 관한 장부인 PAYROLL BOOK의 경우는 페루 정부 노동부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

외국 기업의 페루 내 지사 설립의 경우 자유로운 편이지만 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서류에는 페루 내의 주소, 지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지사의 법적 대리인 지명, 지사의 영업 형태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동 회사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로 주재 페루 영사에 의해 확인된 증명서, 기타 국가에서 지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 및 페루 내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 모회사 측의 결정문 등도 포함해야 한다.

나. 투자 진출을 위한 수속 절차

1) 납세번호(RUC) 등록카드

법률에 의거하여 페루국세청(SUNAT)은 고유업무 가운데, 납세자등록서의 등록을 입증하는 각각의 증명서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자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등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 공증등록 절차를 받은 회사의 법인서류: 정관, 자본납입증명서 등
- 페루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일정 양식서

2) 투자관련 정부기관에 외국인 투자 등록

회사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은 페루 투자관리청 Proinversión에 등록해야 한다. 합작투자 및 기타 협력형태에 의한 것인 페루업체와 계약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Proinversión에 등록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UNIFIED REGISTRY

상업, 제조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다른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제 부문의 모든 개인이나 법인체는 UNIFIED REGISTRY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항목이 모두 기재된 UNIFIED REGISTER 양식(동 양식은 BANCO DE LA NACION 은행에서 입수할 수 있음)
- 등기소의 확인을 받은 법인등기서 사본
- 종업원 급여대장

4) 주소지 소재 시·구청의 영업허가서

동 허가서는 상업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계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의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 페루투자관리청 Proinversión

- 주소: Paseo de la Republica 3361, Piso 9, Lima, Perú
- 전화: (51-1) 612-1200
- 팩스: (51-1) 221-2941
- <http://www.proinversion.gob.pe>

라. 투자 방식

페루에서 외국 회사 투자 방식은 단독이거나 합작이거나 우선 Proinversión에 등록해야 하며 수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준비

외국인이 현지인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할 경우나 외국인 2인 이상이 투자할 경우 외국인은 반드시 각각 2만 5,000달러씩 은행 예치금을 준비해야 하고, 현지인은 예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식은 반드시 공동 분배해야 하는데 외국인 99%, 현지인 1%로도 분배 가능하다. 부득이한 경우 현지인이 1%이지만 주식보유 권리로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공증

법인 서류, 설립 계약서, 자본금 입금 증명서, 여권 혹은 영주권 등 관련 서류를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야 한다.

3) 납세번호(RUC) 등록카드

법률에 의거하여 페루국세청(SUNAT)은 고유업무 가운데, 납세자등록서의 등록을 입증하는 각각의 증명서를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납세자 등록업무를 실시한다. 납세자등록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요구된다.

- 공증등록 절차를 받은 회사의 법인 서류: 정관, 자본납입증명서 등
- 페루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일정 양식서

4) 투자관련 정부기관에 외국인 투자 등록

회사 자본금으로 볼 수 있는 외국인 투자액은 페루 투자 관리청 Proinversión에 등록해야 한다. 합작투자 및 기타 협력형태에 의한 것이든 페루업체와 계약적으로 이루어진 외국인 투자의 경우도 CONITE에 등록해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 UNIFIED REGISTRY

상업, 제조업 또는 여하한 형태의 다른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경제부문의 개인이나 법인체는 UNIFIED REGISTRY에 등록해야만 함.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항목이 모두 기재된 UNIFIED REGISTER 양식(동 양식은 BANCO DE LA NACION 은행에서 입수할 수 있음)
- 등기소의 확인을 받은 법인등기서 사본
- 종업원 급여대장

6) 주소지 소재 시·구청의 영업허가서

동 허가서는 상업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며,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관계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의거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참고: 통상적으로 페루의 경우 관공서 업무가 매우 느리고 불합리한 처리가 많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

투자 절차

법인 설립 관련 제출 서류 → 변호사 공증 → 등기소 등록(SUNARP) → 국세청(납세 번호인 RUC 발급) → 시·구청의 영업 허가서 → 페루 투자관리청(Proinversión)에 외국인 투자 등록

마. 참고: 페루에서의 법인 및 지사 설립절차 法 요약

1) 법인 설립

□ 주식회사

- 설립형태
 - 출자는 주식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출자자는 주주가 되며 각 주주의 책임한계는 소유주식 금액에 해당한다.
- 명칭
 - 원하는 이름을 붙이되 주식회사의 약자인 S.A. 표기한다.
 - S.A.C.(closed) 와 S.A.A. (opened)의 두 형태가 있다.
- 자본금
 - 자본금은 기명 주식으로 표시되며 각 출자자의 불입금으로 이루어진다.
 -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최소한 약속한 자본금의 25%를 내야 하며 최소자본금은 없다.
- 주주: 주주 수는 S.A.C.의 경우는 최소 2명, 최대 20명까지며 S.A.A.는 2명 이상, 최대 한도는 없다.
- 설립: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며 두 가지 경우 모두 공증인 필요하다.
 - 여러 주주가 동시에 설립하는 경우
 - 자본금은 페루 내 은행구좌에 입금
 - 주주들은 변호사가 작성한 회사 정관에 서명
 - 서명 후 공증받아 해당 지역등기소(SUNARP)에 제출하여 등록
 - 주주를 모집해서 설립하는 경우
 - 회사설립자는 설립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공증 필(畢)
 - 공증 후에 해당 지역 등기소(SUNARP)에 제출
 - 가능성 있는 지분참여 신청인을 모집하기 위한 공고 실시
 - 신청인의 회의 장소, 일시는 프로그램에 정한 바에 따르거나 모집 공고에 표시한 대로 하되 임명된 사람은 회의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설립 공정 증서를 만들어 SUNARP에 등기해야 한다.
- 주식회사의 존립 기간: 한정 또는 무한정
- 주주의 자본금 불입
 - 자본금 불입은 자국화폐, 외화, 유형 자산, 무형의 기술 등으로 가능하다.
 - 무형자산의 경우는 유형자산의 형태로 표시되어야 하며 가치 평가를 위해 전문 서류, 설명이 필요하다.
 - 화폐 형태를 띠지 않은 자산은 이사회가 검토하고 승인 필요하다.
- 회사 조직
 - 주주 총회
 - 주주 모임으로 회사의 최고조직이다.
 - 주주는 소유주식만큼의 발언권을 가지며 모든 결정은 과반수 실시한다.

- 이사회
 - 이사회의 구성원은 주주 총회에서 선발하며 이사회는 해당 지역의 등기소에 등기한다.
 - 회사 정관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주주만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 가능하다.
 - 이사회의 구성원 수는 정관에 정하되 3명 이상이어야 한다.
- 경영자
 - 회사정관이 주주총회만 매니저를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는 한 이사회가 임명한다.
 - 정관이 정하거나 주주총회가 결정하여 복수 매니저 임명 가능하다.
 - 직위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무한정이나 정관에서 한정하거나 일정 기간 임명된 경우는 예외이다.
 - 매니저의 직무는 정관에 정하거나 임명 당시 결정한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행위와 계약 수행 권한을 보유한다.
- 배당금 지급
 - 회사 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이어야 한다.
 -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적립금이어야 한다.
 - 단, 자산이 자본금보다 많아야 한다.
 - 배당금은 주식액수와 회사에 주주로서 참여한 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 유한책임회사

- 설립형태
 - 자본금은 주식인 아닌 동일한 비율로 나뉜진 참가금으로 표시한다.
 - 참여금은 증권이 될 수 없다.
 - 동업자는 20명을 넘을 수 없고 동업자는 회사채무와 개인적으로 무관하다.
- 명칭: 회사명 뒤에 S.R.L.(Sociedad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약자)을 부가한다.
- 자본금: 자본참여금은 동업자 불입참가금(계약) 합계로 표시하며 25% 이상 불입한다.
- 경영진
 - 회사 경영에 1명 이상 매니저 임명 가능(꼭 동업자가 아니어도 됨)하다.
 - 회사 주요조직은 동업자위원회와 경영진으로 구성된다.
- 동업계약: 계약으로 법인이 형성되지 않으며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는다.
 - 참가(Participation)에 의한 동업
 - 컨소시엄(Consortium) 구성에 의한 동업
 - 합작투자(Joint Venture)에 의한 동업
-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에 불입을 하지 않고 서비스나 생산량 등 다른 형태로 회사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직접 투자로 간주한다.
- 회사설립을 위한 대략 소요기간
 - 변호사가 회사정관 초고 작성: 2일
 - 공증인이 초고에 의거해 정관 작성: 3일
 - 등기소 정관 등록: 15일

- 이사, 매니저, 위임자 등 등기소(www.sunarp.gob.pe) 등록: 15일
- 국세청(SUNAT: www.sunat.gob.pe) 사업자등록증(RUC) 발급: 1일
- 업종에 따라 필요한 특별 허가: 1~30일
- 해당구청 허가: 20일
- 회계장부 공증(스페인어, 현지 화폐 단위 sol로 표기): 2일
- 노동부(www.mintra.gob.pe) 직원 급여 대장(planilla) 등록: 5일
- 노동부 사무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판사가 공증
- 직원 수, 급여, 의무, 권리 등 표시
- 주주총회 회의록, 주식 등록, 이사회 회의록 등 공증: 2일

○ 국세청 주소

LIMA y CALLAO DIRECCION	
Lima - Washington	Jr. Washington N° 1898 esquina con Jr. Yauyos
San Miguel	Calle Intisuyo N° 215 - Urb. Maranga
Callao	Av. Sáenz Peña N° 286
Lima Cercado	Jr. Augusto Wiese N° 498 esquina con Jr. Miroquesada - Cercado
San Martín de Porres	Centro Bancario Fiori, Esquina Av. Tomás Valle y Panamericana Norte.
San Isidro	Jr. Juan de Arona N° 887
Santa Anita	Centro Bancario Santa Anita, 2do. piso, Esquina Av. Francisco Bolognesi y Av. Nicolás de Ayllón.
Surco	Av. Paseo La Castellana 101,103-105 y 107 (Óvalo Higuiereta)
Comas	Av. Túpac Amaru N° 1855 - Comas

□ 특별허가 필요업종

- 통제대상 물질 제조업
 - 무기, 화약, 탄약, 군경용품, 특별제한 대상 화학물질
 - 내무부, 국방부 등 해당기관에서 허가를 받은 뒤 생산부(Ministerio de Producción)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상업, 서비스 업종 중 일부
 - 살충제, 동물약품, 사료: 보건국(SENASA) 허가 필요하다.
 -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 동물: 농업부 허가 필요하다.
 - 경비 서비스: 내무부 허가 필요하다.
 - 농업 살충 서비스: 보건국(SENASA) 허가 필요하다.
- 관광업
 - 여행사: 관광청(Dirección Nacional de Turismo)에 신고한다.
 - 숙박업: 관광청에 등급 신청한다.
 - 카지노: 해당 법규가 요구하는 구비조건 갖춰야 한다.
 - 슬롯머신: D.S.009-2002-MINCETUR 법의 요구사항 지켜야 한다.
 - 식당: 공식등급(포크 1-5) 부여나 관광식당 지정은 관광청에 신청한다.
 - 민박 업소: 010-95-ITINCI법에 따라 해당기관에 허가 신청한다.

- 국내 지역 간, 해외 육상 운송: 화물 운송, 여객 운송, 관광버스 등 종류에 따라 노선 허가, 영업 허가 발급을 교통 통신부에 신청한다.
- 농산물가공업
 - 농축산물 가공: 농업부 허가
 - 축산업: 보건국(SENASA) 허가
 - 식물살충제 생산: 보건국(SENASA) 허가

2) 지사 설립

- 설립 요건
 - 페루에 적(籍)을 두든 두지 않든 페루에 지사 설립 시 등기소에 등록한다.
 - 본사와 독립된 법인으로 존재 불가능 하다.
 - 본사 인정범위 내에서 독립활동 가능하다.
- 지사 설립정관에 들어갈 내용
 - 본사의 유효 증명, 본사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유효 증명 외에 본사의 정관에 지사 설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회사정관에 해당하는 본사 주재국이 발행하는 서류의 사본, 본사가 지사 설립에 동의했다는 내용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지사의 자본금
 - 지사업종. 이 업종이 본사정관에 본사업종으로 등록돼 있다는 진술서
 - 지사 주소
 - 페루 국내에 거주할 최소 1명의 법적 대표자 임명, 위임장 필요
 - 지사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무는 페루법에 따른다는 진술서

3) 공장부지

- 현재 페루수도인 리마에서 공장설립이 많은 곳은 Chorrillos, Santa Anita, Villa El Salvador, Ate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 2007년 기준 리마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토지거래가격은 세금을 포함하여 US\$ 143/1 ~ US\$ 190/1평방미터이고, Surquillo나 시내 중심의 거래가격은 US\$ 357 ~ US\$ 476/1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
- 또한 토지임대가격은, 북부지역 US\$ 1.31 ~ US\$ 1.79/1평방미터이고, Surquillo나 시내 중심의 거래가격은 US\$ 4.17 y US\$ 8.93 /1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
- 산업단지의 토지 평균거래가격이 2007년 대비 10~20% 증가하였고, 2008년에 현재 가격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가격 상승은 토지거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페루 경제의 고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주거지와 상업단지도 같은 거래가 상승의 결과를 초래한다.
- 현재 리마의 중심지역인 Chorrillos지역은 상업지역인 Miraflores와 San Isidro로의 편리한 접근성 때문에 공장설립이 가장 빈번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리마의 북부지역으로는 Ate지역이 신규 설립사로부터 선호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치안문제엔 취약함이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6. 투자입지여건

페루에는 특별히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자유무역지대인 SETICOS 지역에 일부 업체가 입주하여 있으나 수입 중고자동차 수리, 변형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이 대부분이며, 생산제품을 전량 수출에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이 입주하여 있을 뿐 우리 개념의 산업단지는 전무하다. 그러나 고용 창출과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해 지방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별도의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어 향후 산업 공단이 조성될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7. 노무관리

가. 고용

페루에서 특별한 고용절차는 없으나 광고, 전문인력 공급기관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고 현지 노동법규에 맞는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직원 채용광고를 내면 많은 지원자가 몰려 비교적 양질의 노동력을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페루인의 심성은 매우 온순하고 고용주에게 충실한 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단 금전 이해관계가 걸릴 경우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강하다.

나. 임금

단순 노동자의 임금은 150~300달러 정도 내외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전문직종의 급여는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00~5,000달러 정도로 현지 소득수준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현상을 보인다. 대졸 초임사무직 임금은 평균 600~800달러 정도이나 직장이나 직종에 따라 많은 격차가 있다. 최저임금은 S./550(약 185달러) 정도 수준이나 가이드라인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체 근로자의 45% 상당이 최저임금 수준 이하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현지 노동법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융통성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은 직원을 정식 고용하는 것보다는 임시로 고용하고 자주 직원을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미국이 미국-페루 FTA 승인 관련, 페루 노동시장 기준을 더욱 높이라는 요구를 해옴에 따라 앞으로 노동자 편향적인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 인력

다른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숙련, 반숙련 노동자를 구하기는 용이하나 전문인력을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편,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많은 인력이 서비스업에 몰리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 최근 노동시장 현황

일반적으로 페루 노동자는 생산성에 비하여 급여를 많이 받는 국가에 속한다.

20인 이상 노동자가 있는 기업의 경우 약 85% 이상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어 임금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기업 측에서는 생산성보다 높은 고임금구조 하에서 정규직 직원 채용을 줄이고 임시직 채용을 증가시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구조로 인해 노동시장 안정성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은 핵심부서와 관리자급에서만 정규직을 채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임시직으로 충원하고 있어 높은 실업률 못지않게 임시직 노동자의 생활안정에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勞組는 기업 사용자 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 자주 파업을 일으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을 야기시켰다. 그러나 최근 실업률이 높아지고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노동 시장조건이 악화되자 파업을 일으키는 횟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마. 단체교섭 및 중재

기업은 노조 또는 노동자 50%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금, 노동자 근로조건 등을 협상해야 하며 최저임금(2008년 8월 기준: 550.00 Soles)이하에 대한 노동조건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단체교섭은 통상 1년이 적용되나 상호간 협의에 의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단체교섭이 결렬되었을 경우 정부 또는 관계기관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 측과 노동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중재위원회 선임을 위하여 5일 간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중재에 의해서도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는 파업을 할 수 있다. 사기업인 경우 최소 5일 전에 사용자 및 정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 기관은 10일 전에 Strike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정부에서는 3일 이내 Strike가 합법과 불법 여부를 점검하며 불법 Strike인 경우 금지된다. 또한 사용자 측은 Lockout(직장 폐쇄)로 노동자와 맞설 수 없으며 이 경우 Lockout은 불법이다.

노조는 정부로부터 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Strike의 경우 노조원 1/5의 서명을 다시 받아 불비한 요건을 갖춘 후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노동자가 최소한의 노동을 제공해야 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의료와 관련된 응급실, 전기, 용수, 석유, 교도소, 통신, 사법행정, 방송, 쓰레기 수거 및 공공과 관련된 기타 분야

바. 대표적인 노동조합

전통적으로 페루는 사회 속성 자체가 자본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알란 가르시아 현 정권의 속성도 그러하며 이에 따라 많은 노동자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 페루노동자연합
 - 좌익의 대중혁명연합이 결성한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섬유노조와 운송조합 노조가 있음.
- 페루노동자 총연합(CGTP)
 - 광산주의 계열로 광산 및 철강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건설 노조 및 금융 노조 등과 연합하고 있음.

- 페루 교육자 연합
 - 교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공산주의 계열
- 공기업 근로자 연맹
 - 국가 공기업 종사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사회적 파장효과가 가장 심각함.
- 국가 노동자 연합
 - 정치 세력에 속하지 않은 노동조합으로 각 기업 단위 소규모 노동 조합 연합체

사. 근로일수(시간) 및 휴가

노동법 677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매월 고정된 급여를 제공해야 하며 1개월의 기준일자는 30일이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파업은 일수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지만 개인병가, 회사에 의한 교육, 자녀 생일을 전후한 time-off, 노동조합장에 의한 합법적인 time-off, 회사 측에 의한 time-off는 노동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휴가는 30일 이상은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가 휴가를 가지지 못하였을 경우 자·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기업가 측은 보상해야 한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휴가 보상금은 휴가 1일당 3배의 일반 영업일 임금이다. 다만, 휴가 30일 중 15일은 사용자 측이 노동자와 협의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다.

노동법 854조에서는 주간 노동일수를 48시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맞춰 정규노동 시간을 초과한 노동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아. 급여 이외의 근로자 복지 및 수당

사용자측은 근로를 제공하는 노동자의 연간 급여총액 중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공제하여 Social Security에 적립하고 총액의 2%는 Solidarity tax에 적립해야 한다. 연간 총액 급여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보너스, 각종 수당, 급식보조비 등 모두를 포함하며 연말 인센티브 개념인 Profit sharing는 제외한다. 노동자에게 강제되는 의료연금에는 2가지 방안이 있다. 첫 번째는 연간 급여총액의 10%를 공제하여 국가 의료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급여총액의 8%를 사설 의료연금에 가입하고 4%는 국민연금관리 공단(Primas de Seguro)에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사용자 측은 4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4년 급여 총액의 최소 1/4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life insurance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8세 이하의 노동자는 야간작업이 불법이고 12~14세 노동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당 33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지 못한다. 초과근무는 일일 7시간이 최대이며 초과근무 시간이 4시간을 넘어설 경우 초과근무 수당은 없어지며 새롭게 근로한 1일로 간주한다. 초과근무 수당은 평상시 근로 임금의 125~150% 수준에서 지급하지만 양측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초과근무 수당으로 첫 2시간은 25%, 그 이후부터는 35%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페루 노동법에서는 최소 보너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7월 및 12월에 최소한 월 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연간 최소 200%의 보너스 지급 의무화)

자. 해고 및 구조조정

노동자의 생산성이 평균에 비하여 현저하게 뒤지거나 정신적인 결함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해당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또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가 비행, 절도, 사기, 약물남용, 폭력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였을 경우 당연히 해고할 수 있다. 해고 시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해고 예정인 노동자에게 통보가 곤란할 경우가 있더라도 최소한 6 영업일 이전에는 무조건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무효이다.

급속한 기술 개발 및 발전에 의해 사용자의 의도하지 않는 노동자 해고(구조 조정)를 위해서는 노동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해고 여부를 문의해야 하며 노동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검토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노동부 의견을 노동자가 거부하여 재접수했을 경우 노동부는 다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결정하고 동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8. 조세제도

가. 영업세

페루의 영업세는 부가가치세(IGV: 또는 일반 판매세, 다른 중남미국가에서는 IVA라고 하기도 함)로서 페루 내에서 재화 판매, 서비스 공급 및 이용, 건축 계약, 건설 회사에 의한 최초 부동산 매각 및 수입제품 등에 대해 부과한다. 부가가치세율은 원래 17%이며, 이외에 도시진흥세 2%가 더해져 총 19%이다.

한편, 재화 및 서비스의 구입 및 수입 시 또는 건축계약서에 근거하여 지불된 부가가치세는 총 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 소득세

페루의 소득세는 개인 및 기업 국적 또는 소득원에 관계없이 페루 거주 납세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으나 페루 국적의 개인 또는 사업체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동 세금이 부과된다.

사업체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된 이득에 대해 부과될 뿐만 아니라 매 사업 연도 말 현재 계산되는 물가상승에 따른 이득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특히 1994년부터는 배당금을 비롯하여 기업의 이윤분배에 따라 발생된 여하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를 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

1) 거주 납세자

사업체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경우는 연간 총 소득 규모에 대해 다음의 2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총 소득수준이 54UIT 미만일 경우 15%, 54UIT 이상일 경우 30%이다.

- UIT는 조세 단위로 1 UIT는 2009년 기준 3,550솔(S/.) = US\$ 1,200 수준임.

2) 非 거주 납세자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 로열티: 10%
- 자동차 및 항공기 리스 (LEASE)로 발생하는 소득: 10%(자동차의 경우 순소득 80%, 항공기의 경우 순소득 60% 이상에 대해)
- 페루 내에 설립된 은행 및 금융회사가 해외에 지불한 이자 중 외국금융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소득: 1%
- 기타 소득: 10%

국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개인은 페루 내에서 행한 개인적 서비스에 대해 발생한 급료, 보상, 로열티 및 기타소득에는 30%가 적용된다. 2001년도부터 재투자분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3) 참고 사항

페루 정부는 2002년도부터 중간소득자의 소득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 소득세를 27UIT 미만, 27~54UIT 미만, 54UIT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15%, 21%, 27%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법인 소득세 중 재투자분에 대해서도 과도정부가 20%의 특혜세율을 적용했던 것을 27%로 상향 조정 부과할 계획이다.

다. 순자산 특별세

페루 국내거주 사업체는 이윤을 발생시키든 않든 간에 순자산의 0.5%(종전의 2%→1.5%에서 재차 하향 조정 됨)에 해당하는 순자산특별세(종전의 최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1997년 5월 4일부로 발효된 법률 제26777호에 따르면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가 신설된 반면에 최저소득세가 폐지되었다.

1991년 12월 28일 제정된 페루의 최저소득세에 관한 법률 제25381호에 따르면 당해 회계연도 기간 중 적자를 기록한 법인체만을 대상으로 순자산의 2%를 최저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최저 소득세제는 소득세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소유권을 위배하는 제도로 비난을 받아 왔다.

현재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는 모든 법인체를 대상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12월 31일자 대차대조표에 따라 순자산에 대해 0.5%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저소득세를 대체한 신규 특별세는 외국의 투자진출업체, 외국기업의 지사 및 기타 페루에서 지속적으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유발하였는데 이는 동 신규 특별세가 외국기업이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국에 납부한 소득세를 상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997년 6월 18일에는 동 특별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제26777호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페루 내 법인은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였으며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는 분할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1998년도의 경우 5월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세 선납부금에 대해서는 실제 납부액을 상계할 것이며 6월부터는 신 특별법에 대해 적용된다.

이는 이미 납부된 소득세가 순자산에 대한 특별세에 대해 상계될 것이며, 페루 내에서 납부된 모든 소득세가 투자자의 본국에서 납부된 소득세에 대해 상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의 업체들은 순자산 소득세 납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체 설립 후 1 회계 연도 이내의 생산업체
- 청산 중인 업체
- 1998년 12월 12일 이전에 자본확대를 시도하는 숙박업체
- 공업식 농장을 제외한 농산물 생산업체, 목축업체 및 임업업체
- 합병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기업합병에 의해 흡수된 업체

라. 참고: 페루의 조세제도 상세내역

1) 소득세

납세자 국적, 회사 주소, 설립 장소에 상관 없이 1년에 한 번 신고함. 페루 국내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회사라도 페루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해야 함. (Decreto Supremo 179-2004-EF)

- 등급
 - 1종: 임대, 재임대 등으로 발생한 소득
 - 2종: 다른 자본의 소득
 - 3종: 상업, 공업, 그 외 법에서 규정하는 업종
 - 4종: 자유영업자(free lancer)
 - 5종: 고용노동자, 그 외 법에 규정된 독립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율
 - 국내 거주자
 - 법인의 경우 순소득에 대해 30% 내고 그 외에 경비 처리된 금액의 4.1%를 냄. 뒤의 경우 직접 소득이 아니므로 세무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소득의 금액에 따라 세 가지 등급
 - UIT(*) 27까지 15%
 - UIT 27 이상부터 54까지 21%
 - UIT 54 이상 30
 - 2007년의 UIT 값은 S/3,450.00(약 1,088달러)
 - 카지노, 슬롯머신 업소는 추가로 순소득의 12%를 더 내되, 매월 매상의 1%씩 원천 징수(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
 - 배당금, 그 외 법인이 이익배당의 성격으로 받는 소득에 대해 4.1% 원천징수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해외 대출의 이자: 4.99%이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금 대출일 경우 현금이 국내의 은행을 통해 송금됐다는 증빙 서류
 - 이자가 발생하는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자율을 넘어서서 연간 이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3% 추가
 - 국내의 은행, 금융 회사들이 해외에서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이자: 1%
 - 법인에서 수령한 배당금 또는 다른 형태의 이익 배당금(원천 징수)
 - 이익금을 주식으로 받을 때, 재평가로 발생하는 차액, 그 외 자산 계정은 배당금이나 이익 배당으로 간주되지 않음.
 - 로열티 30%, 기술 자문 15%, 그 외의 소득 30%
 - 해외의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위 설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
 - 국내 회사가 경제 연관이 있는 해외 회사에게서 대출을 받았을 때 납부하는 이자(위 설명된 경우 예외)
 - 자연인이 수령하는 급여, 연금, 배당금, 그 외의 소득에 대해 30%
- 페루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소득(양식은 www.sunat.gob.pe에서 교부)
- 외국인이 페루에 거주하는 동안 소득이 발생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 출국 시 출입국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2명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회사나 기관에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각 사에서 증명서를 떼야 함)
 - 소득세, 원천 징수 증명서(양식 번호 1492)
 - 고용주, 소득 지불자가 발행. 발행날짜로부터 30일간 유효하며 동일인에게 마지막으로 발행되고 사용된 증명서의 발행 날짜 기입
 - 온라인 SUNAT에서 발행되는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양식번호 1692)
 - 고용주, 소득 지불자가 발행, 서명. 자동 발행되며 서명만 하면 외국인 사용 가능
 - 외국인 필요에 따라 원하는 장수 인쇄 가능
 - 유효기간은 SUNAT을 통해 제출된 날짜로부터 30일
 - 마지막으로 발행된 증명서와 새로운 증명서가 발행되는 사이의 기간을 명시해야 함.
 - 전에 발행된 증명서가 없을 때에는 그때까지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고 간주함.
 - 증명서는 발행된 날짜로부터 최대한 12개월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발행함.
- 다음의 경우에 외국인들은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을 지불하는 회사가 국내에 주재하지 않아서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을 경우
 - 서식 번호 1494(세금 직접 납부 진술서)와 함께 영수증 사본을 제출
 - 예술가, 종교인, 학생, 고용인, 독립, 이민비자로 입국하고 페루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을 했을 경우 서식번호 1495(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함.
- 아마존 지역의 소득세
- 아마존이라 함은 27037법에 명시된 Loreto, Madre de Dios, Ucayali, Amazonas 도와 그에 부속된 지방을 지칭
 - Decreto Supremo 103-99-EF에 의해 규정된 소득세 특별법은 납세자의 주소, 등기소 등록, 그의 자산과 생산의 70%가 아마존 지역 내에 있을 경우에 해당
 - 다음의 활동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3종 소득세를 10% 납부
 - 임산 추출, 농업, 양식, 수산, 관광
 - 상기 업종에서 생산하는 1차 상품의 변형, 가공과 관련된 제조업과 그의 유통업. 예외의 경우로 Loreto, Madre de Dios, Coronel Portillo의 Iparia, Masisea, Ucayali의 Atalaya, Purus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3종 소득세 5%를 납부함.
 - 아마존 토산품 재배나 가공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소득세를 면제받음.

- 전항의 토산품은 yuca, soya, arracacha, uncucha, urena, palmito, pijuayo, aguaje, anona, caimito, carambola, cocona, guanabano, guayabo, marañón, pomarosa, taperibá, tangerina, toronja, zapote, camu camu, uña de gato, achiote, caucho, piña, ajonjolí, castaña, yute, barbasco, algodón, áspero, curcuma, guaraní, macadamia, pimienta 등임.
 - 기름 추출용 야자, 커피, 코코아의 경우 면세는 재배업자에게만 해당되고 아마존 지역 가공업자는 10%의 3종 소득세를 납부함.
 - 사회 자본과 운송업 종사자는 5%를 납부함.
 - 아마존 지역에서 상업 활동을 하면서 순소득의 30% 이상을 투자 프로젝트에 재투자 하는 회사들은 3종 소득세 10%를 납부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밀림 지역 투자 프로그램에 따라 소득세 부분에 다음 혜택을 받음.
 - 프로그램 실행에 투자된 금액의 5%를 소득세의 credit으로 받음.
 -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받음. 투자를 해서 올린 소득에서 손실을 공제하고 남은 순소득의 20%까지 가능
 - h. Loreto, Madre de Dios, Coronel Portillo의 Iparia, Masisea, Ucayali의 Atalaya, Purus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5%를 납부함.
- 조세 안정성: 정부는 계약에 의해서 투자의 최소 조건을 충족시키는 투자자와 투자를 받아들이는 회사가 세제 보장, 법률 보장의 혜택을 받도록 하며 광업, 석유 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진흥 제도가 있음.
- 이중 과세 방지 협약: 페루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스웨덴, 캐나다, 칠레와 맺었으며 안데스 공동체(Comunidad Andina) 회원국 간에 이루어지는 투자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방지규정 적용(안데스공동체 결의 578호 적용)
- 국제 조세: 조세회피지역(Paraisos fiscales)을 통해 행해지는 거래와 대체금액 적용을 규정하기 위한 규정이 소득세법에 추가
- 부가가치세(I.G.V. Decreto Supremo No. 055-99-EF): 모든 매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세자는 매출과 매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차액을 SUNAT에 납부함.
- 적용 대상: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과 서비스의 소비
 - 동산(動産)의 매매
 - 국내에서의 서비스의 제공, 이용
 - 건축 계약
 - 부동산의 건축자가 부동산을 처음 팔 때
 - 물품의 수입
 - 부가가치세율: 고유 부가가치세 17% + Promocion Municipal 세 2% = 19%
 - 非과세 및 면세
 - 비과세
 - 물품의 수출
 - 법에 명시된 서비스의 수출
 - 회사의 구조 조정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이체
 - 회사 활동을 하지 않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행하는 중고제품 이체
 - 부동산 또는 다른 형태의 양도(단, 1종, 2종 소득세 부과 대상일 때에 한함)
 -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물건을 소비를 위해 통관하기 전에 거래할 때 CIF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면제

- 아마존 지역의 납세자들이 다음의 거래를 할 때
 - 아마존 지역에서의 소비를 위해 같은 지역에서의 물품의 매매
 - 이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건축 계약, 부동산을 건설한 업자가 첫 매매를 할 때
 - Loreto, Ucayali, Madre de Dios 지역에 위치한 회사들이 같은 지역의 소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매출
 - 면세
 -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법 Apendice I과 II에 규정된 거래
 - 국경지역에 위치한 공업 회사들
 - Ilo, Matarani, Paita의 CETICOS에서 설립된 회사
 - 사전 환급제: 수출할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이 수입을 하거나 국내에서 매입을 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매출에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되나 아직 상업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해 주는 제도
 - 환급은 매입한 날짜로부터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의 credit이 떨어지지 않을 경우 N (Notas de Credito Negociables)를 발급 받아 이루어짐.
 -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4 UIT
 - 정부와 자원 개발 계약, 공공 시설 건축 계약 등을 맺은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물품, 서비스, 건축 계약 수입이나 국내 매입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 특별소비세(I.S.C.(Decreto Supremo No. 055-99-EF): 특별소비세는 담배, 알코올 음료, 청량 음료, 생수, 사치품, 연료, 카지노 등에서 생산 단계와 수입 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품목에 따라 0%, 2%, 10%, 17%, 20%, 30%, 125% 부과
 - 특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
 - Loreto, Ucayali, Madre de Dios 지역 내에서의 소비를 위해 이루어지는 매출
 - Ilo, Matarani, Tacna, Paita의 CETICOS내에 설립된 회사

2) 금융거래세(I.T.F.: 새로운 개정법에 포함): 각종 금융거래 시 입출금을 막론하고 발생하는 세금

- 금융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 한 명의인의 구좌 사이에 이루어지는 입출금
 - 급여, 연금, 퇴직금 등이 입금될 때
 - 국내의 외교관, 국제 기관의 구좌

3) 임시자산세(ITAN: 새로운 개정법에 포함): 3종 소득세 과세 대상자로서 과세연도의 1월 1일 전에 활동을 시작한 모든 납세자에 해당(납부된 ITAN세는 소득세의 credit으로 이용 가능)

- 아직 활동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과세 연도의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납세자, 사립 교육 기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단체는 면제
- 종가세(Ad Valorem): CIF 가격 기준 0, 4, 5, 12%이나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4, 12, 20%에 각각 5%를 가산함.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페루의 외환관리기관은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이다. 원칙적으로 환율제도는 외화의 수급에 의한 자유외환시장 환율결정 기능을 골자로 하고 환율의 과다한 등락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Dirty Floating System을 운용하고 있으나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고 외환시장의 자유경쟁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미화 약세로 페루 Nuevo Sol화가 지속적인 평가절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중앙은행은 외환관리제도를 대폭 자유화하여, 국내 거주 내외국인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외화예금 구좌 개설 허용, 내국인의 외화송금 및 해외반출의 용도제한과 금액한도 폐지, 중앙은행허가제에서 일반 외환업무 취급은행으로의 외화 송금 업무 허가권 이양,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원금 및 과실송금의 100% 허용 등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외환 자유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가치 보존수단으로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여 자국화폐의 기능 상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인 주식 소유자 및 투자자의 배당소득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시장환율에 의해 해외 송금이 가능하며, 배당소득에는 10%의 주식배당세가 부과된다. 외국인투자 및 기술 위원회(CONITE)에 등록된 경우 로열티 및 수수료의 지급이 허용되며, 로열티 지불액에 대해서는 28%의 로열티세를 원천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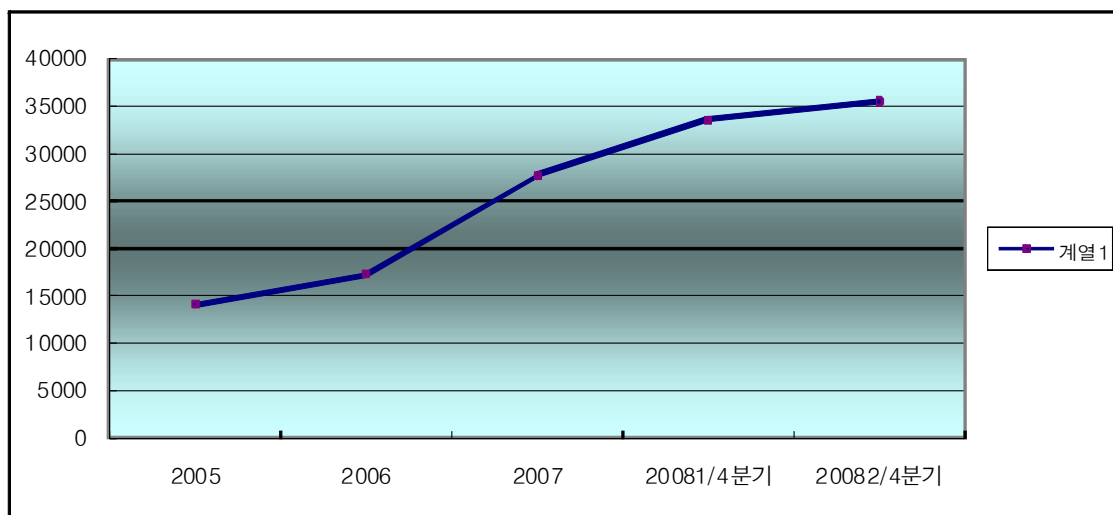
외국으로부터 차관도입은 중앙은행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도입차관의 원리금 상환에는 제약이 없으며 금융기관을 통해서 시중환율로 이루어진다. 투자원금의 본국회수 시에도 Comité에 정식 등록된 외국인 투자인 경우 별다른 어려움 없이 허가해 주고 있다.

페루의 외환시장은 마약원료인 코카인 거래대금, 외국인 투자자금 및 페루의 금리변동에 따른 단기성 유입 달러, 휴가 시즌 등 외환 급증시기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페루는 80년대 및 90년대 극심한 외환위기를 벗어나 최근에는 파리클럽의 채무를 조금씩 조기 상환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보유현황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페루 중앙은행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1) 소량 다품종 주문시장

기본적인 생필품을 제외한 일반 상품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소량 다품종 주문이 일반화되어 있다. 때문에 한국의 최소 주문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페루시장 개척 시 한국의 최소 주문량 수준을 현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높은 수입의존도

페루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 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과거 제조업체도 수입품과의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수입업체로 전환하는 등 수입시장이 지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3) 단순한 유통구조

매년 수입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유통구조도 단순한 경로를 보이고 있는데 페루와 같이 협소한 개도국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수입상에서 곧바로 최종 소비자 판매점인 2단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수입상이 도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4) 가격 우선 시장

중국산 저가 공산품이 다량 수입되며, 국민의 다수가 저소득 인구이므로 저가 제품 선호 경향이 매우 강하다.

나. 대금 결제 조건

1) 외상거래 일반화

첫 거래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할 정도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외상거래 제의를 무조건 배격하기보다는 바이어 신용, 규모, 신뢰성 등을 감안하고 거래를 몇 차례 경험해 본 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최근 수출대금 미결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외상 거래 전 신중한 주의가 요망된다.

2) 높은 금융비용

페루 기업의 신용도가 낮고 과거부터 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 의 신용도 등에 따라 상이하지만 금융기관에서는 신용장(L/C)금액의 90~120%를 담보로 요구하고 20~30%의 이자율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L/C를 통한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3) 첫 거래 시 참고사항

신용도가 떨어지는 바이어가 첫 거래부터 외상거래를 요구할 경우 과감하게 배격할 수 있다. 하지만 중간 정도의 신용도를 가진 바이어가 외상거래를 요구할 경우 각 기업에 따라

입장이 상이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외상거래가 어렵다는 점을 말해 양해를 구하고 T/T 거래로 상호 간 신뢰가 쌓인 이후에 논의하자는 방향으로 유도함이 바람직하다.

다. 시장개척 시 유용한 Tips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사람들은 서류로 인한 거래보다는 직접 대면을 통한 인간적인 교류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기적인 방문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 시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를 성약시키려는 태도를 지양하는 편이 낫다. 관심이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나타내 보이며, 수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적극 대처할 경우 좋은 이미지로 비쳐져 주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 서신 발송 시 수록할 내용

바이어에게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할 경우 첫인상이 중요하므로 공문 내용을 주의 깊게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으며, E-mail을 사용할 경우에도 팩스로 사본을 재송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E-mail 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스팸 메일로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수출업체의 경우 대부분 첫 공문에 인사말, 회사소개서만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바이어가 관심이 있는 경우 회신해 달라는 사례가 많이 있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첫 공문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정보(특히 가격)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많다.

페루의 바이어는 수출업체로부터 부족한 내용의 첫 공문을 받고 추가 회신을 하기보다는 가격조건, 품목별 가격리스트 등 완벽한 정보 입수를 원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있더라도 처음 공문에는 FOB, CIF 기준의 수출가격 모두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 페루의 상관행

1) 상호 신뢰가 거래의 첫 조건

페루 바이어는 거래를 위해 무역회사보다는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가능한 생산업체와의 접촉을 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초기단계에 소량주문의 형태를 취하면서 생산업체의 약속 이행 여부, 품질 준수 여부 등 거래의 기본요소들을 점검한 후 신뢰가 쌓이면 주문량을 늘리는 관행을 보인다.

페루나 한국이나 모두 high context 문화권에 들어가는 시장으로 미국이나 독일, 게르만 민족에서 볼 수 있는 지극히 사무적이고 간략한 핵심사항 위주의 비즈니스 추진보다는 개인사, 가벼운 화제 등을 곁들인 다변의 상담이 더욱 효과적이다. 따라서 인간적인 친밀감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가능한 한 현지방문을 통한 직접 대면 상담이 권장된다.

2) 간단한 스페인어 회사소개서

설립 연도, 회사 규모, 직원 수, 매출액, 현 거래처 등 기초적인 회사 소개서 정도를 스페인어로 작성할 경우 바이어와 상담성고가 배가 될 수 있다.

3) 거래조건 완화 필요

수출자 입장에서는 At sight L/C거래가 바람직하지만 리마 관행상 D/A, D/P, T/T 거래가 보편적이므로 at sight L/C 거래만을 고집하여 거래를 무산 시키기보다는 바이어 신용도를 확인하여 현지 관행에 맞는 거래조건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바람직한 접촉방법

많은 한국업체가 미숙한 접촉방법으로 인해 거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이어 입장을 고려한 접촉방법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바이어에게 제품검토를 요청할 경우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각종 거래조건, 제품설명서, 샘플 등 제품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한 후 거래 희망여부를 팩스, 전화, e-메일 등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리마 바이어는 e-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e-메일을 보내더라도 팩스 또는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5) 조급함은 금물

페루인들은 계속해서 독촉할 경우 반감을 가지므로 1~2회 독촉 후 회신이 없는 경우 'NO'로 단정해도 좋다. 정확한 담당자를 알게 되면 관련자료를 송부한 후 회신이 없더라도 좀 더 기다리거나 우호적인 안부편지를 보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유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2. 물가정보

(1 US\$ = 2.85 Nuevo Soles / 2009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항목	가격 (Nuevo Soles)
식품류	쌀 1kg	3
	계란 12개	4.40
	쇠고기 등심 1kg	25
	돼지고기 등심 1kg	16
	우유 500ml	1.3
	식용유 1L	5.50
	생수 1L	2.5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5.9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6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10.50
	김치찌개 1인분	25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48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1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O, 몸살감기 내과초진)	3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 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37000
	무연휘발유 1L	2.5
	자동차 등록비	2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14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6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X
	시내버스 기본요금	1
	택시 기본요금	4
통신	시내전화 요금 (3분)	0.40
	국제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4.463
	휴대전화 요금 (월표준 1분)	0.28
	인터넷 월사용료 (ADSL 기준)	8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32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1800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3000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33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52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35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427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55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5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8시간
	출산휴가일수	3개월
	연간 국경일수	11일
	주5일 근무 여부	X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25

3. 바이어 발굴

페루에는 바이어를 발굴할 특별한 방법이나 요책이 없는 상황이다.

현지를 방문해 직접 잠재 에이전트나 바이어를 방문하면서 발굴하는 편이 가장 좋지만, 거리, 시간, 비용 등의 문제로 남미 방문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시장개척단, 세일즈 출장 등의 방법으로 KOTRA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소기업체에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리마 KBC는 연중 해외시장 조사대행, B2B e-Trade 사업, 사이버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바이어 발굴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차선택으로 아래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중남미 바이어의 특성상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것과는 시장개척 효과 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가. 오프라인 발굴방법

1) 각종 협회

- Camara de Comercio de Lima(리마상공회의소)
- Asociacion de Exportadores(ADEX, 수출진흥기관)
- 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SNI, 산업협회)

2) 기 타

- Pagina Blanca(전화번호부)

나. 온라인

1) 관련 정부 기관 홈페이지

- 페루 관세청(SUNAT)
- www.sunat.gob.pe

2) 각종 관련 기관 홈페이지

- 리마 상공 회의소(Camara de Comercio de Lima)
- www.camaralima.org.pe
- 수출협회(Asociacion de Exportadores : ADEX)
- www.adexperu.org.pe
- 수출진흥공단(Comision para la Promocion de Exportacion)
- www.prompex.gob.pe
- 무역협회(COMEX)
- www.comexperu.org.pe
- 산업협회(SNI)
- www.sni.org.pe
- Pagina Blanca
- www.paginasblancas.com.pe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벼운 인사말로 모임, 사무실 등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인사를 하며, 일단 눈이 마주치는 사람에게는 미소로 가볍게 인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여성들은 볼을 맞대는 가벼운 키스(베시또)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악수를 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무난하다.

남성은 여성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내릴 때, 사무실 출입을 하는 경우 여성들이 먼저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남성들이 비켜주며, 특정 모임에서 여성들을 먼저 자리에 앉히는 것이 기본적인 예절이다. 또한 페루인들은 출퇴근은 물론이고 점심시간에 잠시 사무실을 떠나 있다가 다시 만난 경우에도 언제나 서로 간에 인사를 주고 받는다.

식사 또는 음료를 마실 경우에는 소리를 내지 않으며, 식사 중 말을 해야 할 경우는 입 안 음식을 모두 삼킨 후 얘기를 꺼내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타인이 보는 앞에서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매너로 인식된다.

페루인들에게 선호되는 선물로는 태극문양이 새겨진 부채, 전통 의상의 남녀 인형을 비롯한 한국문화 및 전통을 나타내는 장식품을 들 수 있으며, 이 외에 인삼차 등과 같은 인삼제품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밖에 한국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 열쇠고리, 지갑, 다이어리, 만년필, 시계, 메모수첩 등이 선물로서 무난하다.

페루인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분야이건 간에 서로 대화, 토의하는 것을 즐기는데 특히 국내정치, 경제상황에 대한 내용은 가장 즐겨 하는 화제 중 하나이며, 대화 상대방을 비교적 단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 사귀 친구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높다.

특히 비즈니스 모임 후에는 주점, 레스토랑 등에서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이루어지며, 스포츠, 영화 등의 문화적인 분야나 상호 자녀에 대한 이야기 등 가족관계 이야기를 주고 받는 것이 대화 전개에 무난하다.

축구, 배구 등 스포츠에 대한 대화를 즐기며 20년간 페루 여자배구 대표팀 감독을 맡아 현지에서 유명인사로 인식되어 있는 박만복 씨가 한국인임을 이야기하거나, CEBICHE(페루의 전통 수산물 음식) 또는 PISCO SOUR(포도를 원료로 한 전통 주류), 고대잉카문명의 유적지로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고 있는 CUSCO 등을 소재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평화협정체결, 국경분쟁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여 관계가 좋아지기는 하였으나 인접국 에콰도르, 칠레 등과는 역사적으로 관계가 좋지 않으며, 볼리비아와는 우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국보다는 한 수 아래인 나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대화를 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대부분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결혼과 관련된 사생활, 보수문제, 그리고 여성의 연령에 대한 이야기는 페루에서도 금기시되고 있다.

페루 시장은 대량소비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제품 주문에 있어서 소량 다품종 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시장진출 초기 1회에 대규모 주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첫 상담에서 샘플을 요구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중남미 사람들의 기질상 직접 대면을 통한 인간적 교류가 거래에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출장을 통해 바이어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중남미 사람들의 기질상 거래 시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거래에 있어서 단기간에 Yes나 No나 하는 식의 접근 방법은 피해야 하며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정도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끈기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대부분 중남미국과 마찬가지로 페루는 중산층 형성이 미진한 시장으로 전형적인 소량 다품종 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1회 주문량이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소

주문량을 제시하길 바라며, 바이어에 따라서는 시험주문(Test Order)을 해서 시장성을 타진한 후 본격적인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거래 시 이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제 조건과 관련하여 페루 바이어는 현지 은행의 까다로운 L/C개설 요건과 과다한 비용을 이유로 L/C 방식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중소 바이어인 경우는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T/T와 같은 간편한 방법을 택하려고 하나 안전성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양자가 안정적인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KBC에서 아래와 같이 지원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면 바이어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분할 송금 비율은 거래 케이스별로 적절히 조정 가능하다.)

- 계약 시 총 금액의 30% 송금
- 물품 선적 후 총금액의 40% 송금: KBC가 선적서류 수령, 바이어에게 도착 통보
- KBC가 바이어의 잔금 30% 최종 지불 확인 후, 선적서류 양도

아니면 계약 시 선금 50%, KBC가 선적서류 인도 시 50% 송금 방식도 소액 거래 시 자주 통용되고 있다.

소량물품 안경테, 프린터 잉크 등과 같이 중량이 적은 물품은 특사우편(DHL, TNT, EMS, FEDEX 등)을 사용하는데 바이어들에게 문의한 결과 현지 통관상 가장 용이한 것은 EMS라고 한다. 따라서 총 인보이스 가격이 2,0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정식 통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분할 선적이 가능하면 EMS를 사용하여 1주일 단위로 송부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FOB 금액이 5,000달러를 상회하는 모든 수입상품은 화학제품 등 일부 공업용 원료 및 의약품 원료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선적 전 검사를 받아야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개발도상국 특성상 전반적인 공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것을 감안한다면 물가가 비싼 편이지만 식품 조달 등 한국인이 생활하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현지인과 혼혈인 비중이 높아 중남미 국가 중에서 특이하게 동양인에 대한 차별도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기후는 주택위치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특히 수도 리마는 매연이 심하고, 주변 환경 이 사막기후여서 전반적으로 삭막하며, 겨울에는 햇볕을 보기 어렵다.

아직 전반적인 치안상태가 불안한 상황에 있으며 기업체 및 주택가에서는 사설 경비회사와 계약을 체결, 이에 크게 의존한다. 테러 및 범죄집단 활동이 주로 밤에 이루어지며 낮에는 이동 및 업무수행에 큰 위협을 주지는 않는다.

지역적으로 리마 시내 구 중심가는 밀수품 시장 등이 형성되어 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신변위험이 상존해 외국인의 경우 좀도둑, 강도 등의 표적이 되기 쉽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야간에 그러한 장소를 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강도, 납치, 살인 등 민생형 범죄가 항상 발생하므로 차량으로 수도권 외로 이동 시 주의를 요한다.

인디오, 메스티소(혼혈)등이 전체 인수의 상당부분을 차지, 동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성실하고 근면한 국민으로 생각해 호감을 갖고 있다. 후지모리 대통령의 방한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어 왔지만, 후지모리 前 대통령의 이례적인 외국(일본) 사임파동 이후 전반적으로 동양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또한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해서, 회사 설립을 위해 10단계의 행정절차 거쳐야 하며 이는 65일의 시간과 개인소득의 26%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W 사의 페루 자동차부품시장 진출 성공사례

□ 국내업체, KBC, 바이어의 삼위일체

W 사는 자동차 부품과 중장비 부품을 모두 수출하는 업체로 현재 약 7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페루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6 년 초였다.

W 사는 처음부터 페루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I 사에 접촉을 시도하였지만 만만치는 않았다. GM 정품만 수입하는 I 사는 현재 한국의 여러 업체들로부터 오퍼를 받고 있는 업체로, 거래 선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우선 바이어 측에서는 첫 면담에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이 전부가 아니었다. 국내에 오퍼하는 모든 업체에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내었으며, 동 바이어가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은 가격이었다. W 사의 가격은 다른 업체의 가격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이것이 첫 번째 난관이었다.

한국의 환율이 자꾸 떨어지면서 가격을 올려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타 업체가 계속해서 가격을 하락시키고 있던 것. 바이어 입장에서는 같은 GM 정품을 조금 더 싼 곳에서 수입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였다. 이에 W 사는 최선의 가격표를 선정하여 전달하였으며, 리마 KBC 도 꾸준한 접촉으로 설득하여 첫 번째 샘플 오더를 받아 내었다.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첫 거래이기에 송금 방식부터 약간의 생각 차이가 있었으며, W 사의 향후 거래를 위하여 바이어가 원하는 송금 방식을 수락하였다.

첫 번째 컨테이너가 선적되고 난 후 물건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며 I 사는 클레임을 걸었고, W 사는 하자가 없는 제품(모두 정품임을 강조)이라고 주장하였다. 리마 KBC 는 바이어와 상담하고 W 사를 설득한 끝에 하자 제품의 금액에서 50%를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타협을 보았고, 이후 정식으로 첫 오더를 따내었다.

사실상 2 번째 오더 건은 금액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으며, W 사는 금번만큼은 송금 방식을 모두 외상으로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동안 I 사는 꾸준히 거래하던 타 업체가 송금 방식을 바이어가 원하는 방식에 맞춰줘 꾸준히 거래를 해온 바, 바이어가 원하는 방식을 줄 수 없다면 거래를 취소하겠다고 반발하였다.

리마 KBC 는 사이버 상담회에 두 업체를 참가시켜 빠른 시일 내로 해결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바이어도 제품이 시급한 시기이며 2007 년도에는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해 들어 금번 오더분의 수량을 약간 줄이고 송금 방식을 W 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완결 지었다.

이후에도 W 사 제품가격만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내업체가 가격 상승을 고려하고 있어 차후에도 W 사와의 거래를 계속 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외에도 W 사는 현재 에과도르 등 다른 남미국가 바이어와 거래하고 있다.

나. M 사의 페루 콘택트 렌즈 시장 실패 사례

□ 인내심을 갖자

페루의 한 업체는 한국으로부터 콘택트 렌즈를 신규 수입 하기를 원하였다. 이때 한국의 M 사가 시개단을 통하여 동사와 접촉을 하고 수출을 진행하였다.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입 시 수입 허가가 필요하여 페루 업체가 시간을 지연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자 신규업체인 M 은 수출을 포기하였다. 이후 현지 업체는 타 한국 업체와 접촉하여 거래 중이나 본 사례를 통해 현지 시스템의 이해 및 수용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거주지

페루에서는 외국인 등록, 은행구좌개설, 보험 부보 등을 위해서는 주소지가 정해져야 하며, 각종 서류 제출시 살고 있는 집의 공과금(전화세, 전기세) 납부 영수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간신문에 매일 기재되는 임대 광고란을 보거나 전문부동산 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다.

세입자는 주인에게 통상 1~2개월치의 보증금을 지불해야 하며, 동 보증금은 계약파기, 집기물 파손 등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용되고 있다. 계약을 할 경우에는 집의 하자 여부를 정확하게 명시해야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집을 비워줘야 할 때 시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집기나 주택 상태의 훼손(못 구멍, 벽의 흠집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원상 복구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리마에서 이용 가능한 아파트의 월세 수준은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하나 20~30평을 기준으로 할 때 월 250~300달러 수준에서부터 외국인주거 선호지역의 2,500~3,500달러 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균으로 약 2,000~3,000달러 수준이면 최고급 대형 주택, 안전 지역에 위치한 집이나 아파트를 임차할 수 있다.

그러나 페루는 상시적인 물 부족 국가로 종종 수도물이 끊어지고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 물이 안 나오는 때도 있으며, 전기도 예고 없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실제로 수도물은 수도 파이프를 통해 각 가정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물차가 매일 와서 각 건물 물탱크에 물을 공급해 주는 경우가 많아서 정해진 때에 물차가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꿈쩍 없이 물이 떨어지므로 주의해야 된다.

지역에 따라 주거환경이 크게 다르나 주로 외국인이 거주하는 곳은 해안 쪽의 상업중심지 SAN ISIDRO, MIRAFLORES 등의 아파트 촌과 내륙 쪽으로 LA MOLINA, SURCO 등지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해안지역의 아파트는 상업중심지에 소재, 각종 편의시설에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보유한 반면, 습도가 높고 특히 겨울철(5~9월)에는 햇빛을 거의 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내륙 쪽에 위치한 주택가에는 상대적으로 일조량이 많다.

나. 교육

대부분의 한국인은 자녀를 인터내셔널 스쿨에 보내나 교육비는 매우 비싼 편으로 지명도가 높은 루즈벨트 학교의 경우 학기당 4,500달러 수준이 되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

그러나 현지인 학교는 교육비 부담은 적으나 스페인어로 교육하고 교육수준도 떨어지기 때문에 영어교육을 선호하는 한국인에게에는 적합하지 않아 자녀교육 관련 선택폭이 크지 않다.

대표적인 현지 외국인 학교로는 ROOSEVELT 학교를 들 수 있다.

- 학교명: Colegio Franklin Delano Roosevelt
- 주소: Av. Las Palmeras 325, Camacho, La Molina, Lima 12, Peru
- 전화: (51-1)435-0890
- 팩스: (51-1)436-0927
- e-메일: fdr@amersol.edu.pe
- 웹사이트: www.amersol.edu.pe
- 학비수준: 5,000달러/6개월
- 기타경비: 입학금 6,000달러/1인당, 실험실습비 100달러/6개월, 과외활동비 50달러/ 6개월, 통학 버스비 375달러/6개월, 보험료(의료, 안전보험) 별도

이외의 외국인 학교로는 영국계, 프랑스계, 독일계 등 학교가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사용 언어에 다소 차이가 있어 한국인 자녀교육에는 적합한 편이 아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한인 학교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한인회를 중심으로 교민 2세를 위한 한글학교가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다.

다. 전화 신청

전화신청은 주거지역이 결정된 후 주거 소재지역 관할 전화회사 사무소를 찾아가 신청하는데, 이때 신분증 사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주소 확인이 가능한 공과금 납부영수증 사본(수도료, 전기료) 등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후 3일 이내에 회선을 가설해 준다.

신청료는 1회선당 79달러이며 전화기를 포함하면 99달러이다. 최근 들어 페루는 전화회사의 민영화로 회선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전화요금은 인근국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다.

페루에도 우리나라처럼 최근 영가의 휴대폰 서비스가 매일 나오고 있다.

라. 구좌개설

구좌개설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개설이 까다로우며, 구좌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은행 구좌개설 신청서, 현지 거주사실(공과금 영수증: 전화세, 전기료, 수도료 등)에 대한 증빙서, 최소 500달러의 예치금(구좌개설 후 인출할 수 있음)이 필요하다.

마. 병원

일반적으로 병원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RICARDO PALMA, JAVIER PRADO, SAN BORJA, SAN PABLO, ANGLO AMERICANA, GOLF 등 일부 현대적인 병원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엄청난 고액의 진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병원에 따라 다르나 단순진료의 경우 1회 최소 50~70달러 내외가 소요된다.

우리나라 종합병원 형태의 병원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클리닉(CLINICA)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진료에서 처방약품 구입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바. 가구류 및 생필품 구입

페루는 모든 완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삿짐을 부칠 때 필요한 물품은 한국에서 보내는 것이 유리하다. 품질수준을 요하는 제품은 백화점 및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4개의 백화점이 함께 모여있는 쇼핑몰인 JOKEY PLAZA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전자제품은 대형 전자제품 매장인 CURACAO, CARSA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제품의 선택의 폭이나 가격 면에서 유리하며, 수입가구류를 제외한 일반가구류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메이커 매장이거나 직접 메이커를 접촉하여 구입하는 것이 가격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백화점의 경우 거의 100% 수입품인 관계로 가격은 비싼 수준이며, 각 구 소재지마다 중앙 상가(CENTRO COMERCIAL) 또는 E.WONG 슈퍼마켓이 있어 생필품 구입에 큰 어려움은 없다.

많은 중국계, 일본계 교민이 생활하는 관계로 일반 야채, 과일, 생선 등이 풍부한 편이다. San Borja에 한국 슈퍼마켓이 있긴 하나(아씨마켓, 51-1-225-4648) 가격이 비싸며 그나마 찾는 물건이 귀한 경우가 많다. 컨테이너 통관시기에 맞추면 한국식품(고추장, 고춧가루, 된장 등) 구매가 가능하다. 대형 슈퍼마켓인 E.WONG, SANTA ISABEL 등에서는 라면, 사발면, 새우깡 등을 판매한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이 발달해 생필품 구입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과일, 생선 등은 현지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지 않는 식품재료 등 제품 가격이 저렴한 반면 가공품은 대부분 수입되어 한국보다도 가격이 비싸다.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페루는 남미대륙 중 태평양 방향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여 에콰도르,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와 국경을 접하고 서쪽은 태평양을 끼고 있는데 남회귀선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

위도상으로는 열대와 아열대에 속한다. 그러나 기후는 남극에서 북상하는 홀볼트 한류가 페루 해안을 따라 흐르고, 한쪽으로는 표고 5,000m가 넘는 안데스 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등 변화가 큰 지형으로 인해 해안지대, 삼림지대, 산악지대 등 3지대에 따라 기후가 판이하게 다른 것이 특징이다.

1) 해안지대(COSTA)

전체 국토의 15%를 차지하고 있는 해안지대(COSTA)의 홀볼트 한류 때문에 비교적 온난한 사막형 건조기후이다. 하계(12~4월)에는 기온이 25~35℃를 나타내면서 다소 덥고 건조한 날씨를 나타내며, 동계(5~9월)에는 기온이 약간 내려가면서(겨울에도 거의 1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음) 습도가 90~100%, 구름이 많으나 연중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 해안 지대의 기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엘니뇨(EL NINO) 현상이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수도 리마를 비롯한 뜨루히요, 치쿨라요, 뻬우라, 따끄나 등이다.

2) 삼림지대(SELVA)

전체 국토의 약 60%를 차지하는 삼림지대(SELVA)는 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28℃ 정도로 습도도 높다. 4~10월에는 건기로서 기온은 35℃까지 상승하며, 11~4월은 고온 다습한 기간이며 때때로 집중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이끼또스, 뿌갈파 등이다.

3) 산악지대(SIERRA)

전 국토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산악지대(SIERRA)의 기후는 우기(11~3)와 건기(4~10)로 나뉘는데 건기에는 낮에 따뜻하고, 건조하며, 기온은 20~25℃이다. 밤에는 추우면서 건조한 기후를 보이는데 종종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기도 한다. 이 기후대에 속하는 주요 도시는 쿠스코, 뿌노 등이다.

한편, 우기에는 대부분 아침에는 건조하고 청명하나 오후에는 약간씩 비가 내리며 종종 호우가 내리기도 한다. 우기에는 기온이 18℃까지 떨어지지만 밤에도 15℃수준이므로 일교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물론 고도에 따라 온도 차가 심하고 영하 10℃까지 내려갈 때도 있다.

4) 리마의 기후

수도 리마의 기후는 해안지대 기후로 연중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기후로 연평균 기온이 20℃(하계 최고 30℃, 동계 최저 11℃) 정도이다. 동계(4월 말~11월 중순)에는 안개가 뒤덮여 햇빛을 거의 볼 수 없고 습도가 높고 쌀쌀한 기후인 반면, 하계(12~5월)에는 일조량이 많고 비교적 더운 날씨이나 습기가 없기 때문에 심한 더위는 없는 편이다.

리마의 월 평균 기온

(단위: °C)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25	26	26	24	21	19	17	17	17	19	20	23
최저	19	20	19	18	16	15	14	13	13	14	16	17

리마의 경우 여름(12~4월)에는 여름 정장과 와이셔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도 보편적으로 입기 때문에 더위를 느끼는 사람은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를 준비하면 된다. 가끔 여름에도 밤에는 쌀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디건이나 얇은 점퍼 등을 준비하면 된다.

겨울(5~11월)에는 춘추복 또는 동복을 준비하면 된다. 가장 추운 날씨가 10℃ 내외이나, 바닷바람과 함께 습도가 높아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매우 쌀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스웨터나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페루와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14시간으로 페루가 우리나라보다 14시간 느리다. 한국 시간으로 자정이면 페루 시간으로 전일 오전 10시며, 한국시간 오전 10시면 페루시간으로 전일 오후 8시가 된다.

○ 한국시간 7월 7일 오전 0시 → 페루 7월 6일 오전 10시

한국 (7월7일)	0	1	2	3	4	5	6	7	8	9	10	11
페루 (7월6일)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7월7일)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페루(7월6일)	22	23	24	7월1	2	3	4	5	6	7	8	9

2) 근무시간

은행은 일반적으로 09:00부터 12:30까지 오전근무를 하며 15:00부터 18:00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창구에서는 중식시간에도 교대근무로 업무를 계속 한다. 대부분 은행이 토요일에도 오후 1시까지 근무한다.

그러나 6월 30일과 12월 31일은 결산업무상 모든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으며 만약 이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면 전후 첫 번째 날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 단, 예외적으로 Jorge Chavez 국제공항 청사 내에 입주해 있는 은행지점들은 1년 내내 24시간 영업한다.

정부기관은 1~3월까지는 월요일~금요일까지 08:30~11:30까지 근무하고, 기타 월에는 월요일~금요일까지 09:00~12:30까지 오전 근무, 15:00~17:00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그러나 정부기관의 근무시간은 바뀌는 경향이 많다.

한편 일반 상점의 경우 상점규모 및 성격에 따라 09:00또는 10:00부터 12:30까지 오전 근무를 하며, 15:00또는 16:00부터 20:00까지 오후 근무를 한다.

대도시의 슈퍼마켓은 점심시간에도 영업을 하며, 수도 리마의 일부 슈퍼마켓 및 일부 주유소와 붙어 있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또한 토요일은 회사 및 상점에 따라 근무하기도 하나, 일요일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서머타임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며, 연도별로 전체 공공 민간부문에 시행하기도 하고 공무원들에만 적용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 도량형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지방에서는 곡물 단위에 ‘किनट’ 등을 사용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무게는 kg를 사용한다.

일반 가정용 주택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60HZ, 220V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110V를 겸용으로 해 전원이 들어와 있는 집도 있다. 산업지역, 대형건물, 전시장 등에는 380V 삼상 전원 사용이 일반적이다.

페루는 대부분의 전기 제품이 220V 이지만 플러그는 아직까지 일자형이 많아 전기 제품을 소지하는 출장자는 별도의 일자형 플러그를 소지하는 것이 좋다.

라. 출입국/비자

1) 출입국

페루는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인 경우에는 3개월간 무비자로 입국 체류가 가능하다. 현지 비즈니스를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는 상용비자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90일 이내의 단기 체류 시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편리하다. 왜냐하면 상용비자를 취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출국 시 현지에서의 비즈니스 내역에 대한 세금징수 문제로 인해 거래내역 확인서를 요청하는 등 복잡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 목적으로 페루를 방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거래실행이 아닌 바이어와의 상담 등 시장개척 목적의 경우, 상용비자 대신 관광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통관 절차상 편리한 점이 많다. 출입국 절차는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와 세관의 물품검사 등으로 이루어지며 타 국가와 비교해 볼 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다.

- 여행자 짐 관련 상세 규정
(2006.3.17자, 페루 최고법령(Decreto Suprema) N 0162006EF 규정)
 - 무관세로 반입 가능한 물품리스트(아래의 규칙 제 4 항 참조)
 - 여행자는 휴대한 짐을 "Declaracion Jurada de Equipaje" 형식에 맞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해당관세를 지불해야 함.
 - 10,000 달러 또는 동등한 값어치의 페루 또는 타국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함. (법률 N 28306)

□ 규칙 제 4 항 - 무관세 반입 가능 물품

- 1) 여행자 개인 옷
- 2) 여행자 개인용품
- 3) 여행자 개인 장식품
- 4) 여행자 개인용 약품
- 5) 책, 잡지 및 여행에 필요한 서류
- 6) 여행시 여행자가 사용하는 일반 여행 가방, 핸드백, 손가방 등
- 7) 개인 머리빗이나 헤어드라이어(1)
- 8) 전기면도기나 면도기기(1)
- 9) 휴대용 악기(1)
- 10) 휴대용 라디오나 소형라디오(walkman) (1)

- 11) CD 20장까지, 카세트 및 녹음기용 디스크
- 12) 카메라나 디지털 카메라(1)
- 13) 전문가용이 아닌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1)
- 14) 디지털 비디오용 디스크 하나
- 15) 카메라용 필름(10),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 용이나 게임용(2), 테이프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10), 저장 카세트(10) 및 디스크 디지털 비디오용이나 비디오 게임(10)까지 허용
- 16) 사진기 또는 디지털 카메라(1)
- 17) 휴대용 전자 수첩 또는 포켓 컴퓨터(1)
- 18)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 (1)
- 19) 휴대폰(1)
- 20) 담배(20), 순수한 담배(50), Tabaco 또는 피우기 위한 담뱃잎 가루 250g까지
- 21) 술 3병(3리터)까지
- 22) 개인 병으로 인해 필요한 장비는 휠체어, 혈압기, 온도기, 포도당, 소형침대(들것) 및 목발임.
- 23) 애완동물(1)
- 24) 여행자가 상업용도가 아닌 선물용이나 개인용으로 반입하는 제품은 최대 미화 US\$ 300달러까지 허용.
- 25) 타자기, 전기 또는 전자 그리고 휴대용 전자계산기(1)

※참고: ()안 숫자는 최대 허용 개수임

□ 규칙 제 5 항- 무관세 반입물품 제한사항

- 만약 물품이 지정한 양을 넘거나 리스트에 없는 제품이라면 중고든 새 것이든 상관없이 아래의 규칙 6항 1)번과 2)번이 적용된다.
- 상기 규칙 4항의 21)번과 22번 물건을 들여올 경우에는 만 18세가 넘어야 하며 10번, 14번, 18번, 19번 및 20번 물건일 경우 만 7세가 넘어야 한다.
- 입국 시 짐을 바로 못 찾는 경우라도 30일 내에는 물건을 찾아야 한다.
- 자유로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개인용이거나 양도 불능 물품이다.

□ 규칙 제 6 항- 관세 관련 사항

- 1) 상기 규칙 제4항에 지정되지 않은 물건을 들여오거나, 제품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세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 2) 규칙 제4항에 지정된 리스트 외의 물건 구입 시, 각 여행마다 미화 US\$1,000 달러 가치까지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20%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물품이 개인 짐으로 인정될 때에 해당)
- 3) 만약 1,000 달러 이상의 물건을 반입 또는 반출할 때에는 세관이 개인 물건이 아닌 상업용으로 인정하므로 그에 따라 세금을 지불해야 함. 또한 한 해 제품을 들여올 수 있는 총액은 3,000달러이다.
- 4) 전자제품, 가전제품, 공구 및 기기, 사업용이나 전문용일 경우 제품 한 개 이상을 들여올 수는 없다.

- 5) 짐(제품)의 가치 또는 양이 지정된 제한을 넘을 경우 세관은 제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 6) 세금을 내거나 벌금을 내야 할 경우
 - 개인 짐을 상업용으로 인정할 경우(물건 양, 가치 및 종류)
 - 물건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임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물건을 들여올 경우
- 7) 한편 상업용 견본품인 경우 반입 후 페루 내에서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반입이 허용되나 일정 가격 이상인 경우는 허용이 안 된다. 비즈니스 출장 시 견본품을 반입할 경우에는 완벽한 외부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세관의 검사대상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이다.
- 8) 즉, 제품의 원래 박스를 통째로 반입하는 것은 세관검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가방 등에 넣거나 원래 박스를 해체하여 분해하여 반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관세를 부담하지 않는 방법이 된다.
- 9) 도착 시 자신이 버튼을 눌러 물품이 세관을 통과할 때 파란 불이 들어오면 무사 통과, 빨간 불이 들어오면 예외 없이 샅샅이 물품을 검사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 10) 페루는 세계 최대의 마약 생산지이기 때문에 마약의 반출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출국 시 항공사 직원들이 승객을 대상으로 일일이 인터뷰를 해 체크인 수속을 진행하기 때문에 타 국가의 공항에서 출국 수속에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11) 출국 시 공항세는 30.25달러로 타국에 비해 다소 비싼 편이다. 참고로 페루 내 국내선으로 여행을 할 때에도 공항세는 약 7달러이며, 종전에는 관용여권과 외교관 여권에 대해서 공항세가 면제되었으나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고 있다.
- 12) 또한 9. 11일에 발생한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테러사건 이후 공항 출국 수속장에는 비행기표와 여권 소지자만이 입장이 되도록 엄격히 통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비행기 탑승수속 시 휴대화물도 검색이 강화되어 종전에는 비행기 출발 2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수하물, 심지어는 개인 신변용품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2) 비자

- 비자 발급처(주한 페루대사관)
 - 주소: 서울 중구 충무로 1 가 25 번지 5 호
 - 전화: 757~1735, 7, 팩스: 757~1738
 - 휴일: 토, 일요일
 - 비자신청: 09:00~12:00
 - 비자발급: 14:00~17:00
 - 소요시간: 2~3 일
 - 소요비용: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한 페루 대사관에 직접 문의 요망

마. 환율/환전

1) 환 율

□ 화폐 단위

페루의 화폐단위는 누에보 솔(NUEVO SOL)이며, 단위는 S/. 로 표기하는데 솔 아래 단위는 미 달러화의 센트와 같은 센티모를 쓴다. 한편, 페루에서는 자국 화폐인 솔과 미국 달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물건값을 지불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내구재의 가격은 대부분 달러로 책정되어 있다. 현재 유통 중인 지폐는 200솔, 100솔, 50솔, 20솔, 10솔 등 5종이 있으며, 주화는 5솔, 2솔, 1솔, 50센티모, 20센티모, 10센티모, 5센티모, 2센티모, 1센티모 등이 있다.

□ 환율

현지화의 대미달러 평균환율은 98년에는 1\$=S/2.94, 연간 평가 절하율은 15.4%로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99년도에는 1\$당 S/3.38로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왔다. 2000년 1\$당 S/3.49, 2001년 S/3.44, 2002년 S/3.49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이후 환율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2007년 이후 수시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9월 말 기준 시중 환율은 1달러당 2.89솔 수준이다.

2) 환 전

환전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없어 은행, 호텔, 거리 환전상, 환전소 등에서 자유로이 환전이 가능하며 은행은 거래가 안전하다는 이유를 들어 시중 환전소(casa de cambio)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한다. 단기 여행 시에는 호텔에서 투숙객에게는 우대환율을 적용해주는 호텔이 많으므로 소액은 호텔 내 데스크에서 환전해 쓰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페루는 달러화를 공용으로 쓰며, 거리의 현금 자동인출기 및 대부분의 슈퍼마켓, 백화점, 심지어 거리의 行商에 이르기까지 달러 인출 및 통용이 되고 있으며 단기 체류자의 경우 소액 달러 지폐를 갖고 있으면 현지화 환전 없이도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다.

환전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無許可 환전상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이들은 은행이나 환전소보다 약간 높은 환율을 적용하여 현지인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으나 여행하는 외국인의 경우, 위조화폐 등의 감식 능력이 떨어져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 출장자들은 호텔 내, 은행 또는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페루를 비롯한 대부분 중남미에서는 여행자 수표는 위조가 많은 이유로 수취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거리의 환전소에서는 환전을 거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은행에서 환전을 해야 하는데 이때 2~3% 정도의 환가료를 내야 한다.

따라서 중남미 여행 시 불편하더라도 미국 체류 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일정 소요현금을 지참하고 여행하거나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호텔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바. 교통/통신

1) 교 통

□ 항공편

페루는 지리적으로 태평양 연안 남미국의 중간지점으로 항공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편은 종횡으로 편리한 편이다. 그러나 미국으로 가거나 미국에서 오는 비행기는 대부분 모두 밤 12시, 새벽 1시 정도의 시각에 운행하고 있어 매우 불편하다.

페루에 도착하는 항공편은 대부분 미국(L.A., Miami, New York)을 경유하여 리마로 연결되고 있으며, 주요 항공편은 Lan Chile(칠레), American Airline, Continental(미국), Air Canada(캐나다), Aerolinea Argentina(아르헨티나), Varig(브라질) TACA등이 리마에 도착하고 있다.

한편 페루 항공사인 Aeroperu는 1999년 3월 파산하여 현재 순수 페루국적의 항공사로는 Aerocontinente 사가 있다. 페루까지의 여행시간은 서울-L.A. 구간이 약 11시간, L.A.-리마 구간이 약 8시간 정도 소요된다.

리마 국제공항은 2001년도부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관리공단에 30년 양허 조건으로 민영화되어 보수 확장공사가 완료 되어 남미의 주요 허브공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리마 Jorge Chavez 국제 공항은 2005년 상반기 영국 컨설팅 회사인 스카이 트랙스가 실시한 '월드 베스트 공항' 설문 조사에서 남미 최고 국제공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국내항공

페루가 비교적 큰 나라이기 때문에 국내 항공망도 잘 발달되어 있어 지방여행에 불편이 없는 상황이지만 각 지역 간의 연결망은 극히 부진한 편이다. 즉,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반드시 수도인 리마에서 출발한다. 2005년 이후 유가상승으로 항공료 또한 인상되어 대략 국내선 왕복에 200~250달러 수준이며 요금은 시즌 별로 다소 상이한 편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 선편

船便은 월 2회 Callao-Pusan 정기편이 운행되고 있으며, 非정기선편이 간혹 운항되고 있다. 부산에서 리마 까야오 항구까지의 운항 기일은 약 35~40일 정도가 소요되며, 40" 컨테이너의 운송비용은 약 4,500달러 수준이다.

□ 택시

페루는 아직 택시미터제가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기 전에는 반드시 운전사와 가격협정을 해야 한다. 또한 택시영업이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을 소지한 사람이 택시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앞 유리에 "TAXI"라는 스티커를 한 장만 붙이고 영업을 하면 된다.

노란색으로 차량 위에 택시표시를 한 차량은 정식으로 택시 영업허가를 받고 보험에 가입된 택시이다. 외국인은 특히 밤중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 정식 영업등록 택시나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호텔에서 운영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갑작스러운 봉변을 막는 방법이 된다.

택시 요금은 최소 4~5솔(약 미화 1.25달러) 정도는 줘야 하며 거리에 따라 흥정하기에 달려 있으나 리마 시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5~10솔 정도가 소요된다. 공항에서 시내 도심(호텔)까지 이용하는 경우 공항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요금은 다소 비싸 약 2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일반택시의 경우 약 30달러 정도를 주면 무난하다. 반면에 새벽이나 저녁에 공항으로 나가야 할 경우는 호텔 택시(40달러 내외)도 투숙 손님에게는 할인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 버스

버스는 마이크로버스부터 대형 버스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시내버스 요금은 대략 한번 탈 때 1솔에서 1.5솔 정도이다. 비록 허름하고 냄새는 나도 운행구간만 알면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택시보다 더 경제적이고 안전할 수 있다. 택시운전수 중에는 간혹 강도들과 연 결해 외국인 승객을 노리는 자들이 있으나 버스의 경우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버스 안에서도 날치기 등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도시와 도시 구간에는 비교적 시외버스가 잘 발달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여행을 하는 경우 잘 이용하면 운치가 있는 여행을 즐길겸 동시에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도로에서 대형사고가 간혹 발생하곤 한다.

□ 도로

페루는 총 연장 7만Km의 도로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24개 주를 연결하는 기간도로 망은 15,075Km에 이른다. 이들 기간도로망은 전국을 동서 남북으로 횡단하고 있는데 하나는 북부 에콰도르 국경에서 남부 칠레국경까지 연결된 Panamericana 도로이고, 하나는 태평양 연안의 수도 리마에서 동쪽으로 안데스 산맥 및 아마존 정글을 가로지르는 Carretera Central 이다.

페루의 지역별, 노면별 도로설비 현황(Km, 2008년 말 기준)

지역별	구분	총 연장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해안지역	국가기간도로	4,575	3,994	581
	주별기간도로	2,630	759	1,871
	인접도로	8,623	671	7,952
산악지역	국가기간도로	8,726	1,443	7,283
	주별기간도로	11,208	296	10,912
	인접도로	27,957	90	27,867
정글지역	국가기간도로	2,392	364	2,028
	주별기간도로	605	3	602
	인접도로	3,226	3	3,220
합계	국가기간도로	15,693	5,801	9,892
	주별기간도로	14,444	1,058	13,386
	인접도로	39,806	767	39,039

2) 통 신

□ 전화

최근 5년 동안 전화 보급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화비는 스페인계 전화회사인 Telefonica사의 독점으로 전화비는 비싼 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타 통신사와의 치열한 경쟁으로 각종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한편 페루업체와 교신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 중 하나는 전화와 팩스를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팩스로 전환하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해 난감해 하는 업체들이 많다. 팩스를 보내고자 할 때 상대방이 전화를 받으면 "Deme tono de fax"(데메 토노 데 팩스) 또는 "Tono de fax, Por favor(토노 데 팩스, 뽀르화보르)"라고 요청하면 된다.

□ 휴대 전화

최근 들어 휴대 전화의 보급률이 일반전화 보급률을 앞질러 연간 100%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구입비용 및 사용료도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 휴대 전화의 경우 주요 통신사는 Telefonica 와 Claro가 쌍벽을 이루고 무선 라디오의 경우 Nextel 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페루에서 휴대 전화를 사용할 경우 미리 카드를 사서 충전 금액만큼 사용하는 Pre-Pago 방식과 한국과 같이 후불제로 지불하는 Post-Pago 방식이 있다.

□ 우리나라와의 통화

한국까지의 국제전화 요금은 분당 약 1.5달러 수준이며 시간대에 관계없이 연결은 매우 좋은 편이다. 단, 호텔에서 국제전화를 할 경우는 일반가격의 약 3배 요금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현지에서 한국으로 국제 전화를 할 경우에는 "00"을 앞에 붙이고 한국코드 "82"와 지역 번호를 누른 다음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즉 부산의 444-1234에 전화하고자 하면 "00-82-51-444-1234"를 누르면 된다.

한국에서 페루에 전화를 하려는 경우 국제전화 이용코드(001, 002, 008등) 다음에 페루 국가코드 "51", 지역코드(리마의 경우 "1") 다음에 전화번호를 돌리면 된다.

페루 리마 KBC의 442-2834 번호로 전화할 경우 "001-51-1-442-2834"로 하면 된다.

□ 공중전화

페루 공중전화는 전화회사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2개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Telefonica del Peru사가 가장 큰 회사이며, Telepoint가 후발 경쟁업체이다. 최근 들어 Telmex 사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중전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지만 설치된 전화기 수는 낮아 매우 찾기 어렵고 불편하다.

Telefonica del Peru사의 시내전화기는 카드, 동전 겸용이고(기본요금 50센티모, 약 200원 수준) Telepoint의 경우는 카드만 가능하여 한국으로 전화를 걸 경우, 기본 S./20 짜리 전화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한편 공중전화 중에는 카드식 전화기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전화박스 안에 명시되어 있는 가까운 판매소에서 Telepoint나 Telefonica del Peru등 공중전화 카드를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최근 관광객들이 주로 모이는 Miraflores 에서 아시아권 전용 통화권을 판매하는 등 국제전화 사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 자동 로밍 안내

페루의 경우 국내 3사 통신사 중 SKT 사가 제공하는 CDMA 자동로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상세 내역 www.tworld.co.kr 참조)

사. 호텔/식당

1) 호 텔

페루의 호텔요금은 국민경제 수준에 비해 매우 비싸다. 특급 호텔의 경우에는 1일 250달러 내외 수준이며, 일반적으로 별 오성 호텔의 할인 요금은 120~170달러 정도 수준이다.

페루 리마 KBC에서는 시장개척단 및 세일즈 출장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 할인 요금을 적용 받는 호텔을 선정해 요청 시에 예약을 대행해 주고 있으며 요금수준은 120~180달러 정도이다.

한국의 출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고급호텔은 Marriot, Swiss Hotel, El Pardo, Sheraton Lima, Las Americas, Hotel Los Delfines, Holyday INN 호텔 등이다.

Marriot 호텔은 2000년도 말에 개업한 호텔로 해변에 위치하여 풍광이 좋은 장점이 있으나 요금이 비싸고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바이어들이 접근하기가 다소 불편한 점이 단점이다.

Swiss Hotel 호텔은 신흥 상업지역(San Isidro)에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호텔로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이며, 각종 국제회의와 정부 주최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호텔로 유명하다.

또한 근처의 Hotel Los Delfines도 일류 호텔이며, 호텔이름에 걸맞게 호텔 내 수영장에 돌고래를 키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호텔의 숙박요금은 230~245달러 수준이며, KBC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예약을 할 경우도 세금 및 조식 포함 120달러 내외 수준이다.

El Pardo 호텔, Las Americas 호텔 그리고 Holiday INN 호텔은 신흥 상업중심지이며 관광지인 Miraflores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바다에서 가까워 걸어서도 바다 경관을 구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변이 번잡하고 주차장 시설이 다소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 요금은 KBC가 예약 시 El Pardo 호텔은 조식, 세금 포함 105달러, Las Americas 호텔은 조식, 세금 포함 90달러, Holyday INN 호텔은 70달러 수준이다.

Sheraton 호텔은 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변에 대통령궁, 국회, 대법원 등이 위치해 있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나, 오래된 호텔로 청결도가 조금 떨어지고 주변 공기 오염도가 높은 편이며, 호텔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은 빈민 지역으로 좀도둑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 야간 출입시 주의가 요구된다. KBC에서 예약 시 요금은 세금 및 조식 포함 110달러 정도이다.

장기 투숙자를 위한 아파트형 호텔로는 San Isidro 에 위치한 Plaza del Bosque 아파트 호텔이 적당한데 KBC에서 예약 시 세금 및 조식 포함 110달러 정도로 4명까지 투숙이 가능하며 작은 주방이 딸려 있어 간단한 조리도 가능하다.

최근 들어 관광 진흥법에 의거 체크인 시 여권사본과 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면 부가가치세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KBC는 이 중 Swiss Hotel, El Pardo Hotel, Las Americas Hotel, Holyday Inn을 주로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KBC로 요청하면 된다.

○ SWISSOTEL

- 주소: Via Central 150, Centro Empresarial Camino Real,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421-9888, 팩스: (51-1) 421-4360
- Home Page: www.swissotel.com

○ Marriot Hotel

- 주소: Malecon de la Reserva 61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217-7000, 팩스: (51-1) 217-7002
- Home Page: www.marriott.com/default.mi

○ Sheraton Lima Hotel y Casino

- 주소: Av. Paseo de la Republica 170, Cercado, Lima, Peru
- 전화: (51-1) 315-5000, 팩스: (51-1) 315-5015
- Home Page: www.sheraton.com.pe

○ HOTEL EL PARDO

- 주소: Jr. Independencia 141,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617-1000, 팩스: (51-1) 444-1185
- Home Page: www.doubletreeelpardo.com.pe

○ Hoteles Las Americas

- 주소: Av. Benavides 41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241-2820, 팩스: (51-1) 444-1137
- Home Page: www.hoteleslasamericas.com

○ Holiday Inn Select

- 주소: Av. Benavies 300,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242-3200, 팩스: (51-1) 610-0707
- Home Page: www.hiselect.com

○ Delfines Hotel & Casino

- 주소: Calle Los Eucaliptos 55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215-7000, 팩스: (51-1) 215-7071
- Home Page: www.losdelfineshotel.com.pe

○ Plaza del Bosque

- 주소: Av. Paz Soldan 16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441-8818, 팩스: (51-1) 421-8582
- Home page: www.plazadelbosque.com

2) 식 당

리마에는 현지음식(양식), CHIFA라는 간판이 걸린 중국식, 몇 군데의 일식집 등 시내 곳곳에 식당이 분포되어 있어 식사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현지식은 스테이크 등 기존의 전통 양식에 CEBICHE(생선 등을 레몬즙에 버무린 것), PISCO SOUR(포도를 발효시킨 전통주) 등 독특한 페루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분위기 있는 식당으로는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다양한 해물요리로 기네스 북에 오르기도 한 최고급 식당 COSTA VERDE이 있다. 또 Muelle Uno, Rosa Nautica, Astrid & Gaston, Asia de Cuba 등도 유명한 식당 중 하나이다.

한편 현지 음식에 적응하기 힘든 경우 거리에서 쉽게 발견되는 CHIFA 간판을 찾아 중국 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식의 경우에도 호텔 등에 문의하면 쉽게 가까운 일식당 주소를 얻을 수 있다.

한국 식당은 신흥상업 지구인 Miraflores에 집중해 있고 음식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다. 또한 한국 식당과 한국 슈퍼에서 김치, 쌀, 라면 등도 구입할 수 있다.

- 고려정(순수 한국식당)
 - 주소: Av. La Paz 685,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444-2890
 - 참고: 하숙집 겸함, 1일 1인당 30 달러이며 식사 및 세탁 포함
- 노다지 식당(순수 한국식당)
 - 주소: Av. Aviacion 3257, San Borja, Lima, Peru
 - 전화: (51-1) 476-0093
- 친니친니(한식, 중식, 분식)
 - 주소: Av. Fray Luis de Leon 484, San Borja, Lima, Peru
 - 전화: (51-1) 224-7087
- 아리랑(순수 한국식당)
 - 주소: Av. Salaverry 3261,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264-1609

3) 현지 음식

- 세비체(Cebiche)
 - 신선한 흰살 생선에 레몬즙, 양파, 야채, 샐러드유, 향신료 등을 곁들인 페루의 대표적 요리
- 안띠꾸초(Anticucho)
 - 소(또는 닭)의 염통을 납작하게 썰어 꼬치에 끼워 구운 요리
- 뽀스꼬 사우어(Pisco Sour)
 - 포도로 만든 술 뽀스꼬에 계란 흰자, 가무시로, 레몬즙 등을 각 식당의 독특한 비율로 칵테일한 주류
- 치차모라다(Chichah Morada)
 - 보라색 옥수수를 삶아 파인애플 등을 넣어 만든 음료

- 산코차도(Sancochado)
 - 닭고기, 옥수수, 호박, 양파, 감자 등이 들어간 야채 수프

아. 관공서 관행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적으로 이권부서 관료들은 태만, 부패하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어 행정 및 인가 절차가 정해진 기간보다 지체되는 것이 보통이며, 보다 신속한 절차를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별도로 인사를 해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1990년도에 후지모리 전 대통령 정부 집권 후 공공부문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여 여러 부문에서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해 퇴근 후 부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경찰이 퇴근 후 야간에 민간 경비용역회사에서 일하거나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교통경찰한테 신호위반으로 걸리면 외국인은 20~30솔, 현지인은 10솔을 주고 해결하는 것이 관행이다. 단, 최근 증원되는 여자 교통경찰관에게는 잘못 뇌물을 건네다 걸리면 고발당할 가능성이 크다.

관공서를 방문할 때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으나 공식적인 면담 시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사자 본인을 위한 면담이라면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처리에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비싼 것이 아니라도 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미 약속된 면담이라도 무한정 사람을 기다리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하루 전쯤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 공휴일

페루는 공식 휴일 이외에 정부부처에서 별도로 정하는 정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의 휴일이 별도로 있다. 간혹 현지 관광진흥을 위하여 공식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전날 또는 다음날도 휴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월요일이 공휴일의 중간에 끼일 경우도 연휴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휴일명	날짜
신년(Año Nuevo)	1/1
부활절(Semana Santa)	4/9~ 4/10
노동절(Día del Trabajo)	5/1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의 날(San Pedro y San Pablo)	6/29
독립기념일(Fiestas Patrias)	7/28 ~ 7/29
성녀 ROSE의 날(Santa Rosa de Lima)	8/30
앙가모스 전투 기념일(Combate de Angamos)	10/8
성자의 날(Todos los Santos)	11/1
성모의 날(Immaculada Concepcion)	12/8
성탄절(Navidad)	12/25

주: 공휴일은 고정되어 있으나 부활절 휴가기간은 가톨릭 월력에 따라 매년 변동

차. 여행 시 유의사항

상비약은 리마 곳곳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사제인 정로환, 진통제, 간단한 감기약 등은 휴대하는 것이 좋으나 잘 듣지 않아 현지약을 사 먹어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최대 관광지인 CUSCO를 방문하기 위해서 물파스도 준비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고산병(Soroche) 對備藥은 현지에서 구입하는 것이 적절한데 효과도 좋고 개당 1달러 미만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리마의 경우 여름(12~5월)에는 하복 정장과 와이셔츠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짧은 소매 와이셔츠도 보편적으로 입기 때문에 더위를 느끼는 사람은 짧은 소매의 와이셔츠를 준비하면 된다. 가끔 여름에도 밤에는 쌀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카디건이나 얇은 점퍼 등을 준비하면 무난하다.

겨울(6~11월)에는 춘추복 또는 동복을 준비하면 된다. 가장 추운 날씨가 10℃ 정도이나 바닷바람과 함께 기온이 내려갈 때에는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므로 스웨터나 점퍼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한편, 유명 관광지인 쿠스코(Cusco)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高山地帶이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수 있으므로 두꺼운 의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페루의 경우 호텔에서 냉방은 되나 난방 시설은 없기 때문에 유념하기 바란다.

1992년 페루의 양대 테러단체인 센데로 루미노소(Sendero Luminoso, 일명 "빛나는 길") 및 두뿌아마루 혁명운동(MRTA)의 리더가 체포된 이후 테러 단체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나 현재는 잔존세력이 정글지역에서 활동 중으로 알려진다.

오랜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감소 및 실업난 등으로 민생범죄는 여전히 많이 발생한다. 강도, 절도 등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외출 시는 高價 소지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특히 야간에는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환시장은 완전자유화로 외화의 보유, 송금, 환전 등이 자유로우며, 달러화의 거래가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액 달러화 보유 시에는 현지화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환전 필요성이 없음) 달러화 소지 및 이용이 빈번한 만큼 위조지폐(특히, 고액권 달러)도 상당량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 달러화

- 가운데 인물 그림이 있는 부분을 손톱으로 긁었을 때 울룩불룩하게 굴곡이 있는 것이 느껴지면 진페로 간주할 수 있다.

○ 현지화

- 밝은 쪽을 향해 지폐를 펴서 보았을 때 지폐상에 있는 인물사진 한쪽 여백에 투영되어 비쳐지는 경우 진페로 간주할 수 있다. 단, 위조 지폐에도 투영인물 사진을 손으로 그려 넣는 경우가 있으므로 밝은 쪽으로 비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폐에 인물 사진이 희미하고 조악하게 보이면 위조지폐로 간주할 수 있다.

가급적 거리에서 계산기를 들고 다니는 노점 환전상의 경우 위조 지폐 및 계산기 조작에 의한 사기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니 가급적 은행이나 호텔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91년도에 콜레라가 창궐하여 수십만 명이 감염되어 이중 1,000여 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고 아직도 여름철에는 연례적으로 콜레라 환자가 소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대로 된 식당이나 집에서 손수 익힌 음식을 선택해야 된다.

수돗물에는 석회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때로는 박테리아, 아메바성 장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식수로 부적합하며, 판매용 광천수(Agua Mineral)를 구입하여 마셔야 된다.

한국사람들은 주로 Agua Mineral Sin Gas(아구아 미네랄 신 가스)를 주로 찾으며 炭酸이 첨가된 미네랄 워터는 Con Gas(콘가스)라고 한다.

시내 도처에 응급실을 갖춘 민간 종합병원(CLINICA)이 소재해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치료비가 매우 비싸다. 미국의 911 제도를 본뜬 116 비상구급 전화번호 제도를 갖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서비스의 질은 낮으며, 비상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페루에서 그나마 가장 기민한 기동력을 갖춘 기관은 소방서와 자원경찰 (Serenazgo)로 이들 기관에 연락,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편 현지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구급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응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및 환자 등은 보험형태로 비상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과 계약을 통해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다.

현지의 도로 설계는 나름대로 발전된 형태를 갖고 있으나 최근 2~3년간 급격한 자동차 보유 대수 증가로 주요 간선도로의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주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이고, 대형버스에서부터 봉고 스타일의 소형 버스에 이르기까지 형태 구분이 없으며, 버스에 부착된 행선지명과 노선번호로 구분한다. 그러나 노선 변경이 잦으므로 승차 전 반드시 물어보고 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가장 빠른 대중교통수단은 택시로, 미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타기 전에 거리에 따라 가격을 흥정해야 한다. 따라서 외출 시 사전에 목적지까지의 택시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요금은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호텔에서 승차하는 경우 호텔 직원에게 부탁하고, 시내에서 탈 경우 교통 경찰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가지도 쓰지 않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시내의 경우 통상적으로 거리에 따라 1~3달러 정도면 적당하며 리마의 국제공항인 호르헤 차베스 공항에서 리마 중심까지(Miraflores 혹은 San Isidro)는 약 30분 정도인데, 공항에서 시내로의 교통편은 외국인인 경우 택시가 유일한 방법이다. 택시요금은 공항전용 택시(검은색)는 20달러 정도이다.

개인적인 방문이나 시장개척단 등 단체 방문 시 (국내선이든 국제선이든) 비행기를 다시 타야 할 경우 외에는 여권은 항상 호텔 내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고, 여권 사본을 휴대하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간혹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여성들이 핸드백에 여권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소매치기를 당하여 다음 여행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념하기 바란다.

한전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굳이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페루에서는 높은 가격으로 여권의 밀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 여권은 위조가 용이하고(예컨대, 사진을 디지털 처리하지 않고 직접 붙이는 제작방법 등) 인종도 인디오 혼혈 계통과 유사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여권 중 하나이니 조심하기 바란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대사관

- 주소: Av. Principal 190, Piso 9, Urb. Santa Catalina, La Victoria, Lima, Peru
- 전화: (51-1) 476-0815, 476-0861, 팩스: (51-1) 476-0950
- e-mail: koremb-pu@mofat.go.kr

2) 리마 KBC

- 주소: Av. Canaval y Moreyra 452, Piso 9,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442-2834, 222-2760, 222-7006, 팩스: (51-1) 442-0841

3) 한인회

- 주소: Av. Aviacion 3199, piso 3, San Borja, Lima, Peru
- 전화: (51-1) 225-3181, 팩스: (51-1) 225-3180

4) 현지 진출 한국기업

□ 한국석유공사(Korea National Oil Corp.)

- 업종: 원유개발 및 생산판매
- 전화: (51-1) 222-4772, 팩스: (51-1) 222-5947
- 설립 연도: 1996년

□ LG전자(LG Electronics Peru S.A.)

- 업종: 가전제품 판매법인
- 전화: (51-1) 440-4500, 팩스: (51-1) 421-0548
- 설립 연도: 1997년 10월

□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 업종: 가정용 전자제품
- 전화: (51-1) 221-4134/5, 팩스: (51-1) 221-4139
- 설립 연도: 1996년 2월

□ (주)대우인터내셔널

- 업종: 종합무역
- 전화: (51-1) 221-4244, 팩스: (51-1) 422-1914
- 설립 연도: 1996년

☐ LS Nikko

- 업종: 광업
- 전화: (51-1) 617-1313, 팩스: (51-1) 446-4653
- 설립 연도: 2002년

☐ SK

- 업종: 석유 개발 및 석유 제품 마케팅, 가스 판매
- 전화: (51-1) 421-2787
- 설립 연도: 1996년

5) 현지 韓人여행사

☐ 고려여행사

- 주소: Av. La Paz 681,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444-8292, 팩스: (51-1) 446-5430
- e-mail: gokoryo@terra.com.pe

☐ 리마 연합여행사

- 주소: Av. Jose Pardo 610, Mezanine 24, Miraflores, Lima, Peru
- 전화: (51-1) 241-4255/243-0527
- 팩스: (51-1) 241-4255
- e-mail: hs_153@hotmail.com / hs_153@hanamil.net

6) 현지 경제단체

☐ 리마商議(Camara de Comercio de Lima)

- 주소: Gregorio Escobedo 398, Jesus Maria, Lima, Peru
- 전화: (51-1) 463-3434, 팩스: (51-1) 463-2820
- e-mail: webmaster@camaralima.org.pe
- Home Page: www.camaralima.org.pe

☐ 산업협회(Sociedad Nacional de Industrias)

- 주소: Los Laureles 365,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421-8830, 팩스: (51-1) 442-2573
- e-mail: webmaster@sni.org.pe
- Home Page: www.sni.org.pe

☐ 全經聯(CONFIEP)

- 주소: Av. Victor Andres Belaunde 147, Edificio Real Tres, OF.401, San Isidro, Lima, Peru
- 전화: (51-1) 422-3311

- 팩스: (51-1) 422-1509
- e-mail: postmaster@confiep.org.pe
- Home Page: www.confiep.org.pe

□ 수출협회(Asociacion de Exportadores: ADEX)

- 주소: Av. Javier Prado Este 2875, San Borja, Lima, Peru
- 전화: (51-1) 346-2530, 팩스: (51-1) 346-1879
- e-mail: postmaster@adexperu.org.pe
- Home Page: www.adexperu.org.pe

7) 주요 정부부처

□ 교통 통신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 주소: Av. 28 de Julio 800, Cercado, Lima, Peru
- 전화: (51-1) 433-7800/433-3790, 팩스: (51-1) 423-7705
- Home Page: www.mtc.gob.pe

□ 에너지광업부(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 주소: Av. Las Artes Sur 260, San Borja, Lima, Peru
- 전화: (51-1) 475-2055, 팩스: (51-1) 475-0688
- e-mail: postmaster@mem.gob.pe
- Home Page: www.mem.gob.pe

□ 관세청(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SUNAT)

- 주소: Av. Gamarra 680, Chucuito, Callao, Peru
- 전화: (51-1) 469-0058, 팩스: (51-1) 465-0585
- Home Page: www.aduanet.gob.pe

타. 관광명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경우 2박 3일 코스의 잉카유적지인 마추피추 및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해발 3,800m의 고도인 쿠스코를 방문할 수 있으며, 아마존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IQUITOS,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해발 4,200m)에 위치한 TITICACA 호수, 그리고 거대한 문양이 땅에 새겨져 있어서 輕飛行機를 타고서야 볼 수 있는 기원 후 1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NASCA 문명, 펭귄 서식처 중 남반구 한계선이라 하는 빠라까스 물개섬 등을 볼 수 있다. 쿠스코를 제외하고는 호텔 등 주변시설은 열악한 편이었으나 2008년 이후 현대식 호텔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마추피추 관광을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이 지역의 지반 붕괴로 2004년 하반기부터 일일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하여 비수기의 경우 1주일 전, 성수기의 경우 2주일 전에 쿠스코-마추피추행 왕복 열차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리마-쿠스코는 일일 편도 8편 정도 운항이 되나 우기의 경우 잦은 기후 변화로 지연, 결항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기간의 방문일 경우 리마 시내관광에 만족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대통령 궁, 대성당 등이 위치한 Plaza de Armas 등 구 시가지와 잉카 유적 및 당시 금문화를 대변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금 박물관(Museo de Oro) 및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문화인 Chimu 문명 등을 전시한 국립박물관(Museo de la Nacion)등 주요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다.

이외에 시간여유가 있을 경우는 리마 북부 600Km 북방의 트루히요시 인근의 찬찬(Chan Chan) 유적지나 1,000Km 떨어져 있는 까하마르카(Cajamarca) 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다.

아마존 줄기에 위치한 Loreto주 이끼토스(Iquitos)를 방문하여 정글 탐험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일 코스로는 적합하지 않다.

9.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2009년 주요전시회 정보

전시회명	국가	도시	개최기간	홈페이지
리마 공구전 2009	페루	리마	2009/07/16~2009/07/19	www.expoferretera.com.pe
아레키빠 국제 박람회	페루	아레키파	2009/08/13~2009/08/23	www.cerrojuli.com
리마 플라스틱 용기 및 패키징 박람회 2009	페루	리마	2009/08/20~2009/08/22	www.encaseperu.com
에콰도르 플라스틱 전시회	에콰도르	과야킬	2009/08/25~2009/08/28	www.aseplas.org
산타크루스 정보 통신 박람회 2009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2009/08/25~2009/08/28	www.expoteleinfo.com.bo
광업 박람회	페루	아레키파	2009/09/14~2009/09/18	www.convencionminera.com
리마 의료기기박람회	페루	리마	2009/10/14~2009/10/16	www.camaralima.org.pe/tecnosalud
리마 水産業 박람회 2009	페루	리마	2009/11/12~2009/11/14	www.thaiscorp.com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 페루의 주요기관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기관명(한국어)	웹사이트
페루 산업협회	www.sni.org.pe
페루 무역협회	www.comexperu.org.pe
상공회의소	www.camaralima.org.pe
세관	www.sunat.gob.pe
수출협회	www.adexperu.org.pe
외교통상부	www.mincetur.gob.pe
중앙은행	www.bcrp.gob.pe
통계청	www.inei.gob.pe
생산부	www.produce.gob.pe
민간투자청	www.proinversion.gob.pe
경제부	www.mef.gob.pe
통상관광부	www.promperu.gob.pe
건설협회	www.capeco.org
차량협회	www.aap.org.pe
산업은행	www.confiep.org.pe
에너지광업부	www.minem.gob.pe
에너지광업협회	www.snmpe.org.pe
전자정부추진위원회	www.ongei.gob.pe
조달청	www.osce.gob.pe
주택건설위생부	www.vivienda.gob.pe
교통통신부	www.mtc.gob.pe
증권거래소	www.bvl.com.pe